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2



글 •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그림 • 극동만화연구소

대법원 · 사법발전재단

책을 펴내며

어린이 여러분들은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어 본 적이 있나요? 또는 집에서 형제들과 싸워본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들어 주고,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해주신 분은 누구였나요? 서로 사이좋게 화해하라고 결정해 주신 분은 누구였나요? 만약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한쪽 편만 들고 공정하게 다툼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친구들, 형제들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커지겠지요?

법원이 하는 일은 이와 비슷합니다. 개인과 개인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다툼이 생겼을 때 양쪽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인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판단하여 다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양쪽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바로 재판이구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중요한 권리인 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책은 어린이 여러분에게 법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재판이란 무엇인지,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실제 있었던 재미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재판이야기도 생생하게 들려줄 거예요.

이 책의 주인공인 똘이, 나리와 함께 웃고 떠들면서 신나는 여행을 하다보면 법원과 재판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씩 쌓이게 될 거예요. 귀엽고 깜찍한 '바로미'가 친구가 되어 여러분을 재미있고 신나는 법원과 재판이야기 속으로 안내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바로미'가 누구인지 궁금한가요? 자, 그럼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출발!!!

2024년 10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등장인물 소개



바로미

정의를 수호하는 법의 요정. 똘이와 나리에게 법과 재판에 대해 가르쳐주고 초능력을 사용하여 특별한 경험을 겪게 해준다.



신나리

똑똑하고 어여쁜 12살 소녀. 얌전한 성격이지만 불의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크게 폭발한다. 매사에 하는 일이 똑 부러지는 성격



한똘

정의감만으로 좌충우돌하는 12살 소년. 운동실력이 뛰어나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원님

조선시대 어느 고을의 지혜로운 원님



정약용

조선시대의 대실학자이자 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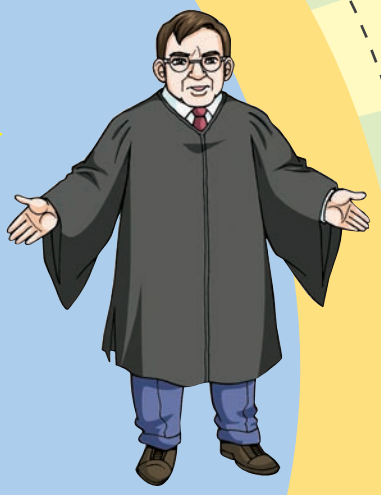


신부

서양 중세시대의 탐욕스러운 신부

피오렐로 라과디아

뉴욕의 존경받는 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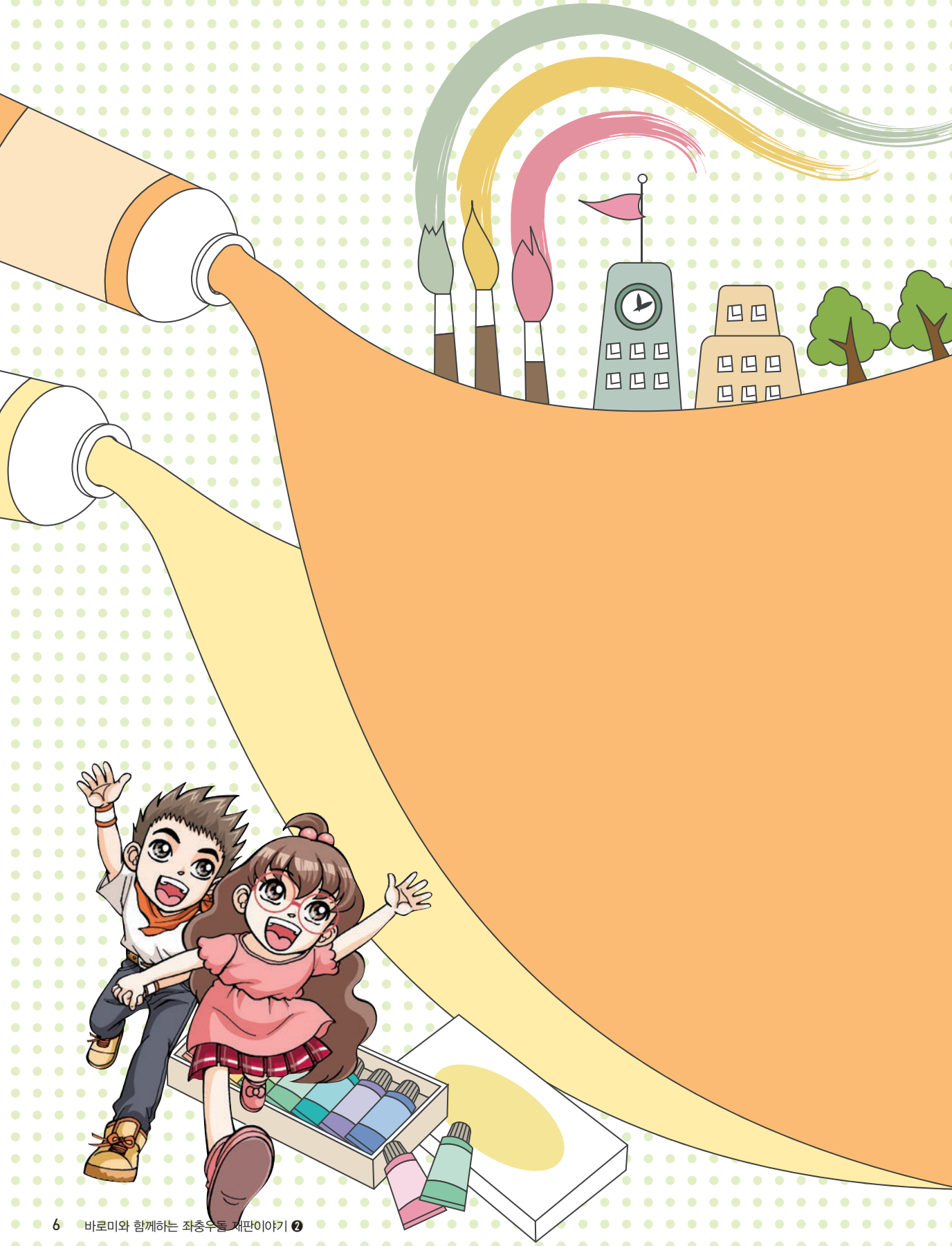
나리엄마

나리의 엄마



나의사

성형외과 의사



차례



제5화

뽕~ 재판의 역사 속으로 ····· 8

제6화

정약용과 라과디아 판사 ····· 64

제7화

친구들에게 무슨 사건이? ····· 99

❶ 똘이가 숯불구이집에서 화상을 입었어요
❷ 아기 때문에 나리가?
❸ 초상권 침해가 뭐예요?
❹ 나쁜 아저씨가 진실이를

제8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 190

제 5화

뽕~ 재판의 역사 속으로








애들아! 나랑 재판놀이 할래?
재판?
어떻게 하는 건데?
재밌겠다!


너희들은 재판에 대해 잘 모르니까.
내가 각자 역할을 정해줄게. 그냥 잠자코 따라주면 돼.


내가 판사!
넌 검사!
넌 경위!
넌 증인!


그렇지! 그리고 잘난이 넌 피고인!
나.. 나?


또.. 똘아 그런데
내가 왜 피고인이야.
?


그럼 사건번호. 20XX뻥1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잘난!!


무기징역!!!
재판 끝!
엥?
?
너..
무기징역이래~


얼른 형을 집행하시오!!


똘아!
지금 막무가내로
뭐하는 거니?
이런 재판이 어딨어?
몰라. 몰라.
모든 건 재판장
마음대로야!


잘난아. 판결이
저러니 어쩔 수
없잖아.
헉! 얘들은
똘이의 팬들!
피–똘이가 괜한
심술을 부리네...
무기징역이니
평생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어.


아 – 난 억울해!
싫어...!
싫어!!


드르륵
얘들아! 수업종 소리 못들었니? 모두 자리에 앉아.
치...
휴...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한 숙제를 낼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 조사해 오세요.
답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니 틀릴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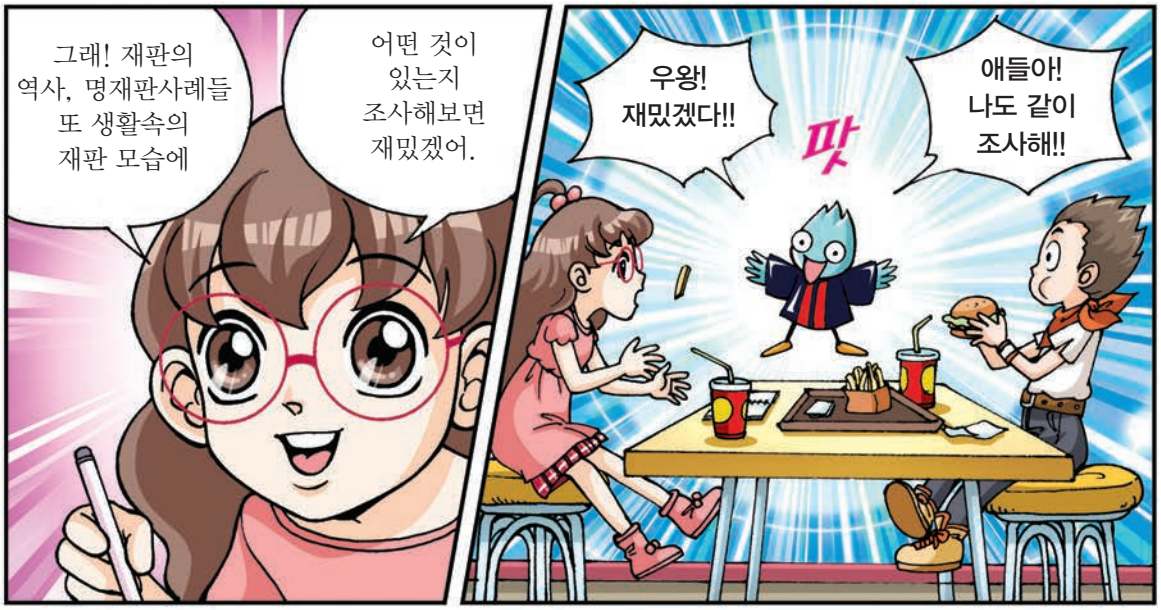

숙제제출기한은 특별히 정하지 않겠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 고민하고 연구해주길 바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야. 뻔할 뻔자 아냐.
돈이지! 돈!
빙그르르
돈이 있으면 편리한 것일 뿐 가장 중요한 건 아냐.
그런가..?
BYO
점


kig burg
그럼 사람?
웃음?
행복?
지식?
외모?
땀?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만 나오네.
선생님도 참 엉뚱한 걸 숙제로 내주셨단 말야..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 희망~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어떤 것이겠지.
....
혹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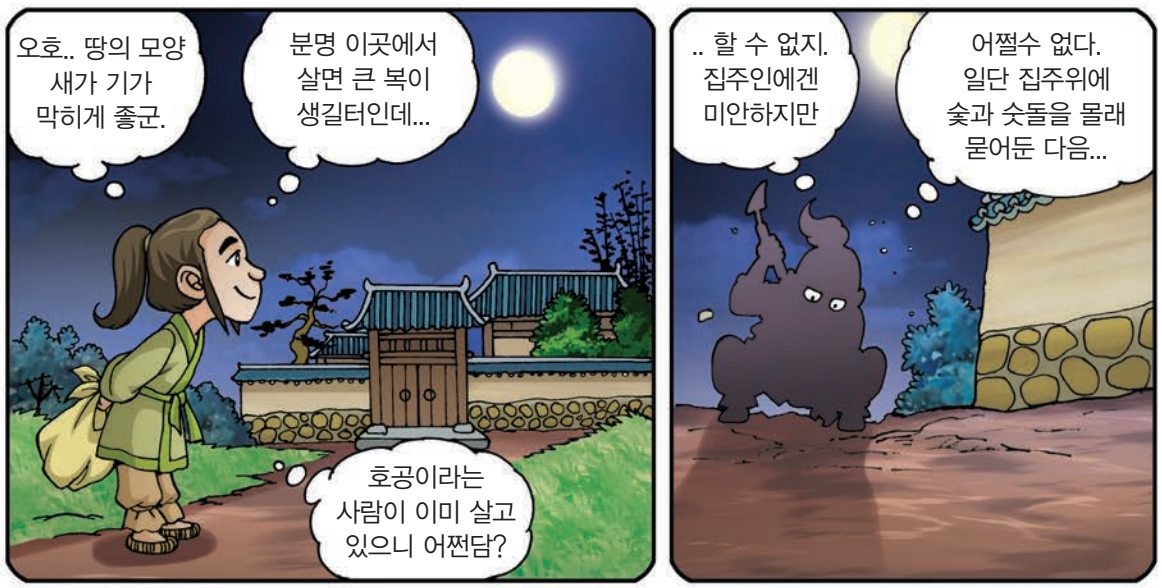

우와!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구나.
어쩜 신기하네.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재판에 대해 연구해보자.
재판은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잖아.


그래! 재판의 역사, 명재판사례들 또 생활속의 재판 모습에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보면 재밌겠어.
우왕! 재밌겠다!!
팍
애들아! 나도 같이 조사해!!


바로미!!!
모처럼
나리랑
데이트하는데
끼어들면 어떡해!!
??
앗!
사랑
이구나.
남자애가
데이트하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은데..
힘내라
소년!!
나.나가자..
에구..
햄버거 다 못
먹었는데...
재판의 역사는
인간사회의
역사만큼이나
길다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재판기록이
뭔지 알아?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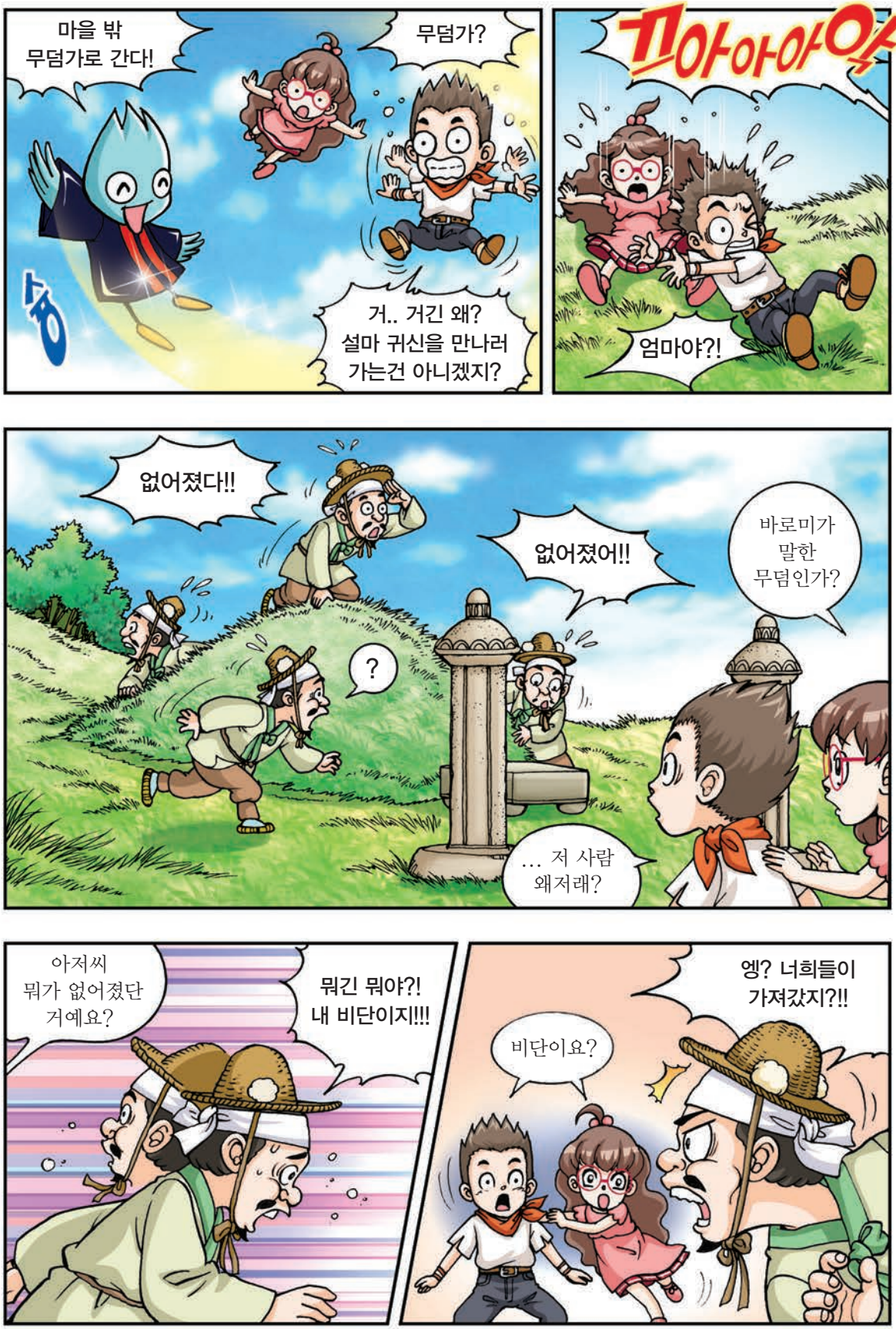

바로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석탈해의 이야기야. 약 2000년 전의 것이지.
엥? 2000년전 대체 그게 무슨 재판인데?
신라 초기에 석탈해라는 사람이
살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오호.. 땅의 모양 새가 기가 막히게 좋군.
분명 이곳에서 살면 큰 복이 생길터인데...
호공이라는 사람이 이미 살고 있으니 어쩐담?
.. 할 수 없지. 집주인에겐 미안하지만
어쩔수 없다. 일단 집주위에 숯과 숫돌을 몰래 묻어둔 다음...


다음날
?
재판장님! 소인의 집을 찾아주십시오.
아닙니다. 재판장님!
조상대대로 살고 있던 저희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이 사람이 집을 빼앗아갔습니다.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수십년째 제가 살던 집을 난데없이 이자가 나타나 집을 내놓으라 하지 뭡니까?
그만!


흐음... 참 어려운 재판이로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재판장님. 저희 조상님들은 대대로 대장장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집주변을 파보면 증거물이 나올것이 옵니다.
증거다..! 좋다! 당장 석탈해의 말이 맞는지 호공의 집주위를 파보자!
재판장님! 숯과 숫돌을 찾았습니다.
?
흠.. 석탈해의 말이 맞았군.
이집은 석탈해의
집임이 판명되었다.
헉!
뭐야? 숯과 숫돌은 석탈해가 몰래 묻어
놓은 것인데 엉터리 재판이잖아!
증거물조작으로 이긴 재판이네.
흥분할것 없어! 당시에는 과학적인 사건조사가 불가능했으니 어쩔 수 없지.
단지 이 판결이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 일 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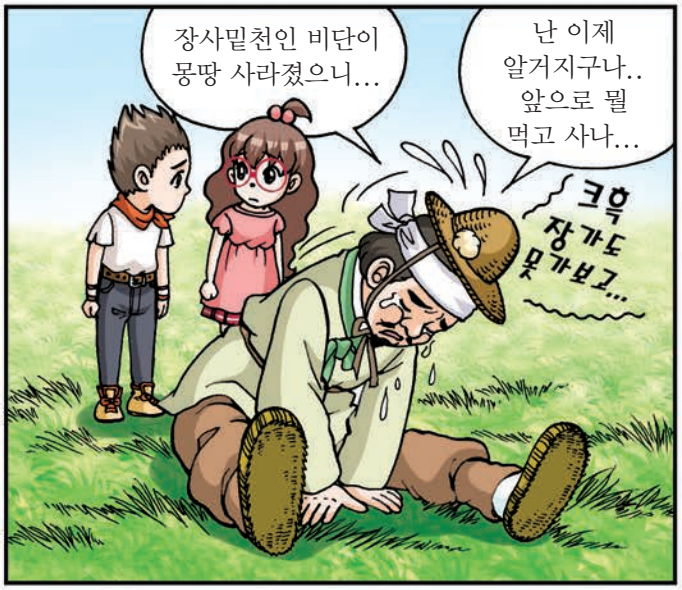

그래서 과거의 재판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장의 깊은 지혜가 요구되었지.
이를테면 어떤것을 말하는거야?
흠! 이를테면 ……
말하자면 ……
우우우잇!!
박 박
지혜로운 재판이 어떤 것인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직접 보거라!
앗!
와아 – 굉장해!!
초가집이랑 기와집 투성이야.
여긴 조선시대야.


마을 밖 무덤가로 간다!
무덤가?
휘이이잉
거.. 거긴 왜? 설마 귀신을 만나러 가는건 아니겠지?
끼아아아악
엄마야?!
없어졌다!!
없어졌어!!
바로미가 말한 무덤인가?
?
… 저 사람 왜저래?
아저씨 뭐가 없어졌단 거예요?
뭐긴 뭐야?! 내 비단이지!!!
엥? 너희들이 가져갔지?!!
비단이요?



* 망주석 – 무덤 양 옆에 세우는 돌로 만든 기둥


자기 전에 분명히 비단이 든 봇짐이 내 옆에 있었는데!!
드리 렁
드리 렁
조금 전 일어나보니 감쪽같이 내 비단이 몽땅 사라지고 없어졌단다!!!
드리 번
드리 번
인적이 드문 산속인데… 혹시 호랑이가 물어간거 아닐까?
호랑이가 비단을 왜 물어가겠어?
차라리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아저씨를 물어가지!
분명 누군가 아저씨의 비단을 훔쳐 간거예요!
그렇지!
그러니 어디서
어떻게 그 도둑을 잡을 수 있겠냐? 크흑!!


장사밑천인 비단이 몽땅 사라졌으니...
난 이제 알거지구나..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크흑 장가도 못가보고...


아저씨! 당장 관아에 가서 신고부터 하세요.
관아에서 도둑을 반드시 잡아줄거예요.
정말 잡을 수 있을까?


네! 바로미가 지혜로운 재판을 보여준다고 했으니 틀림없어요!!
너. 너무 성급하게 확신하는거 아냐?


바로미? 사람이름 맞냐?
신고는 빠를수록 좋아요. 어서 가요 아저씨.


망주석 앞에서 낮잠을 자다가 비단을 도둑맞았다고?
衙官


어이쿠.. 자네 간도 크구먼. 무덤 앞에서 잠을 자다니...
귀신 나오면 어쩌려구...


헉! 관아를 잘못 찾아왔나?
저 재판관이 아닌가봐...
어쨌든. 저쨌든 그 무덤가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사건을 목격했을 법한 이는 못봤는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요!
크크.. 허술하긴! 듣고보니 결정적인 목격자가 있구먼!!
네? 누, 누굴 말씀하시는지요?
자네가 무덤가에 오는 것! 자는 것!
물건을 누군가가 훔쳐가는 것까지 고스란히 목격한 것이 있어. 자네도 알지 않는가!!
아. 아닙니다! 나으리
전 정말 진정으로 모릅니다!
도대체 누굴 말하는거지?
글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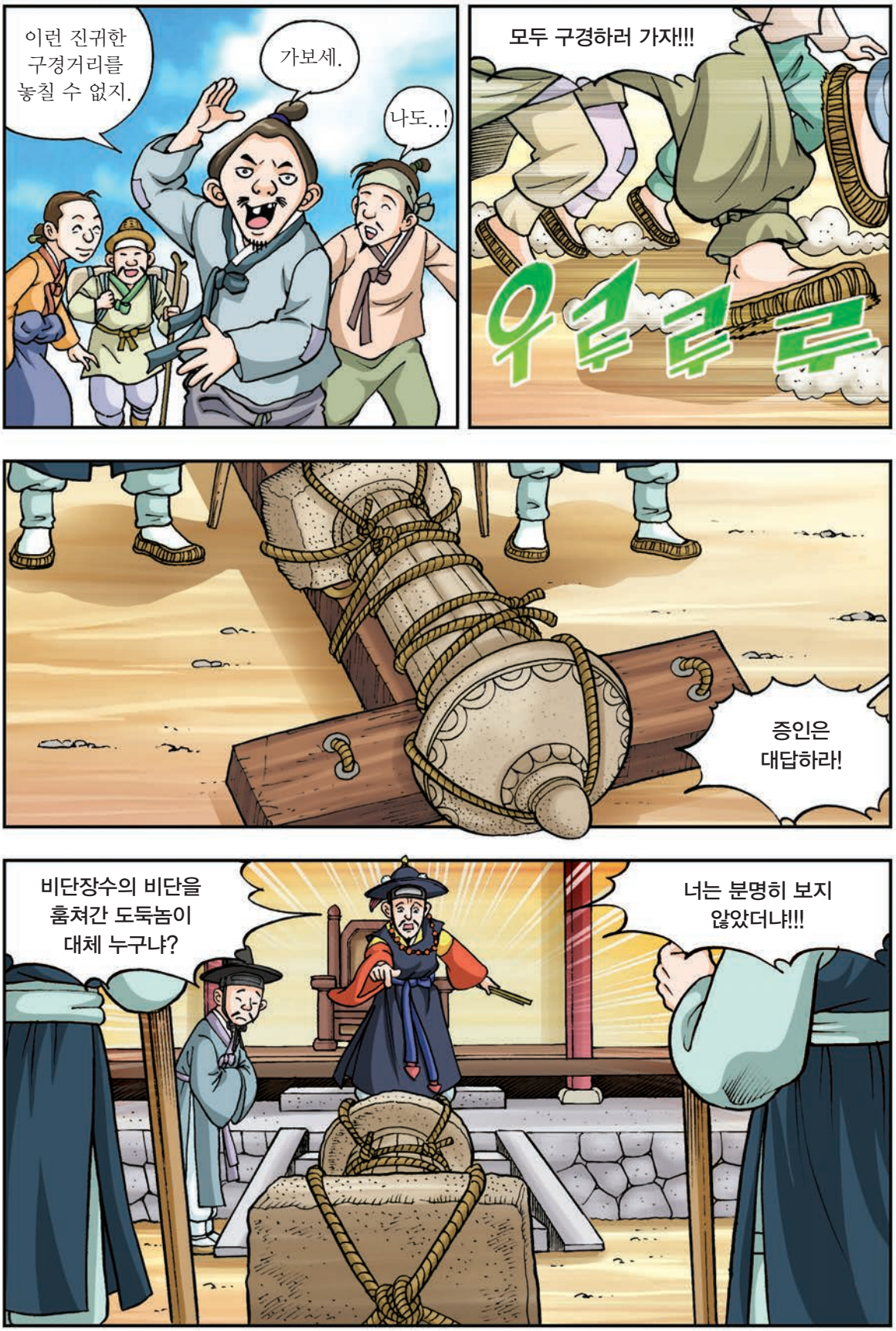

바로 무덤 앞의 망주석 말일세!
크핫하하하!!
네?
망주석이 목격자라고?
이게 무슨 어이가 가출한 소리야?
휘
청
이방은 포졸들을 이끌고 당장 그 망주석을 끌고 오너라!
내 직접 그 망주석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겠다.
명받자와 중요한 증인을 꼭 데려오겠습니다.
??
?????
조심하게. 돌덩이로 만들어진 놈이니 반항이라도 하면 위험해 질 수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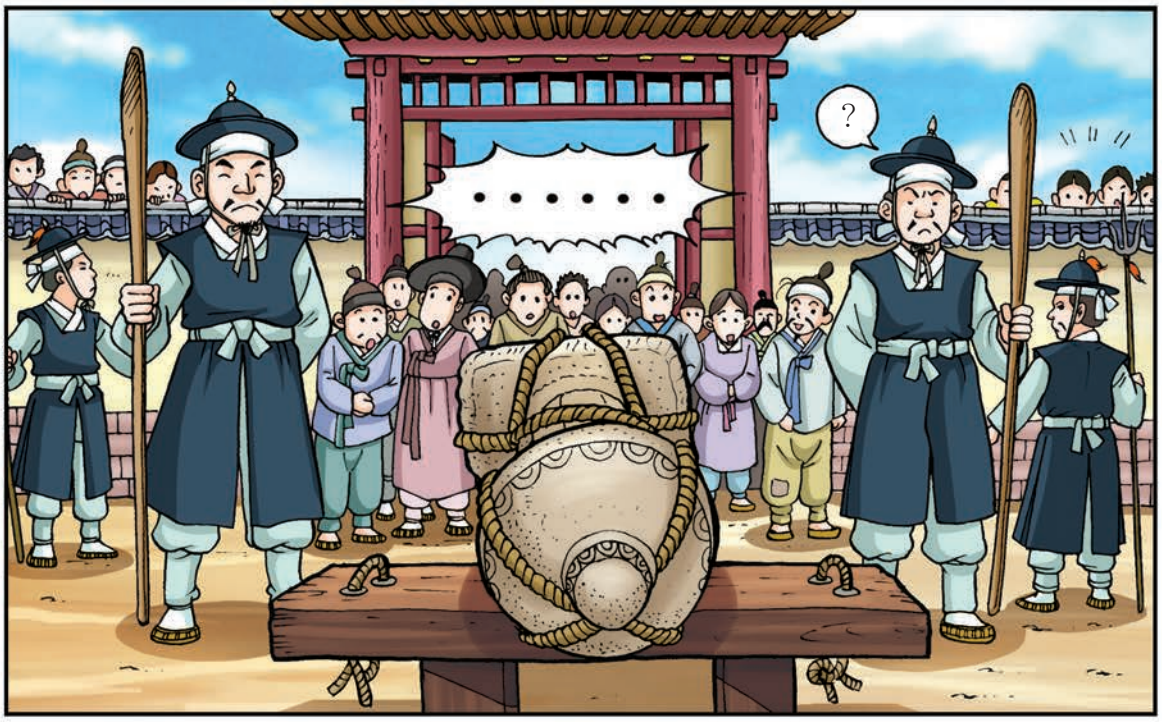

이보게 비단장수 걱정말게!
내가 반드시 범인을 잡아주지!!
아이구 망했구나…
아저씨?
벌러덩
허걱!
왈?
음머?
저.. 저게 뭐야?
세상에…


길을 비켜라!
절도사건의 중요한 증인을 호송중이니라!!
헛둘!
헛둘!
먼 소리여??


저.. 이방나으리.. 중요한 증인이 혹시…
'망주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픗!
사또께서.


망주석을 데리고 재판을 하셔서 도둑을 잡아내실 것이야.
지체하면 경을 치실것이니 말시키지 말고 후딱들 비키거라!!
망주석을 놓고 재판을 한다고?
헛둘!
헛둘!
어떻게?


이런 진귀한 구경거리를 놓칠 수 없지.
가보세.
나도..!
모두 구경하러 가자!!!
우르르
증인은 대답하라!
비단장수의 비단을 훔쳐간 도둑놈이 대체 누구냐?
너는 분명히 보지 않았더냐!!!


?
. . . . . .


감히 내 말을 무시해?
여봐라! 당장 이놈을 매우 쳐라!!


네잇!
도대체 부끄러운 짓을 사또께서 왜 하고 계신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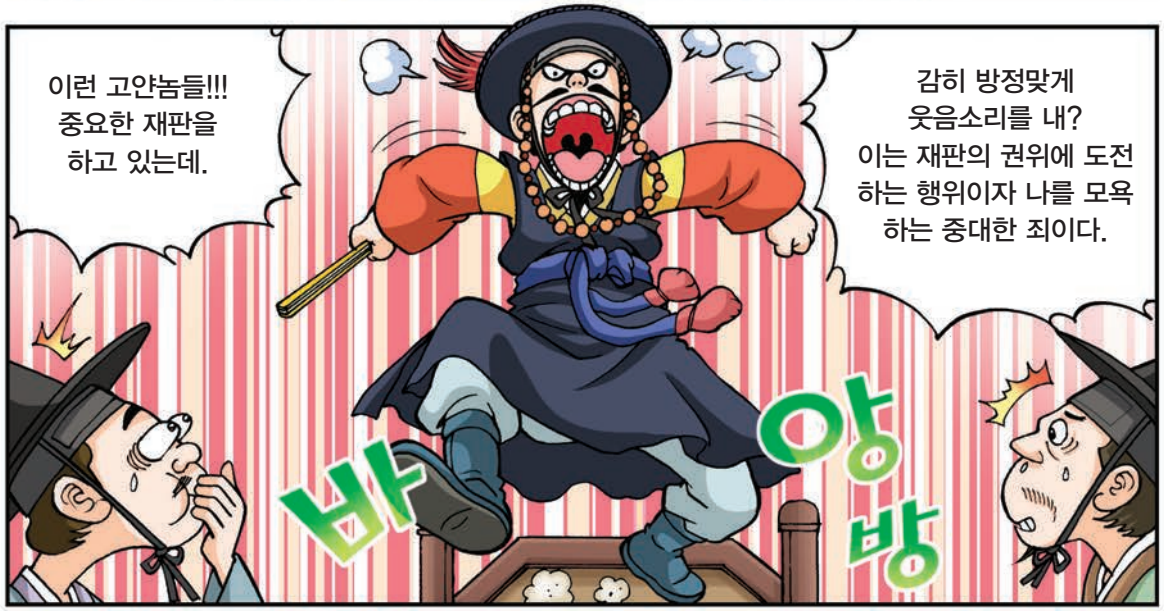

엄숙한 재판장에서.. 웃으면 안되겠지...
따악


세상에나..
만상에나...
사또께서
정녕 제정신인
건가?
푸풉...
따닥
따
악
이럴수가!!
독할 정도로
과묵한 놈이군!
내가 이대로
포기할 줄 아느냐?
와직
망주석이 입을 열때까지
더욱 세게 쳐라!!!
네잇.
끄앗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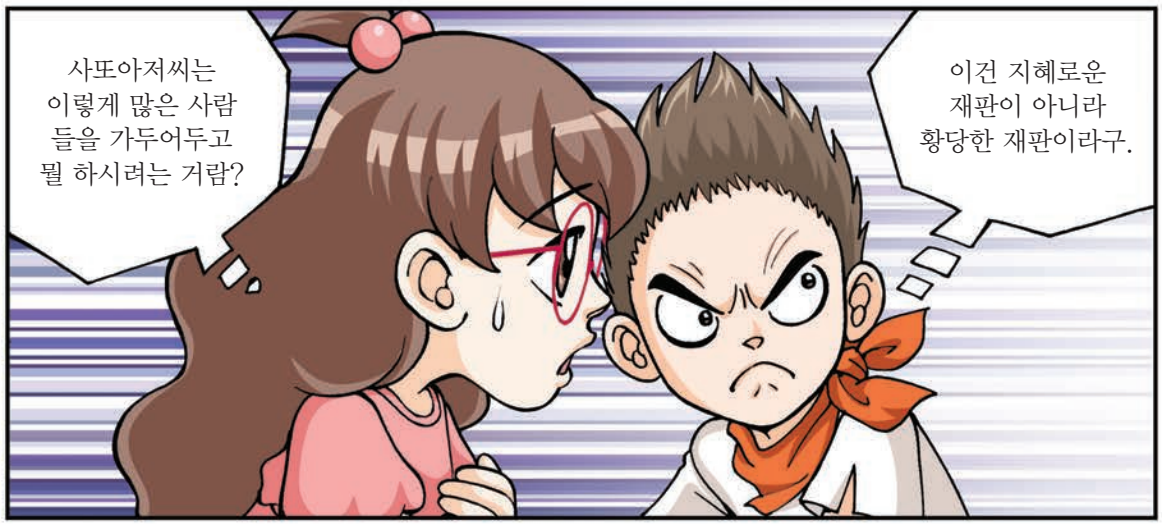

푸하하하하!!
더 이상은 못참겠어
크하하!!
나도!!!
깔깔깔!!
푸풉!


사또께서
미쳤구만!!
하 하 하


백날을
때려보시지!
망주석이 말을
하나 안하나.
호호호
낄낄낄~


이런 고얀놈들!!!
중요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감히 방정맞게
웃음소리를 내?
이는 재판의 권위에 도전
하는 행위이자 나를 모욕
하는 중대한 죄이다.
바
양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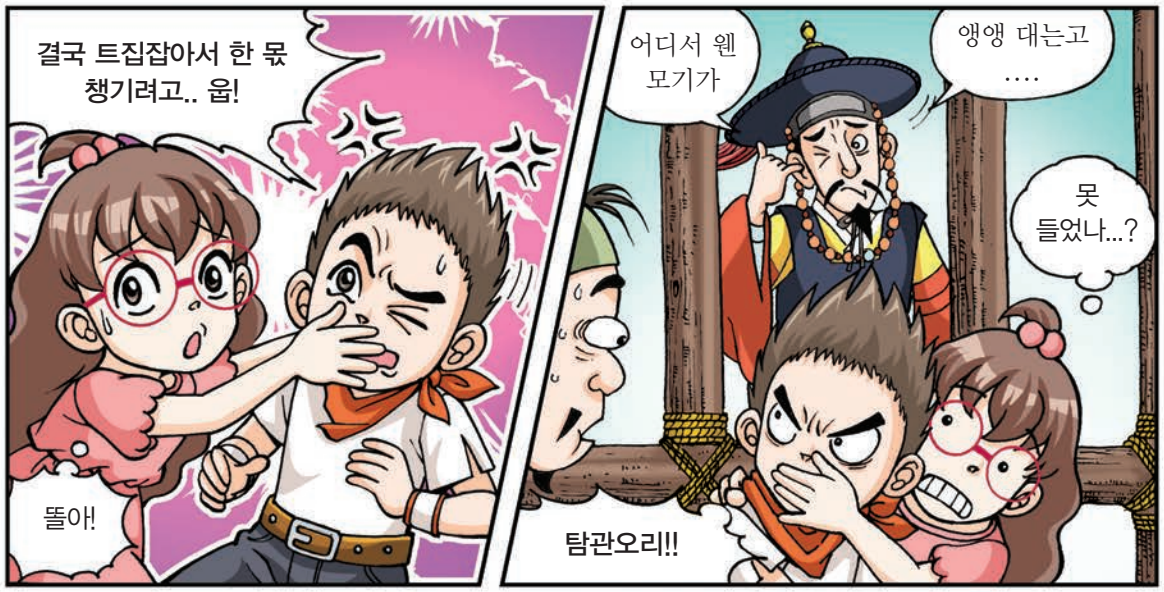

여봐라!! 여기 이자들을 모두 잡아 가두도록 하라!!
넷!!!
하하하하
휙
이럴수가? 이건 아니야!
바로미에게 착오가 있었던 게 분명해!!
웃었다고 감옥에 가두는 저런 사람이 지혜로운 재판장일 리 없잖아!
응! 웃긴 짓을 한 사람이 누군데!!
움직이지 좀 말아요!
비좁아 죽겠어.
어이쿠! 방귀 뀐 놈 누구야?!


사또아저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두어두고 뭘 하시려는 거람?
이건 지혜로운 재판이 아니라 황당한 재판이라구.


바로미 어딨어?
장난치지 말고 우릴 구해줘!!
시끄럽다! 이녀석아. 이제 잠 좀 자자!!
따
콩
아얏! 말로 하지 때리긴 왜 때려요?


헛흠! 모두들 밤새 반성은 많이 하였나?
짹
짹
짹
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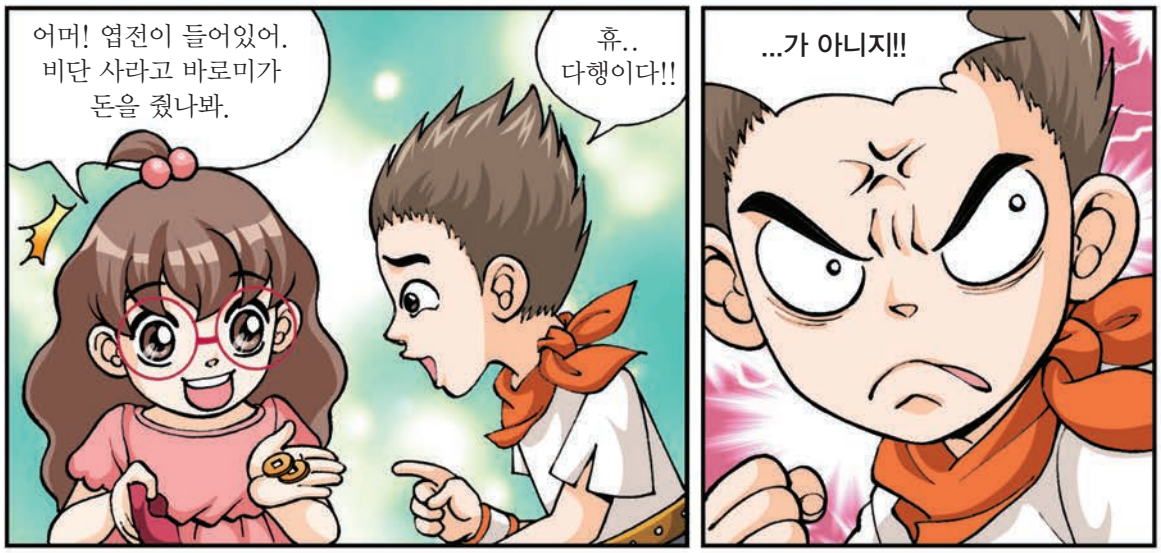

.....네.
아니?
넌 머리가 왜 그러냐?
게다가 옷차림은 그게 뭔고?
아.. 아뇨 그냥....
밤새도록 바로미를 찾아 울부짖다가
꿀밤세례를 억수 같이 받아서요.
나도 너희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나
너희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리하진 못하겠구나.
대신 내게 비단 1필씩 각자 바친다면 없던 일로 해주마.
뭐..뭐요?


결국 트집잡아서 한 몫 챙기려고.. 윱!
돌아!
어디서 웬 모기가
앵앵 대는고 ....
못 들었나...?
탐관오리!!


또다시 감옥에 갇히기 싫다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비단 1필씩 들고 오너라!


젠장! 우리 마을처럼 외진 시골에서 비단을 갑자기 어떻게 구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야지. 내가 갇혀있음 소는 누가 키워?
우린 땡전 한푼도 없는데 어쩌지?
글쎄?


똘아. 네 주머니에서 뭔가가 빠져나와 있어. 그게 뭐야?
엥?
이게 뭐지?
삭
법원 마크가?!
법원


어머! 엽전이 들어있어. 비단 사라고 바로미가 돈을 줬나봐.
휴.. 다행이다!!
...가 아니지!!


바로미 어딨냐? 약속이 틀리잖아!!
이런 어이없는 재판을 보여주면 어떡해!!
?
얼른 비단이나 구하러 가자.
비단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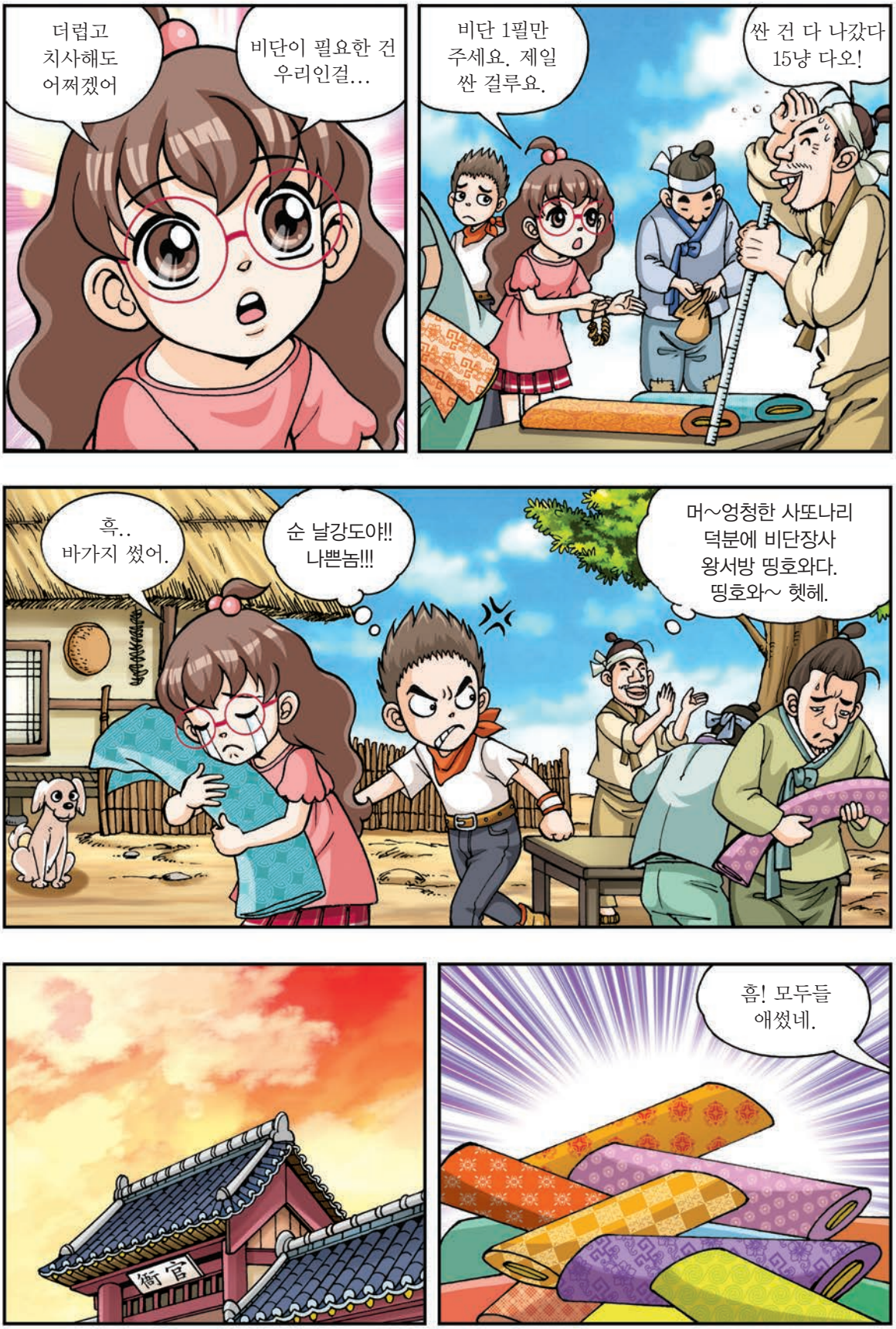

비단 팔아요!! 비단!!
날이면 날마다 파는
비단이 아니예요!!!
어여쁜 비단 1필에
단돈 10냥!!
어? 마침
비단장수가 왔네..
장사치들은
소문도
빠르다니깐...!


너무 비싸잖소!
평소엔 다섯냥이면
거뜬히 살 수
있었는데.
10냥이면 쌀이
대체 몇가마야?


싫으면 사지
말던가~ 감옥
안에 있으면.
힘든 농사일
할 필요도 없고
좋겠네~!


젠장! 한필만
주슈!
나..나도
한필만...
감사합니다
고객님!!


다른 사람들
의 곤란을
돈벌이에
이용하다니..
고약한
사람이네!!


더럽고 치사해도 어쩌겠어
비단이 필요한 건 우리인걸...
비단 1필만 주세요. 제일 싼 걸루요.
싼 건 다 나갔다 15냥 다오!
흑.. 바가지 썼어.
순 날강도야!! 나쁜놈!!!
머~엉청한 사또나리 덕분에 비단장사 왕서방 띵호와다. 띵호와~ 헷헤.
衙官
흠! 모두들 애썼네.


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용케 비단을 이만큼이나 구해왔군.
악질사또!
탐관오리!
부패공무원!
자! 비단장수 이제 자네가 나설 차례네.
..네...
저 비단들 중에 자네 것이
있는가 찾아보게..
헉! 이 비단! 저 비단! 요 비단!
사또나으리!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비단이 망주석 앞에서 도둑 맞았던 제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이구나.
당장 이 비단을 판 놈을 잡아오너라!!
그 놈이 비단장수의 비단을 훔쳐 뻔뻔스럽게 마을사람들에게 판 것이니라!!!
아!
!!!!
곧 비단도둑은 잡혀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네.. 제가 훔쳤어요. 흑흑..
백성들은 비단값을 모두 돌려받았다.
자네들이 고생한 덕분에 도둑을 잡을 수 있었네.
수고들 했어.
아이구 가, 감사합니다.


사또나으리의 지혜 덕분에 제 비단을 무사히 되찾았습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
.....
잘 해결되었으니 다행이네.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초라하지만 받아주십시오.
허허. 거두시게.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정을 아는데
어찌 내가 받을 수 있겠나. 앞으로 조심해서 다니도록 하게.
사또아저씨는 사람들이 비단을 어디에서 구해오는지 알아보려고 어리석은 재판을 하는 것처럼 꾸미셨어.
정말 정의롭고 지혜로운 재판장님이야.
짠~! 재밌었지?
이제야 나타나는구나.
우린 너에게 속은 줄 알았다고.
옆에 있다간 입이 근질근질해서
재판의 반전을 말해버릴 것 같았거든!!


난 정말 나쁜 사또인 줄 알고 오해했었는데..
바로미야. 현명한 재판을 보게 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사또아저씨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백성들의 비단을 그냥 빼앗아 갈 수도 있었잖아.
그렇지!
옛날엔 법이 권력을 가진 힘있는 사람들 위주로 정해져 있어서 나쁜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많았지..
유럽의 '마녀재판'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
마녀재판?
그게 뭐야?
마녀재판은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에서 행해지던 재판이야.
중세사람들은 악마의 사주를 받은 마녀와 마법사들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려 한다고 생각했어.
..?


그래서 재판을 열어 마녀, 마법사들을 가려내어 없애버리려 했지.
에이.. 세상에 마녀나 마법사가 어딨어?
맞아. 그런 사람들은 없지. 하지만 공포와 상상력, 그리고 추악한 욕심이 마녀와 마법사들을 탄생시켰어.
웬 올챙이 뒷다리 긁는 소리야?
그래. 말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
그럼 중세유럽으로 가서
아 아 아
직접 체험해봐.
아이고 이건 뭐야? 바로미!!
아아아아
천만가지 재주 중 일부일 뿐이야.


와아~ 똘아! 저기봐 동화같이 생긴 마을이야
신난다! 내가 정말로 유럽에 오다니!
온 김에 맛난 것도 먹어야지! 유럽은 빵의 본고장 이었지? 흐흐~
똘아. 우린 놀러온 게 아니잖아.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 먹어보는 것도 좋겠지.
이거면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어.
와아~ 바로미야. 정말 고마워. 잘 사먹을게.
난 여기서 기다릴 테니 너희들끼리 마을에 갔다와.
알았어. 다녀올게~


처음보는 아이들인데..?
...!
옷모양새나 머리가 괴상하군


우리 옷차림 때문인지
사람들이 너무 험악하게 보는 것 같아.
응! 좀 무서워..
...?
!
어? 저기있다.


Bakery
빵가게!
아저씨, 이집에서 제일 맛있는 빵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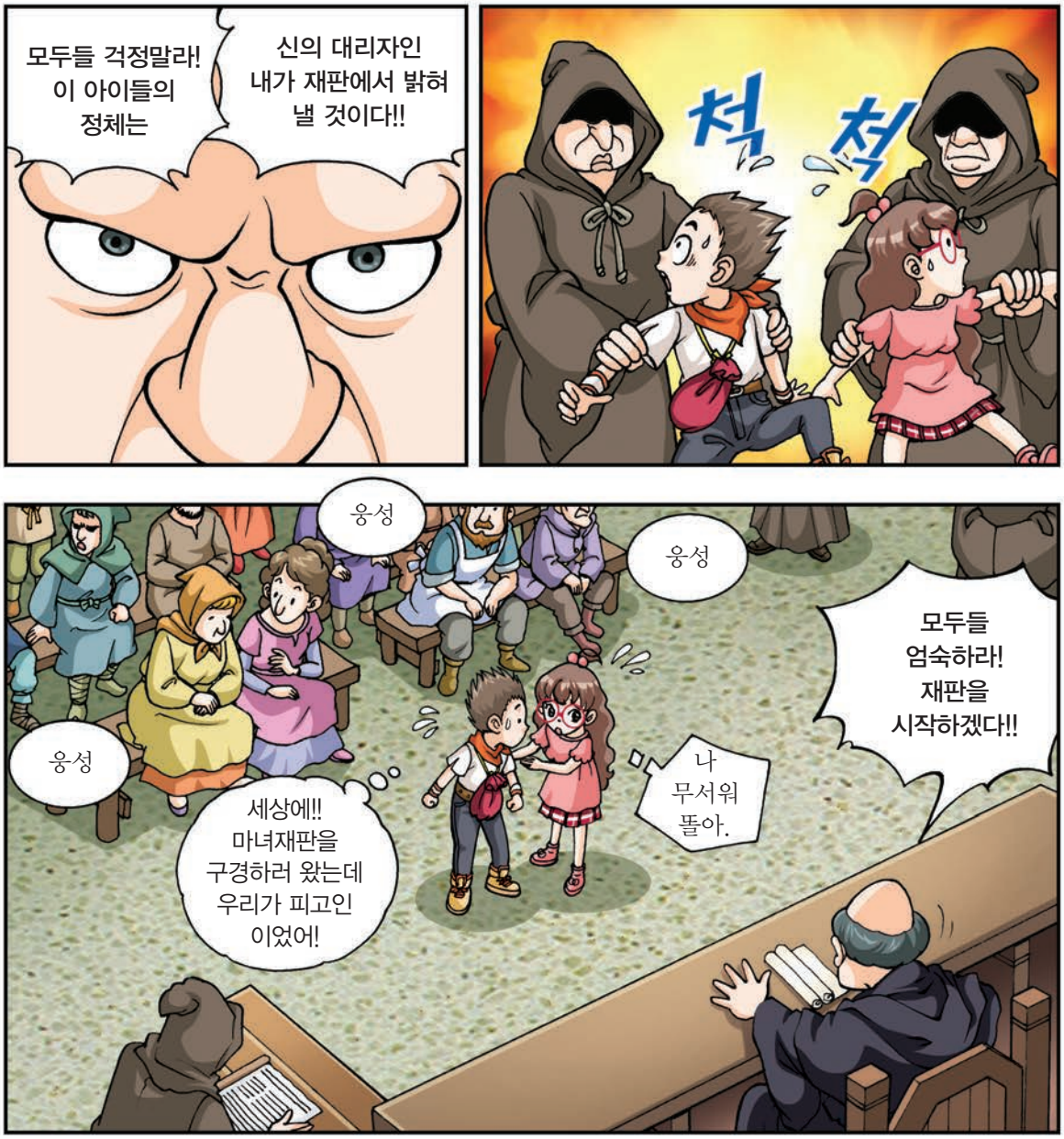

너흰 어디서 왔느냐?
헤.. 좀 멀리서 왔어요. 그보다 빵 주세요!
헉!
그..금화를!
돈이요.
어머? 똘아 금화야!
신난다! 그러고 보니 주머니 안이 모두 금화야.
!
역시 이상한 아이들이구나?
왜요? 금화는 안 받아요?
그 아이들에게서 물러나라!


저 아이들은 우리 마을을 악마에게 넘기려고 온
마녀와 마법사다!!
뭐라구요?


오~ 신이시여.
굽어살펴주옵소서~
후다다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예요?
멀쩡한 사람을 앞에 두고 마녀와 마법사라니!!


이것 보아라! 심하게 흥분하고 있구나!!
당황해서 그런 것이야!
심하다..!
마녀가 맞았구나!!


모두들 걱정말라! 이 아이들의 정체는
신의 대리자인 내가 재판에서 밝혀 낼 것이다!!
척
척
웅성
웅성
웅성
모두들 엄숙하라! 재판을 시작하겠다!!
세상에!! 마녀재판을 구경하러 왔는데 우리가 피고인 이었어!
나 무서워 돌아.
너희같은 기괴한 차림을 한 아이들은 처음본다.
어디서 왔느냐?
저기 동쪽의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왔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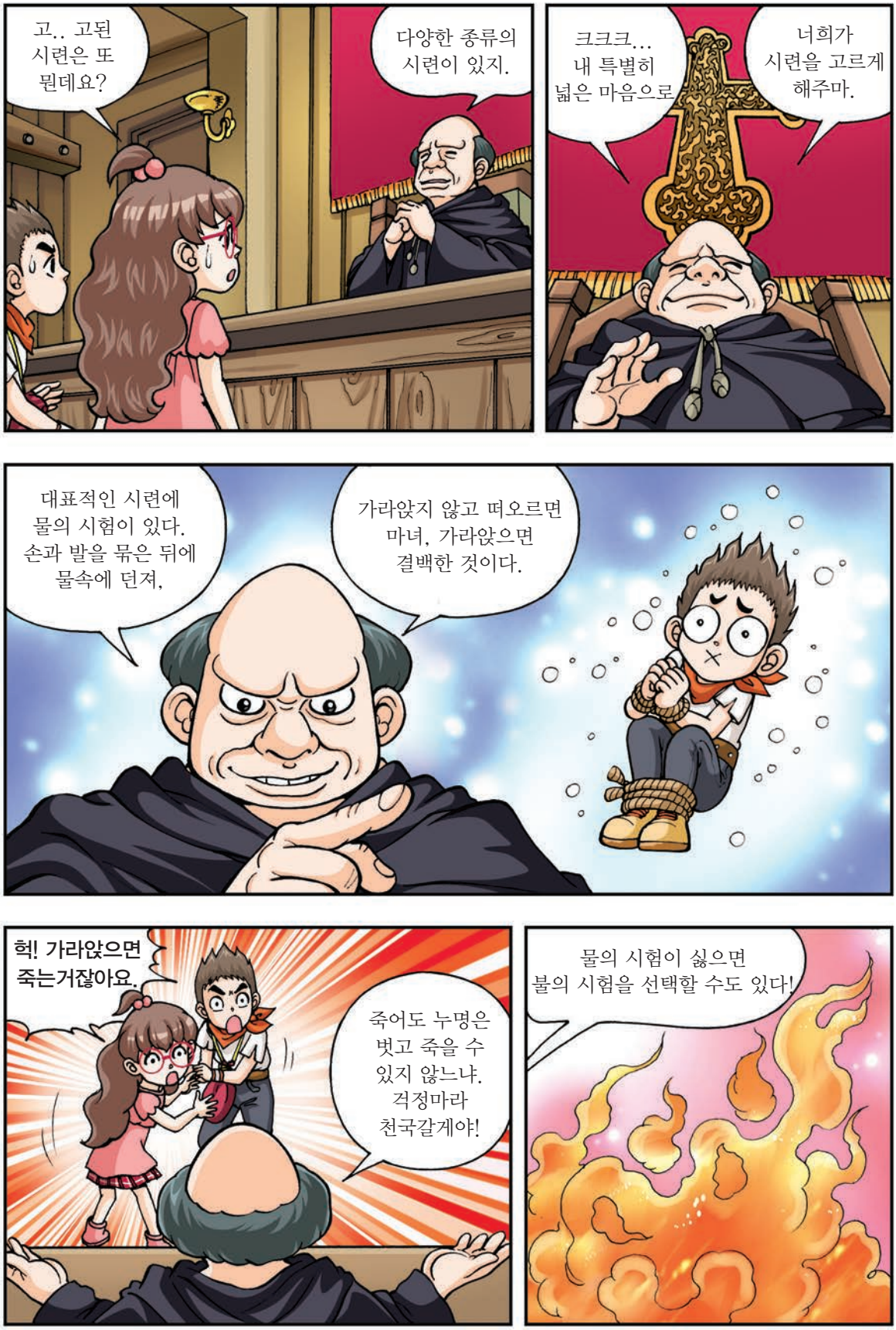

동쪽?! 동쪽은 이교도들이 사는 곳이 아니냐?
마녀와 마법사가 틀림없다. 악마의 사주를 받고 온거지?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세상에 악마가 어디 있어요?!


이럴수가!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다니!!
악마가 없으니 신도 없는 것이라 말하고 싶은 것이냐?
제가 언제 그렇게 까지 말했어요?
시치미떼도 소용없다! 너희들이 악마와 내통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증거?


오늘 아침 재단사 톰슨의 염소가 다리를 삐었다.
?
이제껏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지.
너희들이 요술을 부려서 그리된 것이 틀림없어!!


컥?!
지난 여름의 홍수도 너희들이 요술을 부린 것이지?
홍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난 아까 이유없이 다리가 꼬여 넘어졌어. 너희들 짓이 틀림없어!!
세금이 오른 것도 너희들 탓!
내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것도 너희들 탓!
사돈의 팔촌네 옆집아저씨가 기침을 한 것도 모두 너희들 탓이야!!
참자.. 참아....!
아아아!! 짜증나!! 그래요.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치죠!
하늘이 파란 것도, 우체통이 빨간 것도 몽땅 내 탓이라구요!!!
또...똘아!


마법사여! 드디어 네 정체를 자백했구나.!!
시끄러워요! 재판이 뭐 이래요?!!
증거는 없고 추측 밖에 없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더니
연관성이 없는 일을 무조건 증거라고 갖다 붙이기만하면 장땡이예요?
말만 할 줄 알면 뭐해? 대화가 안되는데!!!
좋다. 네가 정말 결백하다면 시죄법에서 진실이 드러나겠지.
시죄법? 그게 뭔데요?
시죄법이란 죄가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절차이다. 마녀, 마법사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고된 시련을 겪게하여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것이지.


고.. 고된 시련은 또 뭔데요?
다양한 종류의 시련이 있지.
크크크... 내 특별히 넓은 마음으로
너희가 시련을 고르게 해주마.
대표적인 시련에 물의 시험이 있다. 손과 발을 묶은 뒤에 물속에 던져,
가라앉지 않고 떠오르면 마녀, 가라앉으면 결백한 것이다.
헉! 가라앉으면 죽는거잖아요.
죽어도 누명은 벗고 죽을 수 있지 않느냐. 걱정마라 천국갈게야!
물의 시험이 싫으면 불의 시험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마법사와 마녀들은 불로 지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달구어진 쇳덩이를 손에 꼭 쥐게 한 후 화상을 입는지 살펴보는 시험이지.
아니면 펄펄 끓는 물에 팔꿈치까지 넣어보고 화상을 입는지 안 입는지 시험해보기도 하고
뭐야? 결국 사람을 죽이겠다는거잖아!


눈물을 흘릴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도 한다. 마녀나 마법사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법이니깐.


저거다! 나리야 우리 울자!!
우는게 제일 쉬운 것 같아.


눈물이 내 맘대로 나왔다 말았다 하는 거였으면 난 당장 아역 연기자로 데뷔했어.
그래. 실은 나도 너무 열받아서 눈물이 다 증발된 것 같아 이것도 불가능해.
그것들 말고 또 다른 시죄법은 없어요?


몸에 있는 점들에 대바늘을 꾸욱 찔러보고 혹시 아프지 않는 점이 있는가 살펴보는 시험이 있고.
싫어요!!
빵을 먹고 목이 메이나 메이지 않나를 보는 시험도 있다.
콜!!!
빵의 시험! 그걸루 할께요!!
크크크크.. 좋다. 빵을 가져오너라.
둥
둥
탁
저기... 재판장님 빵을 주셔야 되는데 벽돌을 주셨어요.
탁탁
못도 박겠네.
헛흠! 그것은.


신의 사제인 내가 만든 빵이니라. 그 빵을 먹으며 사례가 걸리거나
가슴을 두드리거나 목구멍 안으로 넘기지 못하면 너희는 유죄다!
어떡해? 큰일났어!!


저기... 마녀와 마법사들은 보통 어떤 벌을 받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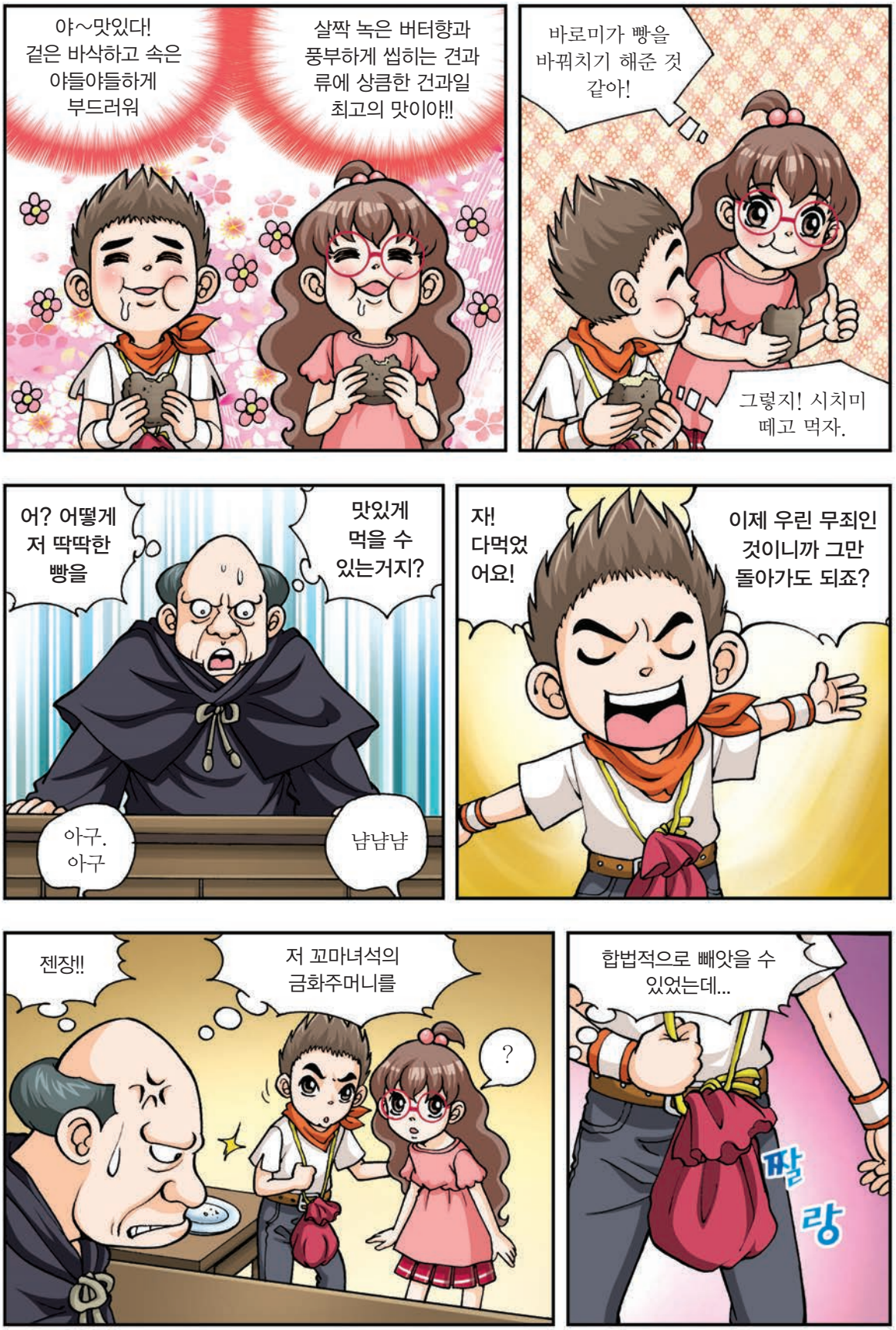

광장으로 끌고가 기둥에 묶은 뒤 산채로 불태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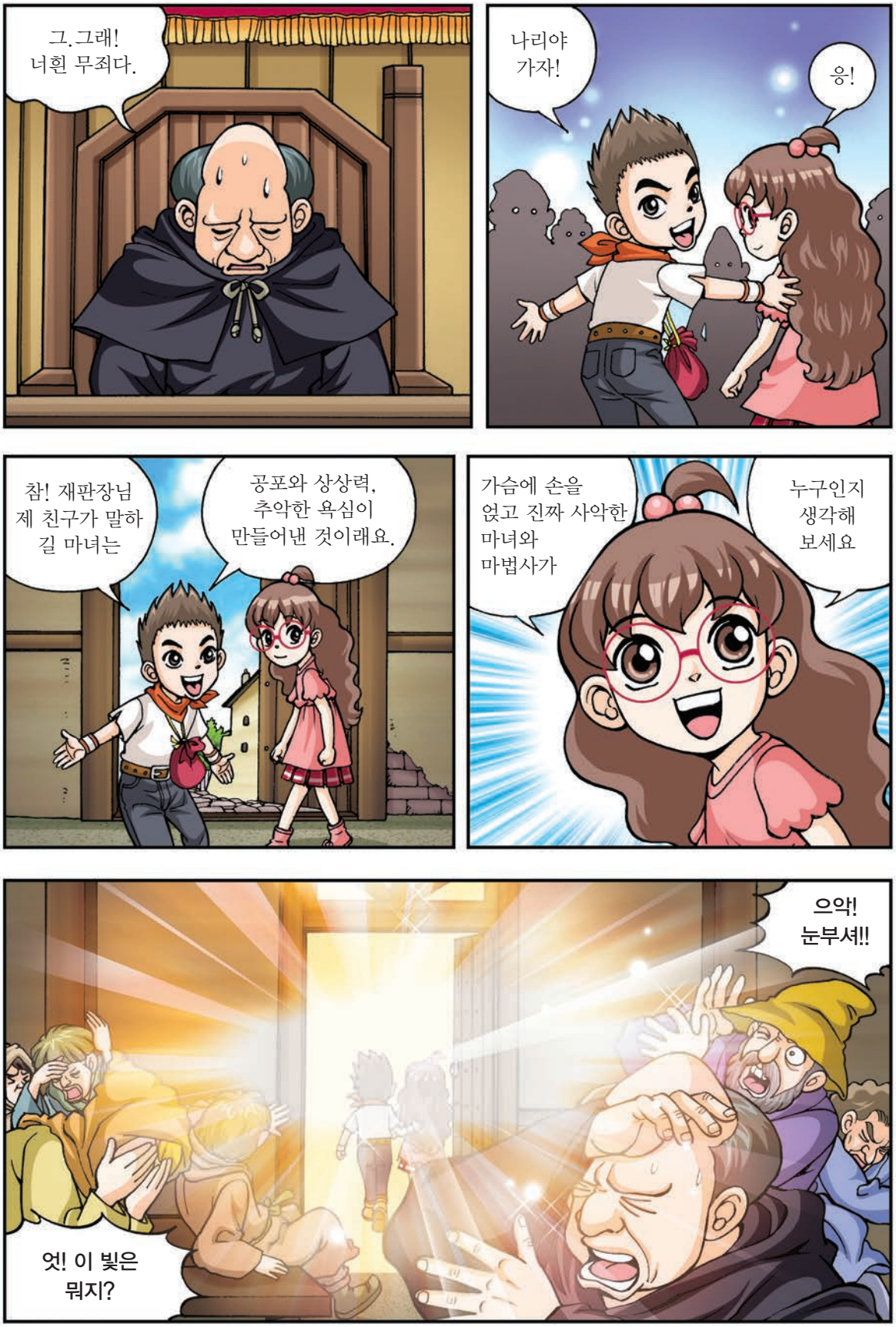

화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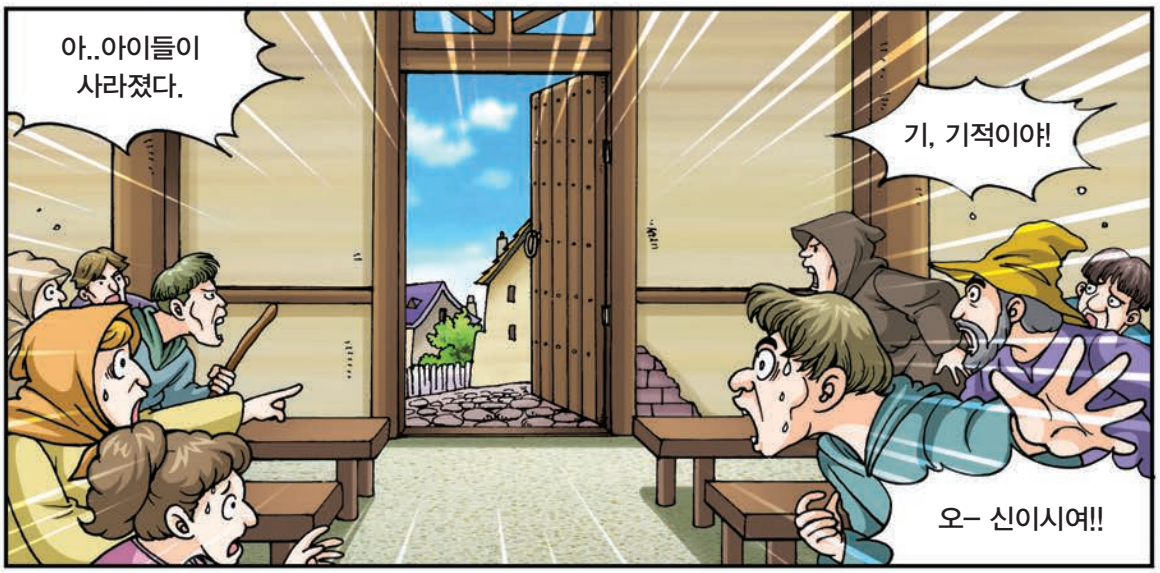

자! 너희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 빵을 먹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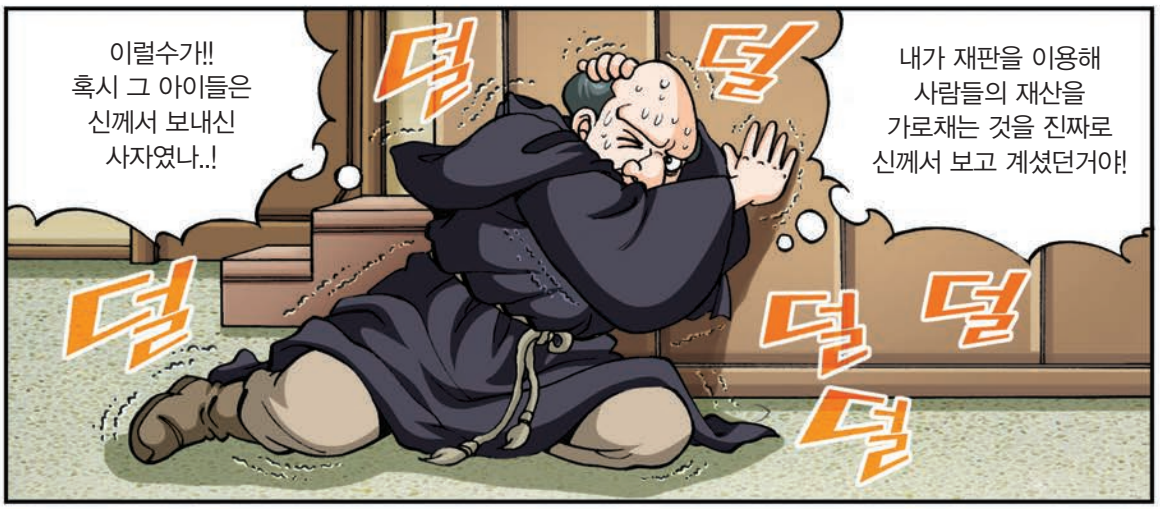

먹어라!!
깜
짝
먹어라!!


먹어라!!
마법사와 마녀가 아니라면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유럽 본고장의 빵을 먹어보고 싶긴 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어!
나.. 나리야... 어떻게든 침착하게 씹어삼키자...
응.. 이빨 안 부러지게 조심해.
...!
먹어라
먹어라
ㅋㅋㅋㅋㅋ.....
이
빵은...


야~맛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야들야들하게 부드러워
살짝 녹은 버터향과 풍부하게 씹히는 견과류에 상큼한 건과일 최고의 맛이야!!
바로미가 빵을 바꿔치기 해준 것 같아!
그렇지! 시치미 떼고 먹자.
어? 어떻게 저 딱딱한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거지?
아구. 아구
냠냠냠
자! 다먹었어요!
이제 우린 무죄인 것이니까 그만 돌아가도 되죠?
젠장!!
저 꼬마녀석의 금화주머니를
?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었는데...
짤랑


그.그래!
너흰 무죄다.
나리야
가자!
응!
참! 재판장님
제 친구가 말하
길 마녀는
공포와 상상력,
추악한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사악한
마녀와
마법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으악!
눈부셔!!
엇! 이 빛은
뭐지?


아..아이들이 사라졌다.
기, 기적이야!
오– 신이시여!!


이럴수가!! 혹시 그 아이들은 신께서 보내신 사자였나..!
덜 덜
덜 덜 덜
덜
내가 재판을 이용해 사람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을 진짜로 신께서 보고 계셨던거야!


돌아왔네.
바로미. 고마워!


덕분에 빵 진짜 잘 먹었어!! 정말 맛있더라!
그뿐이야? 평생 잊지못할 끔찍한 경험을 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너희들 말 속에


가시가 팍팍 느껴지는 걸~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마치 이상한 나라에 갔다온 느낌이야.
응!
논리도 근거도 없는 재판이라니.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런 재판이 어떻게 수백 년간 존재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중세유럽의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종교와 정치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신의 뜻에 의심을 품지 말거라!
모든 의심은 악마가 인간을 현혹하기 위해 짜놓은 함정이다.
악마!
무서버~
하지만 진짜 악마봤어?
결국 마녀재판은 정치로 힘을 지녔던 권력자들이 변화를 막으려 한 횡포였음을 알게 된거야
와 와
마녀재판 결사반대
와
죄없는 사람 잡지마라


악마의 사주를 받았다고 누명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여자들이었지.
억울해도 함부로 반항 못할 약한 사람들이구나!
맞아. 수백 년간 몇만 명의 여자들이 마녀라고
낙인찍혀 억울하게 죽어갔어
여자들의 재산은 영주와 고문관, 주교들이 나누어 가졌으니 그들에겐 크게 남는 장사였지.
권력도 유지하고 재산도 늘리고 일석이조였겠네.
.....
이번 여행으로 잘못된 재판이 얼마나 큰
희생을 부를 수 있는지 알게됐어.
내일 학교에 가면 잘난이에게 사과해야겠어.
어머. 정말?


내가 재판놀이라고 친 장난이 마녀재판의 재판장아저씨가
한 짓과 똑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긁적
긁적
와~ 똘이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구나.
뭐야 그거? 칭찬이야?
물론 칭찬이지. 과거의 잘못된 재판을 교훈삼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여,
오늘날의 민주적인 재판의 모습에 이를 수 있게 된 걸!!
빙그르르
그렇구나.
바로미 덕분에 유익한 경험을 해서 그런 것 같아. 고마워.
헤헷! 나도 너희들 덕분에 의욕이 팍팍 생기는걸?
그럼 내킨 김에 다른 재판들도 구경하러 가보자!!
와아아아
앗!
으악!! 다음은 무슨 재판인데?



제5화 심화학습



사법권의 독립

옛날에는 재판에서 마을 원님이나 나라의 왕 등이 수사와 판결을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물론 망주석 재판의 원님이나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수사와 판결을 모두 할 경우, 죄가 없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꾸며 무자비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판제도도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였으며, 대신에 재판을 하는 사람, 즉 법관(재판관, 혹은 판사)들을 따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재판의 독립,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이라 합니다. 왕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한 것은 죄를 추궁하는 사람과 재판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이로써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왕이나 그밖에 힘을 가진 사람의 어떤 간섭이나 명령도 받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1895년 4월 25일 '재판소 구성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완전한 근대 사법제도가 시행된 날입니다. '재판소 구성법'은 지금처럼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고문을 금지하고 재판과정에서 인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었습니다. 현재 '법의 날'을 매년 4월 25일로 정한 것도 '재판소 구성법'이 시행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권이 독립됨으로써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①

증거재판주의

마녀재판을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된 증거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빵을 먹고도 목이 메이지 않는 사람이나, 새빨갛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쥐고 화상을 입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된 재판을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을 '증거재판주의'라고 합니다. 증거재판주의는 자백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②

공개재판주의

'공개재판주의'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와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개재판주의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 받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공개재판주의를 통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공개재판주의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의 절차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재판의 결과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6화

정약용과 라과디아 판사






바로 조선시대의 사법부인 「형조」야.
각종 법률이나 소송, 죄인을 옥에 가두고 벌주는 일 등을 두루 맡아 처리하는 곳이지.


오오옷! 중요한 곳이네. 긴장되는 걸!
정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곳이야?


안심하고 들어가 지금 너희는 형조관아에서 일하는 포졸과 다모야.
다모? 다모가 뭐야?


다모는 조선시대의 여자 수사관이야. 신분은 비록 천민이었지만
여자죄인을 벌하거나 사건 조사를 하는 등의 중요한 일을 했어.


좋아! 정의를 향해 돌진!!
이번엔 나도 같이 돌진!!


어? 저 포졸들은 우리가 안보이나봐
앞을 잘봐.
바로미가 또 조화를 부렸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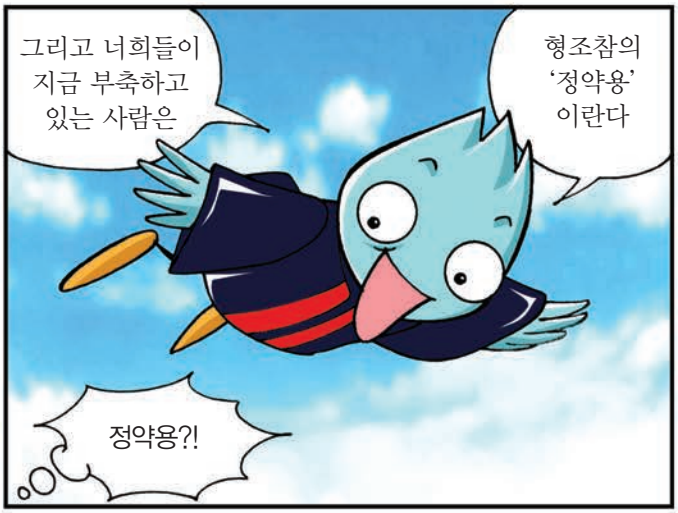

아앗!
퍽
크억!!


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이쿠.
아니.. 전혀
안 괜찮아.
아야


병원에..
아니 의원에
모셔다
드릴께요!
쿨럭. 쿨럭..
의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어서 문서
창고에 가봐야
되는데..


제가 부축해
드릴께요.
앞을 잘
보고 다녀
야지.


따라와!
내가 문서
창고로 안
내해 줄께.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부축하고
있는 사람은
형조참의
'정약용'
이란다
정약용?!


정약용이면
조선후기의
대실학자잖아!!
수원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고안한
천재!!!


진짜 위인을
만나게 되다니
영광이야.
윽.. 나리눈이
너무 초롱거
린다.. 하긴
위인이니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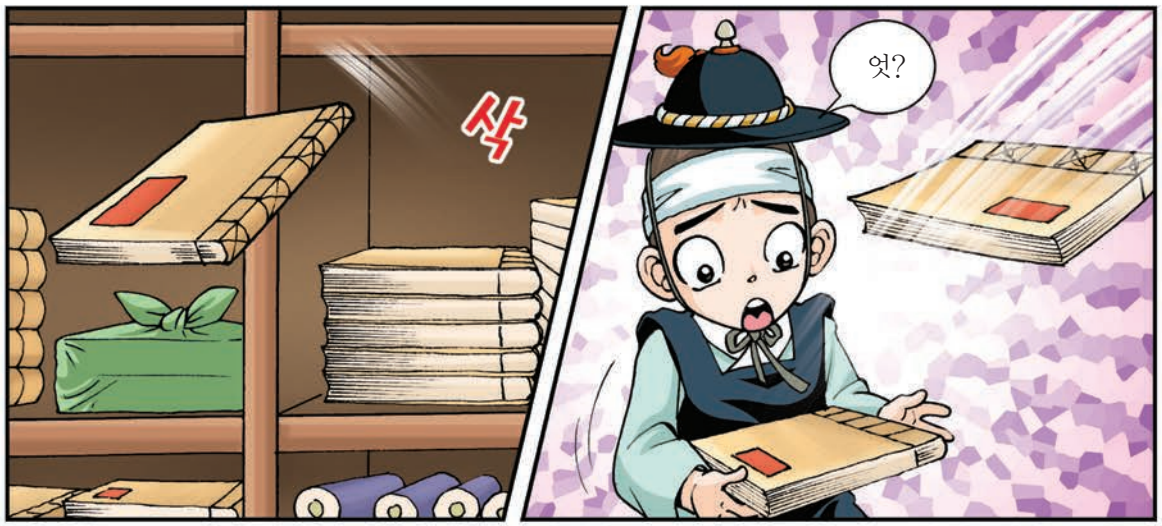

자! 자!
걸을 수 있으니
이제 됐다.
고맙다..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찾아드릴께요
오호.
너희가..
무엇을
보실 예정이
신데요?


지난 수십 년간 일어났던 모든 형사사건의 재판 자료를 찾아볼까 하는데..
예?
모든 형사 사건이요?
오늘 전하께서 내게 특별히 명을 내리셨단다.
지난 재판을 모두 둘러보고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도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다시 조사 해보라고 하셨지.
보셔야 할 자료가 어마어마할텐데 그걸 어떻게 다 보시려구요.
많이 힘들긴 하겠지. 하지만....
혹시라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벌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안되잖니
우선은 '함봉련'이라는 자에 관한 재판자료들을 찾아다오.


함봉련이요?
그래..
뜨아.. 어려운 한자들이 가득!
우리가 찾는건 불가능해!


함봉련의 사건은 특히 유심히 봐달라고 전하께서 내게 당부하시더군.
대체 어떤 사건인지 나도 궁금하구나.
오.. 나도 궁금하네?


삭
엇?


내가 함봉련의 사건의 검안들을 찾아줄게.
아! '검안'은 수사 보고서를 말해.
으악! 무너지겠어 바로미
우와~
삭
삭
삭


조선시대 땐 사건이 터지면 초검, 복검 두 번의 조사를 각기 다른 사람에게 시켰단다.
초검, 복검의 내용이 일치해야 사건이 완료되었지.
탁
탁
헤에~ 조선의 법도 나름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구나.
의외야.
음? 내게 뭐라고 했니?
아! 검안들을 다 찾았다고요.
오.. 복잡한 서류 더미 속에서
잘도 찾아냈구나. 수고들 했다.
함봉련.. 양반 김태명 소유의 노비. 나졸을 구타하여 12일만에 죽게 하였다.
주인 김태명을 비롯한 동네 백성들이 모두 함봉련이 나졸을 때려 죽였다고 증언...


살인사건?
초검, 복검, 그리고 이후 몇 번이나 다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모두 함봉련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이 났구나.
결국 함봉련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함봉련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미심쩍은 면도 있어서
12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못하고 함봉련은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12년이나!!!
증인들도 있는데 어째서 미심쩍다는 걸까요?
글쎄다. 사건을 얼핏보아선 나도 짐작할 수 없구나.
자. 그럼 자세한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
우와.. 12년 전의 사건기록까지 지금껏 보관되어 있다니....


12년 전.
야! 이놈아!!
거기 서라! 얼른 서!!
김태명
이 도둑놈!!
엄연히 공무집행 중인 나졸에게 도둑이라니요.
말조심 하시지요. 어르신.
나졸
오늘날의 사법경찰관 관할지역을 순찰하고 죄인을 체포하는 일을 한다.
주인없는 집에 들어와 송아지를 훔쳐갔는데
네 놈이 도둑이 아니고 뭐냐? 얼른 내놓거라!!
그러게. 세금을 제때 제때 내시지 그러셨어요? 사또께서
세금이 너무 밀렸으니 세간살이라도 대신 들고오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아무리 그래도 송아지를 데려가?!
아니~ 왜 그러세요? 어르신!
왜 이러는지 몰라서 물어?!!
차라리 기둥뿌리를 뽑아가지 그랬냐!!
쿵
아이쿠!
저.. 저양반이 저러시다
나졸 잡겠네.
이 나쁜놈!!
고얀놈!!
퍽!
아이구. 어르신 그만하세요!
놔!!


이것 놔라!! 저 도둑놈이 도망가잖느냐!
쿨럭!


어라?
주인마님, 무슨 일이세요?


오냐! 잘왔다. 봉련아. 저놈이 우리집 송아지를 훔쳐가려 했다!
넹?
비틀


혼내줘라!!


나라의 녹을 먹는 나졸이 도둑질을요?
쿨럭
쿨럭


소도둑에
세금도둑이구먼!
헉..헉..


에라잇!
어딜 도망가!!
탁
흐억!


나졸은 그 길로 집에 돌아가 피를 토하고
12일 후에 죽었다.
학
학
쿨럭!!


그 자리에 있었던 김태명과 동네주민들은
함봉련이 나졸을 구타하여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


나졸이 죽기
직전에 그의
부인에게...
'나를 죽인 것은
김태명이니
복수하라!' 라는
말을 남겼다.


그럼 범인은 노비 함봉련이 아니라,
주인양반인 김태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실제로 나졸의 부인이 고소한 사람은 김태명이었어.
하지만 수사관들은 김태명의 증언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 함봉련을 범인으로 몰고 사형선고를 내렸지.


유력한 용의자의 말을 증거로 삼다니...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텐데


동네 주민들의 증언도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
김태명은 이름 높은 양반이고 함봉련은 힘없는 노비이니 김태명의 편을 들었을 수도 있어!


거짓증언?! 정의를 지켜야 할 신성한 재판장에서.
그게 무슨 짓이예요?!! 으아~ 화딱지나!!!
촤악


아이구! 똘아 엉망이 됐잖아.
아.. 미안해.
하긴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이 제 구실을 못했으니 화날만 하지... 얼른 줍자꾸나.
윽!!
가슴이...
나리! 왜 그러세요?
가슴이 아프세요?
좀 전에 너랑 부딪친 곳이
움직이니까 꽤 아픈걸?
죄송해요. 제가 남들보다 머리가 많이 단단한 편이거든요.
모르긴해도 가슴팍에
네 머리통만한 멍이 생겼을 듯 하구나.
주, 죽을죄를 지었습니다요.
멍!!


그렇지! 그래! 검시관이 그린 시형도를 찾아봐!!
시체의 몸에 있을 멍을 확인해 봐야겠어.
시형도는 시신의 모습을 기록한 그림이야.
시형도?!
삭
삭
시체그림?


조선에선 살인사건이 나면 검시관이 시신의 모습을 76곳으로 나누어 상세히 그림으로 옮겼지.
범행도구가 있으면 그것도 그렸고 철저하게 그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어.


사진기가 없는 시대니깐 그림으로 증거를 만들었구나.
우와.. 놀랍다.


찾았다!!


코와 입이 피로 막혀있고.


왼쪽 가슴편에 3촌7푼 크기(12.2cm)의 딱딱하고
검붉은 멍이 있음.
헛어! 기가 차군.
맞아 죽었다는 시체의 몸에 멍이 고작 한 개만 남아 있단 말인가?!!
게다가 함봉련은 나졸의 등을 떠밀었잖아요!
함봉련 때문에 죽은 거라면 멍이 등에도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멍은 김태명의 무릎이 나졸의 가슴을 찍었을 때 생긴 것이야.
!!
김태명 때문에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아 나졸이 죽은 것이 틀림없어!
함봉련은 무죄! 진짜 살인범은 김태명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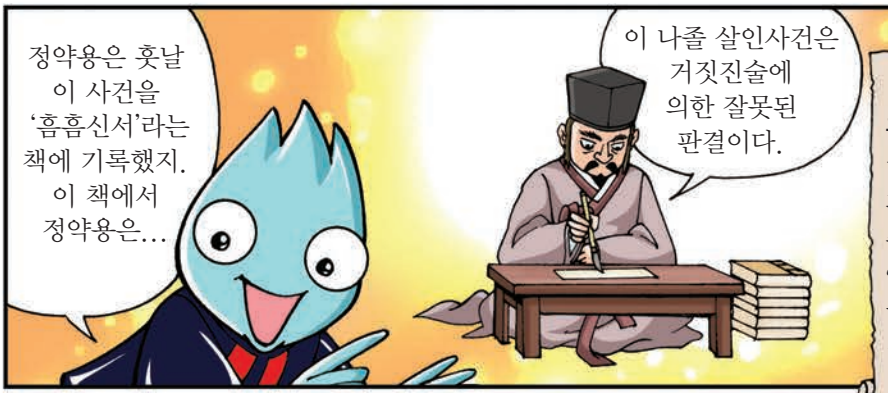

당장 전하께 보고드려야 겠다.
얘들아. 미안하지만 뒷정리 좀 부탁한다.
네.
사건 기록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하면 밝혀질 일이었는데....
12년간이나 진실이 어둠속에 묻혀있었잖아.
조선의 수사방법도 대충대충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함봉련이 조선의 제일 약하고 천한 신분인
노비였기 때문이야.
수사관들은 김태명의 죄를 알고도 눈감아 주었거나..
한 노비의 억울함에 대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전 억울해요!!
시끄럿!











흠흠신서(欽欽新書)

형사사건을 다루는 관리들에게 유의할점을 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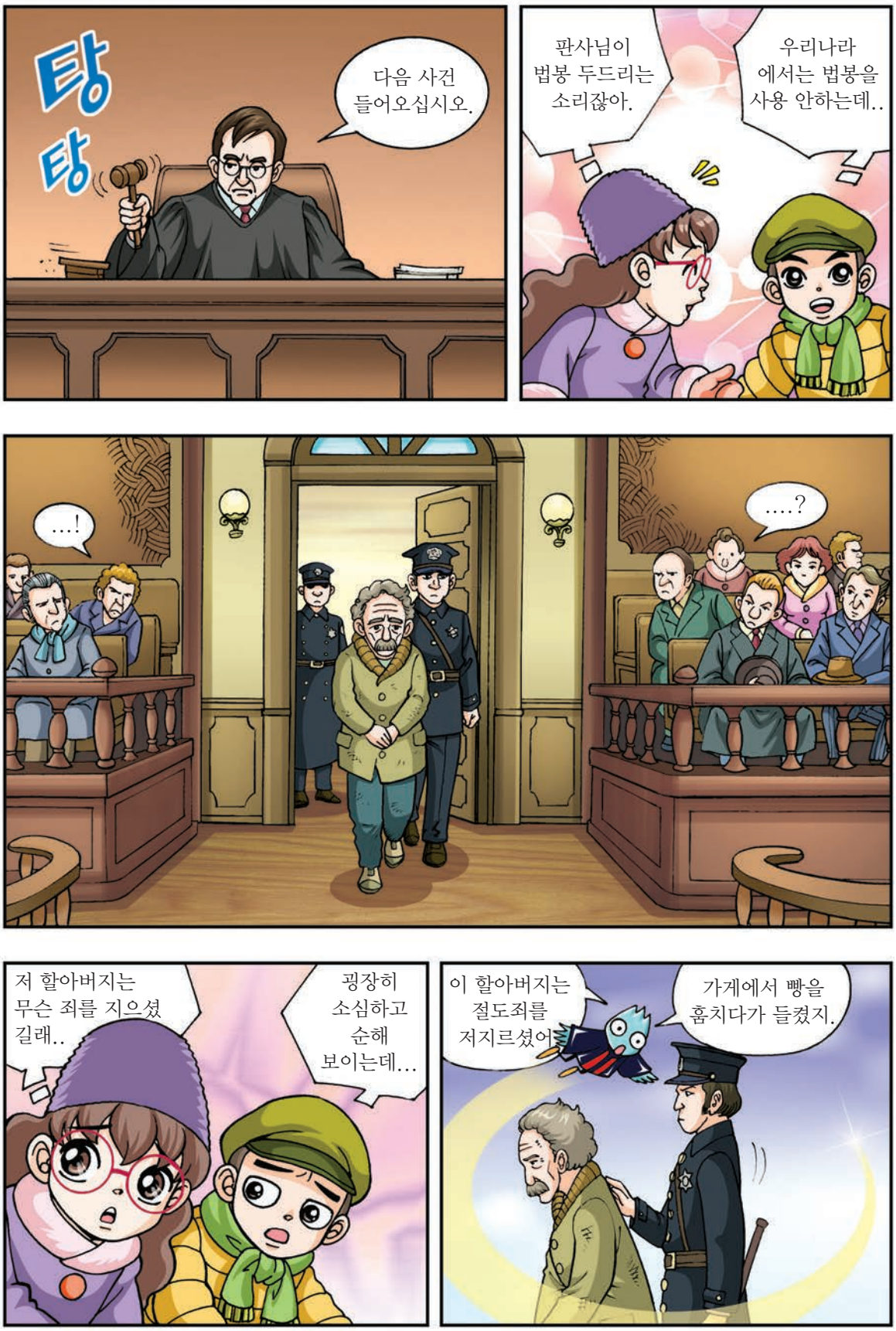
'흠흠'은 형사재판을 할 때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의미다.


살인사건을 판결할 때는 세가지 근거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첫째. 유족의 진술.
워..원수를... 꼴까닥!
둘째. 시체조사 증거
셋째. 공평한 증언이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흠흠신서는 형사 재판을 위한 지침서가 되었지.
정약용은 위대한 실학자일 뿐만 아니라 명재판관이기도 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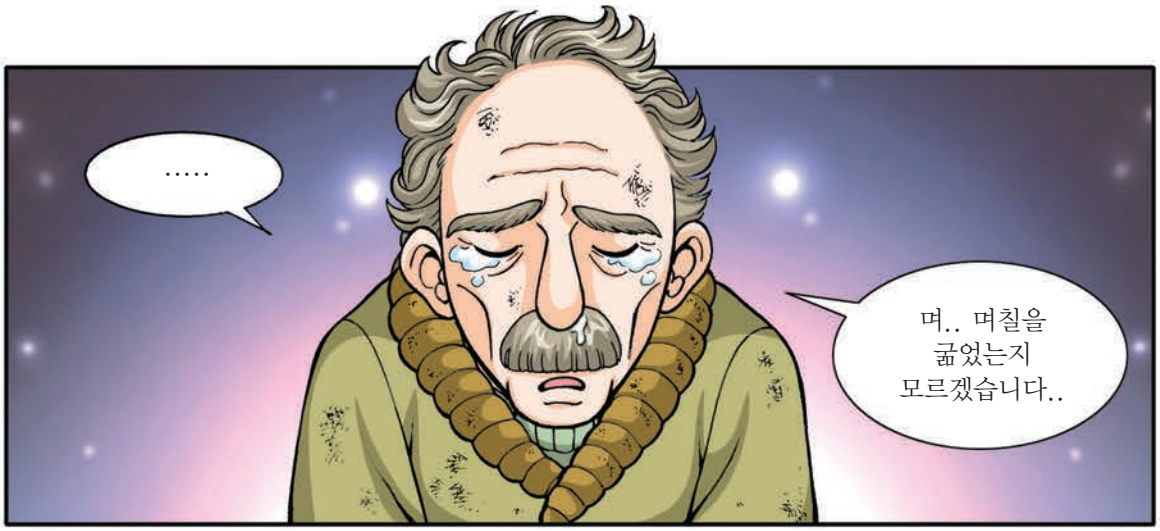

어때? 조선시대의 명재판을 봤으니 이제 바다건너 다른 곳의
명재판을 구경하면..!
바다건너?
어디? 제주도?
미국!! 20세기 초반의 미국 뉴욕이야.
뉴욕?!
엇? 웬 모자에 오리털..?
미국이라며 알래스카라도 가는거야?
당시 뉴욕은 겨울이었거든.
와! 신난다.
바로미 파이팅!!


뉴욕
?
헉! 미.. 미국 사람들..
하하. 나이스 투 미츄
주눅 들 것 없어..
내가 통역 마법을 걸어 뒀으니깐..
그런데 우리가 늦게 왔나봐.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걱정마. 너희들이 참관해야 할 재판은 다음 재판이야.


이 곳은 즉결 재판소거든.
즉결재판소는 또 뭐야?
재판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 그런데 교통위반 같은 가벼운 범죄에까지 형사소송을 걸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낭비가 심하겠니.
그래서 가벼운 범죄들은 엄격한 형사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즉결심판판사에게 가서
바로 재판을 받게 해 낭비를 줄이도록 하고 있어.
매우 합리적이네.
ET
으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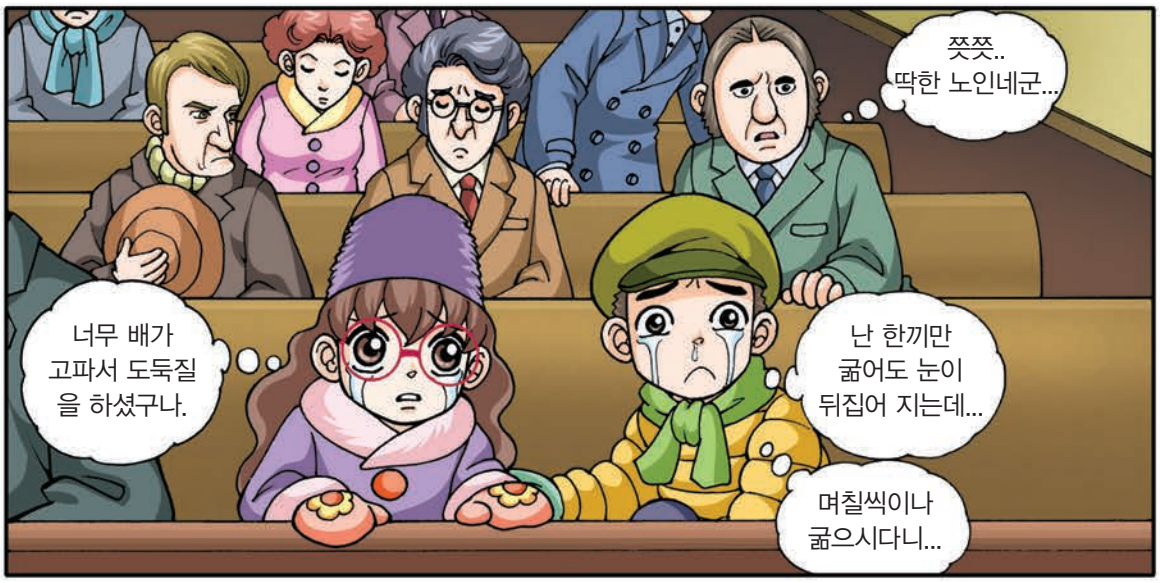

탕
탕
다음 사건 들어오십시오.
판사님이 법봉 두드리는 소리잖아.
우리나라에서는 법봉을 사용 안하는데..
…!
….?
저 할아버지는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굉장히 소심하고 순해 보이는데…
이 할아버지는 절도죄를 저지르셨어.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들켰지.


저런…
도둑질을 하셨구나.
피고인은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입니다.
왜 빵을 훔쳤나요?
……
?
?
…?
?


.....
며..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머니엔 동전
한닢 없었지요.
텅빈 배를 움켜쥐고
빵집을 지나는데.
향긋한
빵냄새가 저를
사로잡더군요.


그 순간 눈이
뒤집어져서
저도 모르게
그만....


쯧쯧..
딱한 노인네군...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
을 하셨구나.
난 한끼만
굶어도 눈이
뒤집어 지는데...
며칠씩이나
굶으시다니...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피고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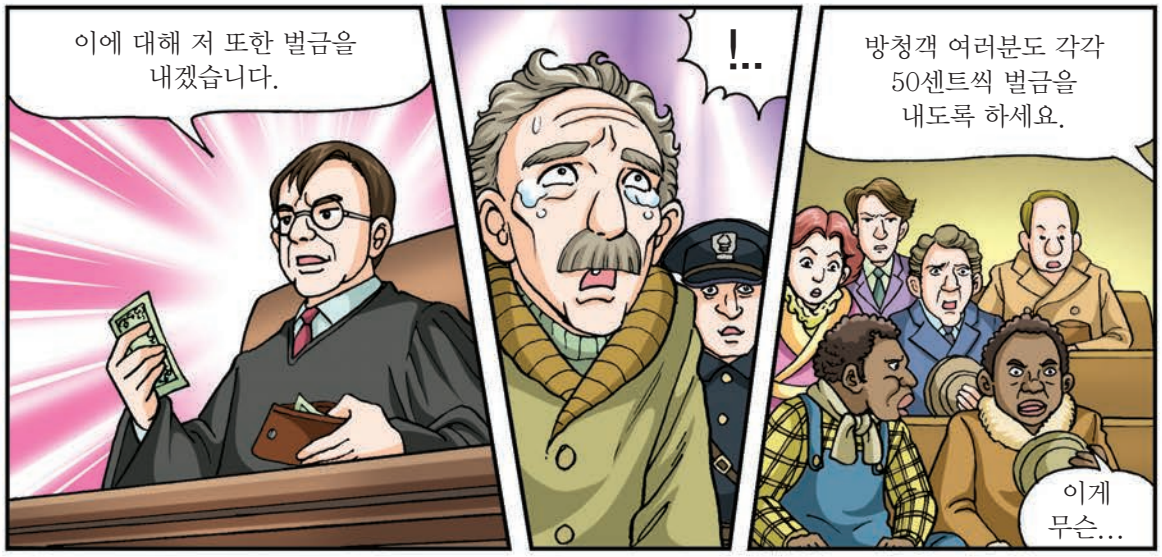

시..십달러나...


아니, 판결이 너무 심한거 아냐?
빵 한 개도 사지 못해 여기까지 온 노인에게 벌금형까지 선고하다니...


너무 매정해.
응! 너무해!!


판사님!!
벌떡


법은 꼭 지켜야할 중요한 약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하신거 아녜요?
사람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요?!!
정숙하시오!
아직 판결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
네.. 넹.
이 바보! 아직 법봉도 안 두드렸잖아!
그.. 그렇네.
이 노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였는데..
미, 미안 나리야.
같은 도시에 사는 우리 중 그 누구도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해 저 또한 벌금을 내겠습니다.
!..
방청객 여러분도 각각 50센트씩 벌금을 내도록 하세요.
이게 무슨...


이 돈은 노인을 대신하여 내는 벌금입니다.
이 노인이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지요.


아아...
그렇구나. 맞아.
나도 기꺼이 내야지.
헉!! 500원
500원이 미국돈으로 얼마가 되더라?


마침 잘 왔다. 바로미. 이것 좀 미국 돈으로 바꿔줘.
됐네. 마음만으로 충분해. 저길 봐.
짤랑
짤랑
짤랑
짤랑
벌금이지만 결국 저 할아버지를 돕는거잖아.
할아버지의 자존심까지도 지켜주고 정말 훌륭해.
판사님! 모두 57달러 50센트가 모였습니다.
벌금을 뺀 47달러 50센트는 노인에게 주세요.
받으십시오.
..판사님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건!
들어오십시오.
바로미야!
미국에 온 김에
구경 좀 하고
가야지.


이야! 정말 재미있었어.
응! 재판만 보고 온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재판에도 정이 있었구나
그런 걸 '정상참작' 이라고 하지.
와... 어려운 단어인데 알고 있었구나.
전에 바로미가 설명해 줬잖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을 줄여주는 「정상참작」이 있다고...
크하~ 나리는 기억력도 참 좋구나.
난 다 까먹었는데
궁부가 과자냐?
까먹지마!!
정상참작은 다른 말로
"작량감경" (酌量減輕)이라고도 한다.


알았어. 이번엔 잊지않고 꼭 기억해둘게.
정말?
그럼 당장 다시 말해봐. 두 개 다!
에엥? 지.. 지금?
정상참치..
따닥
따닥
... 작살가격?
지금 횟집 왔냐?!!
번쩍
콰르릉
으악! 생각났어. 정상참작! 작량감경!
좀 전의 그 재판은 참 인상적이었어. 법에 따라 재판의 절차도 지켰고,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도 배려한 재치있는 판결이었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 살았다. 바로미 성질내니까. 무섭네...


그 재판을 한 판사의 이름은 피오렐로 라과디아. 명재판관으로 이름을 날리고 훗날
뉴욕시장을 3번이나 연임한 유명한 사람이야.


뉴욕시민들은 라과디아 판사를 존경해서 공항에 그의 이름을 붙여
라과디아 공항이라며 그를 기리고 있지.
아~함
길이길이 존경받고 있구나.


재판은 한 사람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까지 크게 영향을 주는것 같아.
오우~굿! 그래서 더 신중하고 올바르게 진행되야 하지.


졸~려.
바로미 덕분에 오늘 너무 즐거웠어.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어. 고마워.


그런데..
너무 피곤하다.
벌러덩
나도야.
잠깐 쉬었다
집에 가자.
어라라?
얘들아?
밖에서 자면
감기걸려!


쿨~~
드르렁 퓨퓨~


에구! 피곤도
하겠지.
어쩔 수 없군.
한번 더 서비스
를 해야지.
파라다이아


각자
집으로!!



제6화 심화학습

법에도 정이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

지난달 초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A양(16)에게 서울가정법원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은 쭈뼛쭈뼛 일어나자 김 부장판사가 다시 말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 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은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라며 입을 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내 말을 크게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 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에 있던 A양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 · 실무관 · 법정경위의 눈시울도 빨개졌습니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 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不)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뿐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A양은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A양은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학교에서 겉돌았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눈시울이 붉어진 김 부장판사는 눈물범벅이 된 A양을 법대(法臺)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조선일보, 2010. 5. 17.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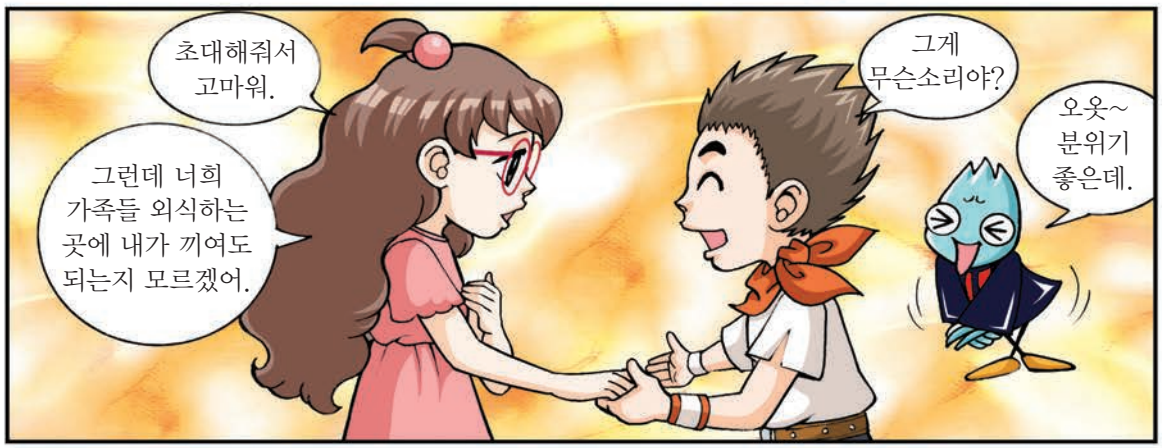


제7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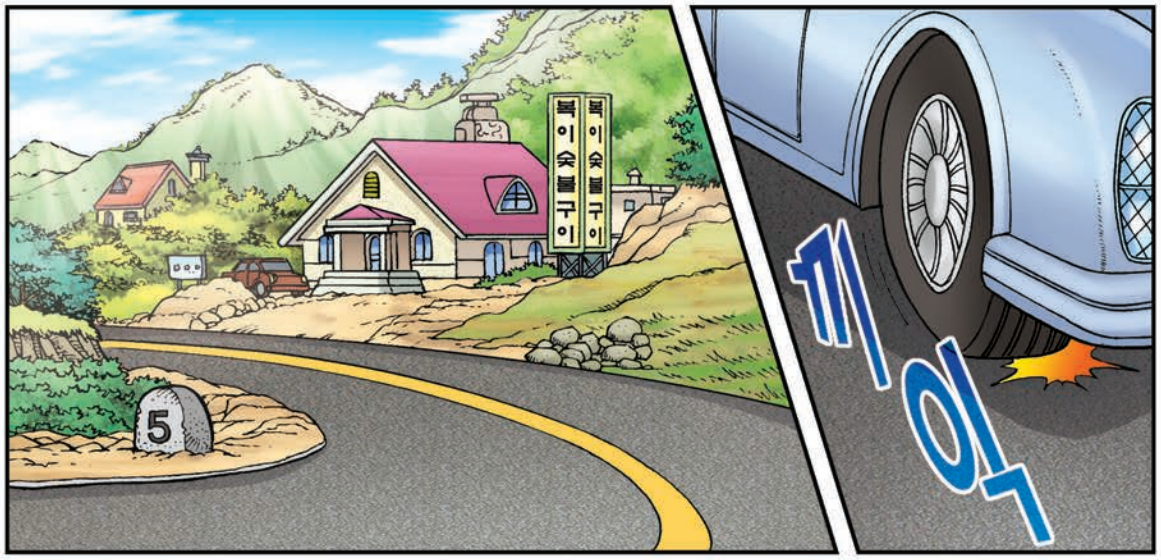
친구들에게 무슨 사건이?

❶ 똘이가 숯불구이집에서 화상을 입었어요.






넌 우리 부모님도 인정한 내 여... 여... ... ... 잖아.
여자 친구라고?
어우야~ 네가 말하면 어떡해!! 부끄럽잖아.
그래.. 나도 네가 좀 부끄럽긴 하다.
오늘 우리가 갈 음식점은 이 근방에서 제일 유명한 숯불구이집이야.
우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에도 한번 갔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하늘로 승천했다가 나리 널 보려구 겨우 지상으로 돌아왔다니깐.
어머 정말?
으으으으~ 못 참겠다.
나 요정계로 잠시 돌아갈께.
닭살이 돋아서 때타월로 좀 밀어야 살겠어.
그래도 고기 먹고 가.
난 채식주의자라 과일만 먹어!
나중에 보자~!
똘아. 나리야.
이제 출발하자!!
넹~


5
끼이익


웅성
웅성
와글
와글


헉!
사람이
왜 이리 많지?


며칠 전에 텔레비젼에서 맛집으로 소개되어
갑자기 손님이 늘어났다는구나.
대기실
대기실에서 30분만 기다리면 자리가 날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예약하고 올걸 그랬어요.


이집 대박났군요.
끄응~
도착하면 바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게다가 가게 가득히 퍼져있는
맛나는 고기냄새 완전 생고문이야.


심심하면 메뉴판이라도 보고 있어.
네~


나리야. 뭐 먹고 싶은 것 있니?
글쎄...
차림표
우리 아들이지만 참 대견하지요?
자기 여자친구 챙기는 것 좀 봐요.
내가 팔불출 부모는 아니지만 우리 아들 참 잘 자란 것 같아.
저번에 사기범 고소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의젓하던지..
잘 생겼지, 성격 좋지, 운동 잘하지, 공부는... 공부는 좀 모자라지만.
우리 아들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진짜 팔불출 부모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팔불출 부모맞네...
좋아! 정했다!!


등심 먹고나서 배가 좀 불러오면 불고기 뚝배기 먹고 숨 좀 막히면 냉면으로 마무리 해야지.
4사람이니깐 고기는 8인분 시키는게 적당하겠지?
너 정말 그거 다 먹을 수 있겠어?
그럼!
고기 왕창 먹으려고 특별히 점심도 안 먹었단 말야.
쉬레레레
어머. 정말? 진짜 배고프겠다.
사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돌아가실 지경이야...
꼬르르르륵
고기냄새 때문에 더 괴로워...
꼬르륵
더 이상 못참겠어. 따라와 봐.
벙
덕
어딜? 곧 우리 차례가 올텐데..
가게 안쪽에 서비스로 먹을 수 있게 놔둔 아이스크림통이 있어.
그걸로라도 위장을 위로 해야겠어.


우리 아들이 장차 얼마나 큰 인물이 되려고
저렇게 먹는 욕심이 많을까요?
팔불출 부모 맞다니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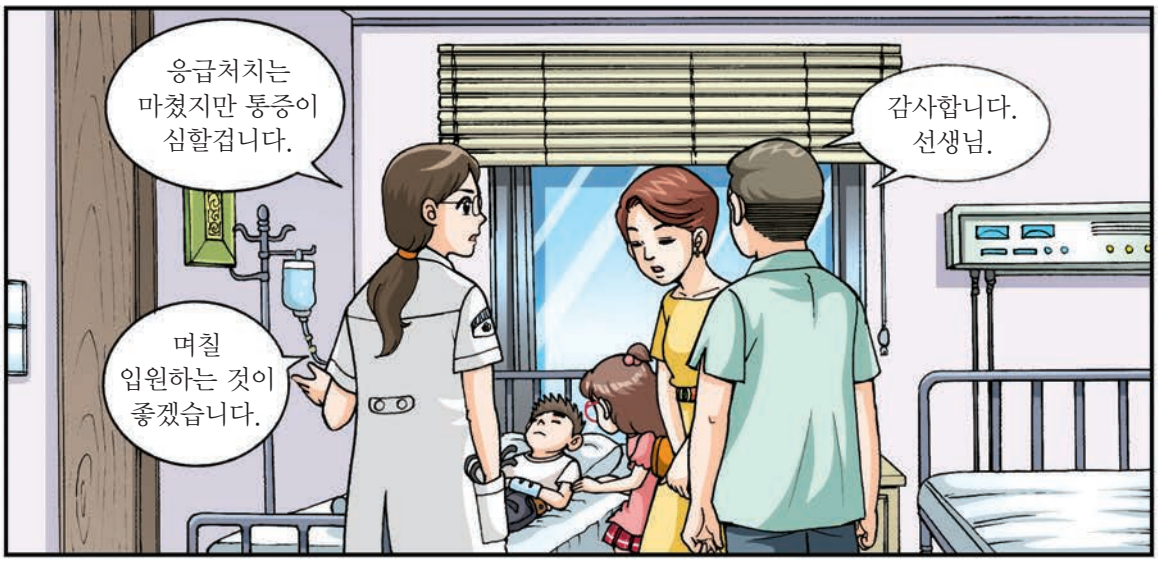

똘아. 천천히 가. 사람들이랑 부딪치겠어.
걱정마. 내 순발력을 몰라서 그래?
네 –.
7번 테이블 고기 추가!
상추 좀 더주세요!!
불판 좀 바꿔주세요!


한걱정 손님!!
어?


한걱정 손님!! 테이블 마련됐습니다.
우리 차례가 됐나봐! 돌아가자, 나리야.


어멋?!
탁
앗!
엄마야!!
텅
헉!
저런!!
또. 똘아.!!
으아아앗 뜨거!!
?


여보! 똘이 비명같아요?!
?!
똘아...?!
아빠.....
구급차를 불러야겠소!
삐/삐
삐/삐
삐/삐
AMBULANCE
2도 화상입니다.


응급처치는 마쳤지만 통증이 심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며칠 입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똘아. 많이 아프니?
괘.. 괜찮아.


결국은 고기 한점도 못 먹고.
하필이면 먹기 직전에...


언젠가 영화장면 따라하다가 계단에서 굴렀을 때도 안 울던 똘이가 울다니...
똘아. 많이 아프니?
아녜요.


애를 이지경으로 만들고도 애 잘못으로 생긴 일이라니?
음식점 주인이 괘씸해.


뜨거운 숯불을 들고 다니는 만큼
종업원들의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그 뜨거운 숯불이 똘이의 연약한
허벅지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아무래도 그냥 둬선 안되겠어.
그래요. 얼굴이라도 데였으면 더 큰일날 뻔 했잖아요.
내가 없는 사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구나.
몸은 좀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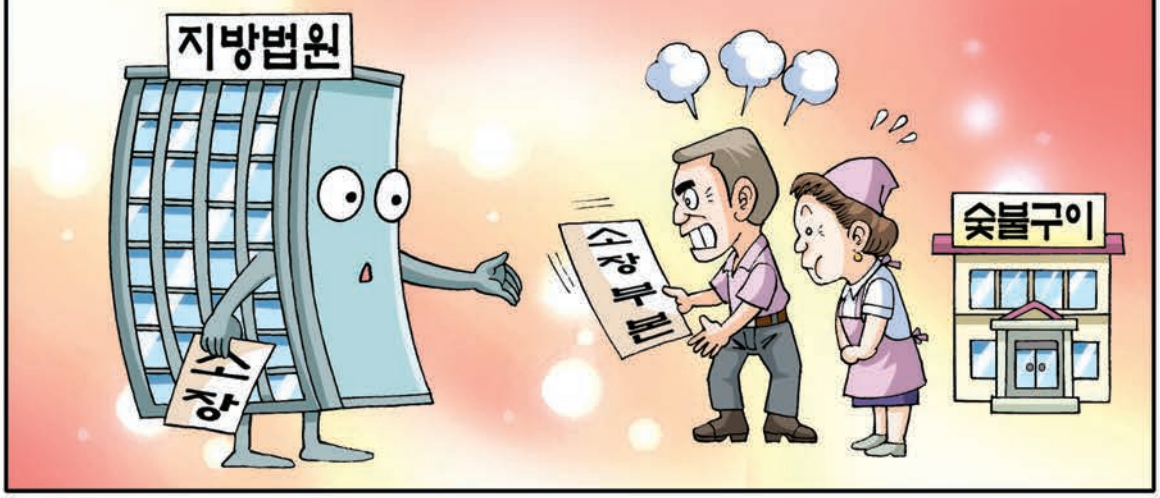

아파죽겠어.. 허벅지 부분이 벗겨져서 얼마나 아프다고..
퇴원해서도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대.
당분간 고생해야 겠다. 똘아.
나리야. 나 때문에 고기 못 먹게되어서 미안해.
지금 고기가 문제니? 내가 어제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너희 부모님이 안 보이시네.
많이 놀라셨겠다.
엄만 아빠랑 함께 변호사 만나러 가셨어. 숯불구이집 고소하실 거래.
고소?
직원의 부주의 때문에 내가 다쳤다고 재판을 할 거라고 하셨어.
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비로 2500 만원을 청구 하실 거래.
민사재판을 청구하신거구나.
그 경우는 '고소'라고 하지않아.
그럼...?


고소는 형사재판에서 쓰는 말이야.
민사재판에선 소를 제기했다고 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소송'이라고 하지.
'소송'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봤었는데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
어쨌든 똘이네 부모님은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다
숯불갈비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판을 해 달라고 청구하셨다니..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되는 구나.
당연하지. 식당아줌마의 실수로 억울하게 다쳤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글쎄.... 과연 그게
종업원 아줌마만의 실수였을까?
뭐야 그말은?
그럼 내 잘못이란 말이야?
따닥..
따닥
.....
바로미 넌 누구편이야?
흐음... 하긴...
헉! 나리까지?
민사재판절차 1)소장제출
똘이부모님은 지방법원에 숯불구이집사장과 여종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지방법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소장
소장
민사재판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2) 소장부본전달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피고' 숯불구이집주인과 여종업원에게 소장의 복사본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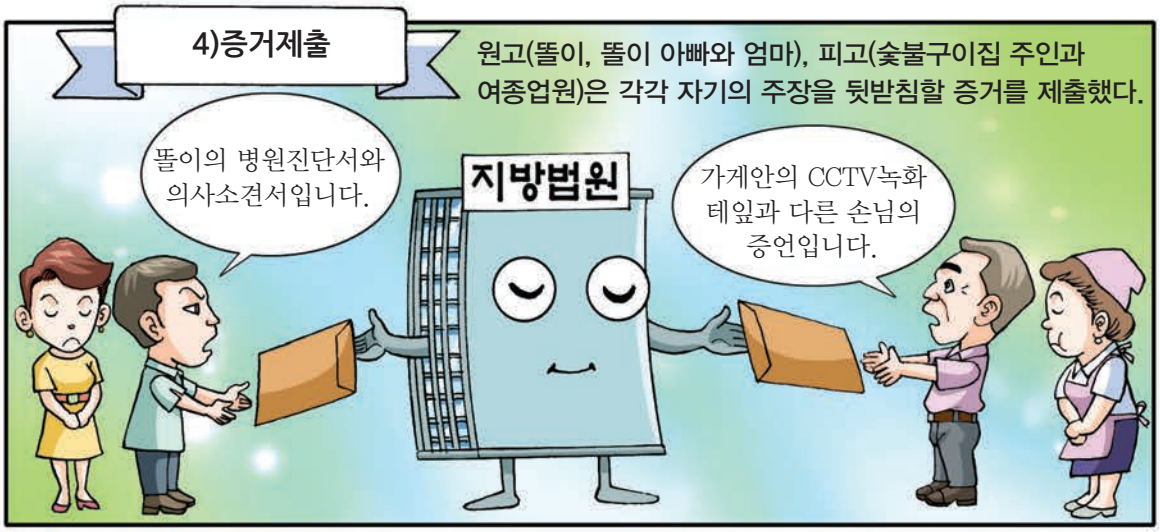
3)답변서 제출

피고 숯불구이집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쓴 답변서를 법원에 보냈다.



4)증거제출

원고(똘이, 똘이 아빠와 엄마), 피고(숯불구이집 주인과 여종업원)은 각각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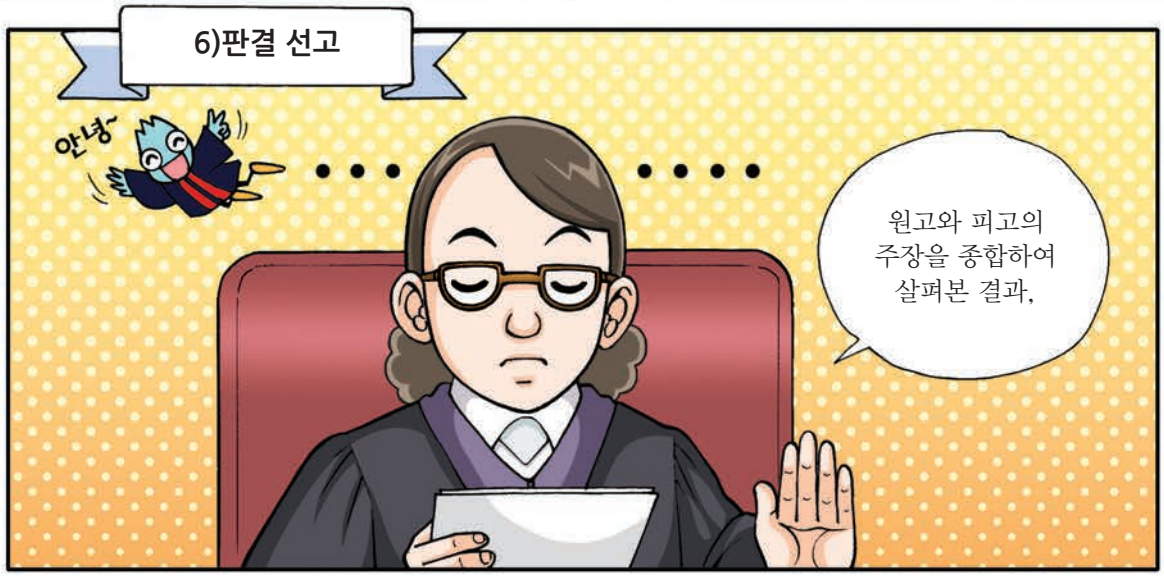
5)변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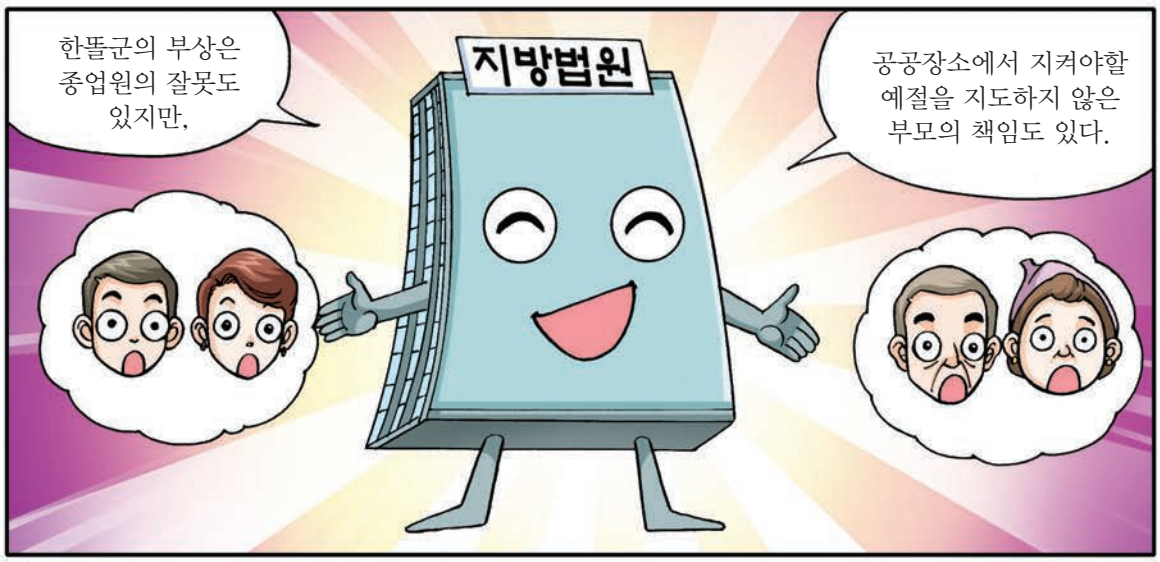

마침내 재판이 열렸고 똘이의 부모님, 숯불구이집주인, 여종업원은 판사님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
판사
변론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뜨거운 숯을 들고다니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직원 때문에
저희 아이가 다쳤으니 손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고는 똘이라는 아이가 저희 직원에게 달려들어 생긴 것입니다.
저희는 사고의 책임도 없으니 손해배상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6)판결 선고


안녕~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한똘군의 부상은 종업원의 잘못도 있지만,
지방법원
공공장소에서 지켜야할 예절을 지도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도 있다.


법원
따라서 과실비율을 양쪽 모두 50%로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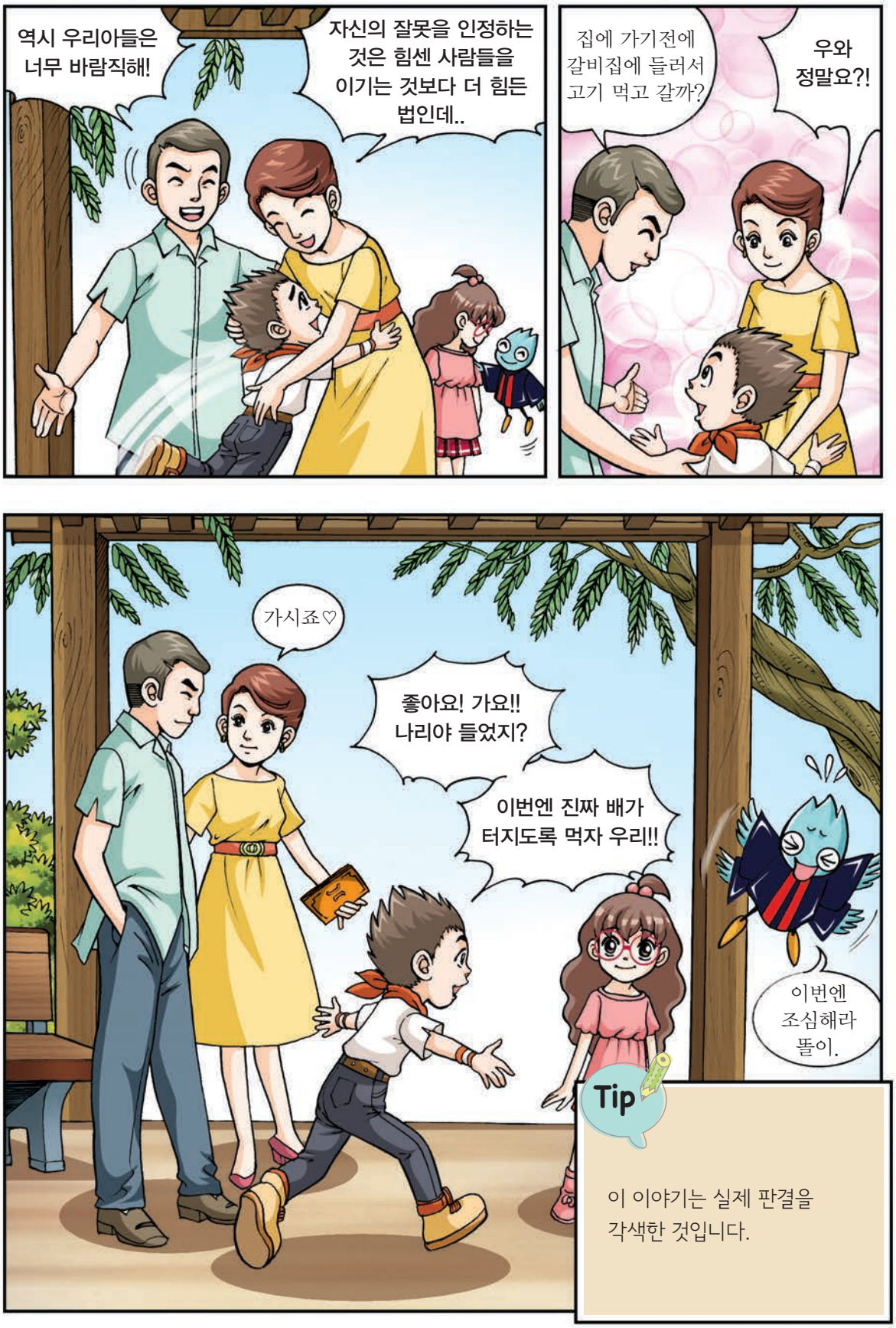

나리야.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다쳤는데 내 잘못도 있다는 거야?
법원의 판결인걸.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바로미야! 재판결과가
이상한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난 이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나도 바로미랑 같은 생각이야.
뭐라고?
나. 나리야?!
진정해.
난 네 친구이긴 하지만 무조건 네 편을 들지는 못하겠어. 사람이 붐비는 가게에서 앞도 확인하지 않고
뛰어다닌 너.. 아니 우리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
네가 몸놀림이 빨라서 잘 피해다닌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도 너 같을순 없잖아.
....
그렇구나..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배가 고파서 잠깐 어떻게 되었나봐.


똘아! 사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 문제는 언제나 조심해야겠다는 거야.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응!
굿!
똘아. 나리야 많이 기다렸지?
이제 가자.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널 단속안한 엄마, 아빠 탓이지.
죄송해요 엄마, 아빠.
공공장소에서 다른사람들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 다닌거랑
다쳐서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한거요.
하아~
앞으론 조심할게요.
재판장님 말씀을 듣고서야 우리가 팔불출 부모였구나 생각했지...
앞으론 엄격히 단속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아들은 너무 바람직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힘센 사람들을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법인데..
집에 가기전에 갈비집에 들러서 고기 먹고 갈까?
우와 정말요?!
가시죠♡
좋아요! 가요!! 나리야 들었지?
이번엔 진짜 배가 터지도록 먹자 우리!!
이번엔 조심해라 똘이.
Tip
이 이야기는 실제 판결을 각색한 것입니다.

전자소송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이러한 IT 기술을 법원의 재판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전자소송이랍니다.

전자소송이란 당사자가 소장 기타 각종 재판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받으며, 법원은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법원이나 당사자가 컴퓨터 화면에서 기록을 볼 수 있는 소송진행방식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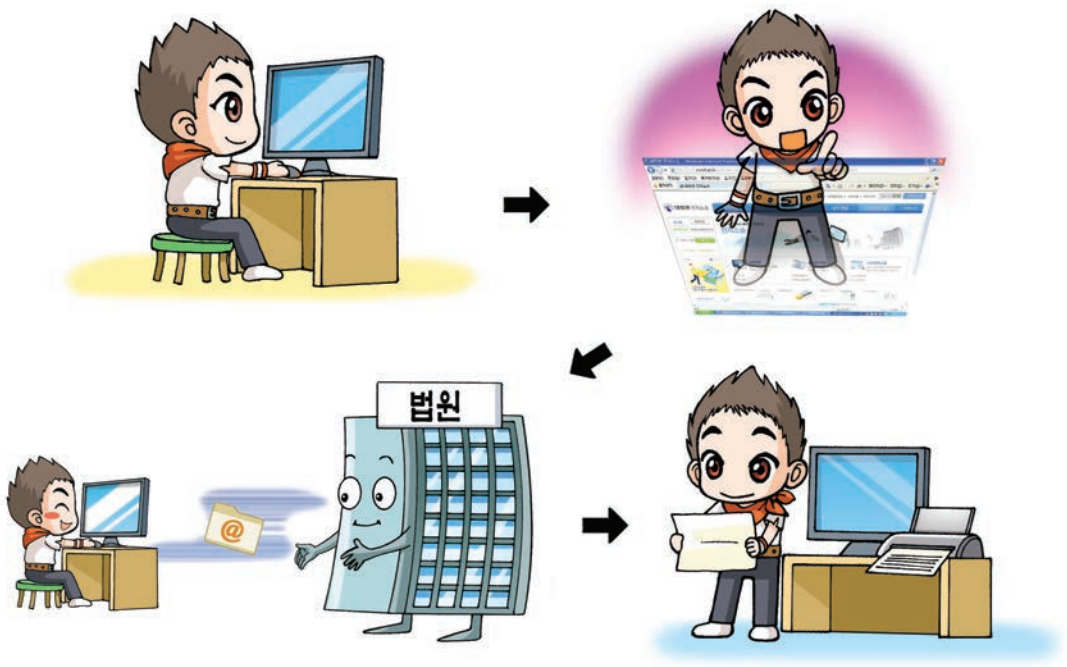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2010. 4. 26.부터 특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1. 5. 2.부터는 일반민사소송에서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하였답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 당사자, 대리인 등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를 통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장점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 빠릅니다 :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 편리합니다 :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볼 수 있습니다.
- 투명합니다 :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안전합니다 :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보안기술로 보호되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입니다 :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 ·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증거들이나 소송기록을 법정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을 통하여 판사와 당사자들이 함께 볼 수 있고, 첨단 멀티미디어 파일을 이용하여 변론을 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들을 전자소송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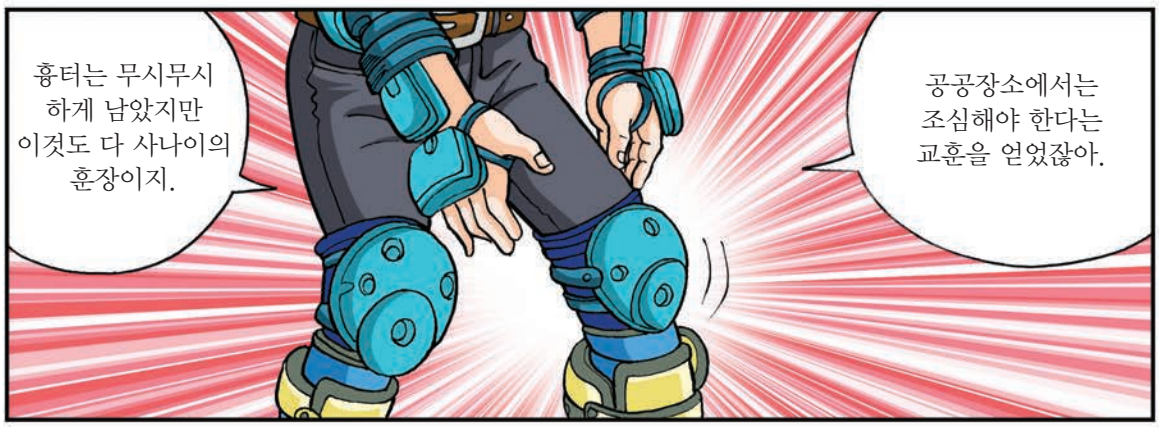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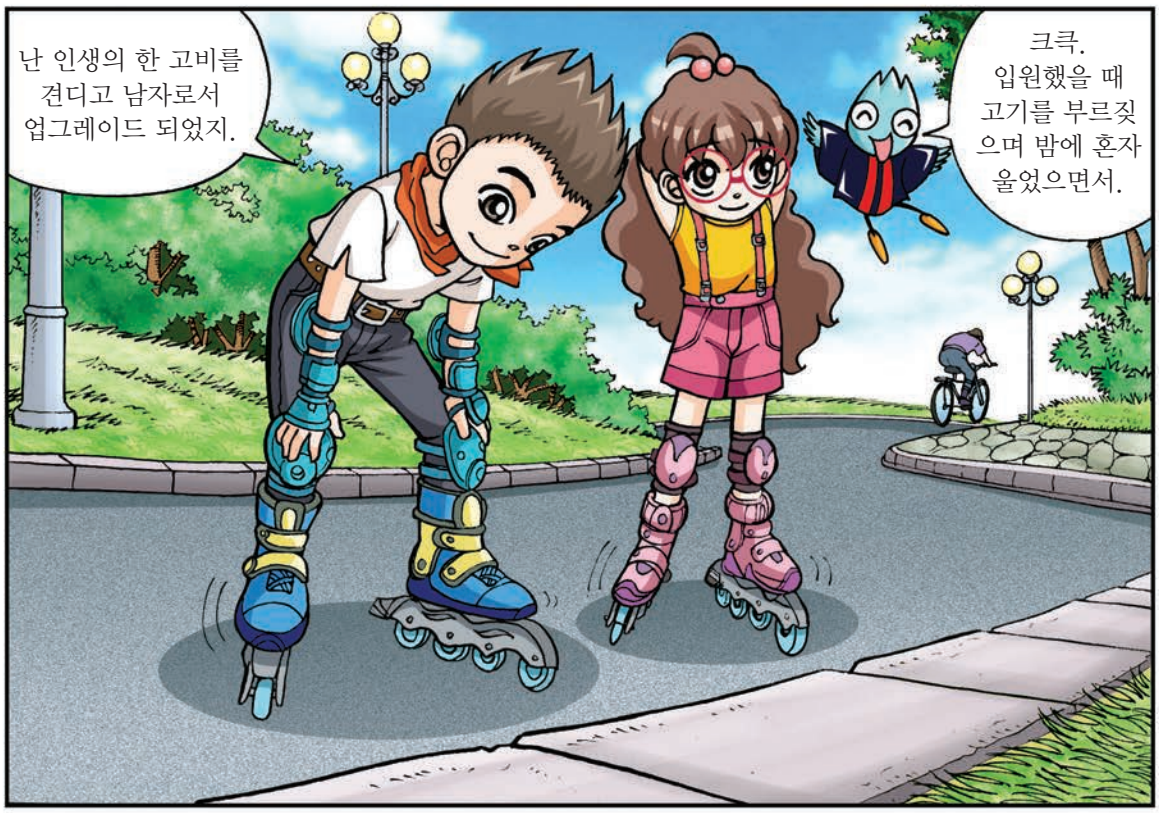
❷ 아기 때문에 나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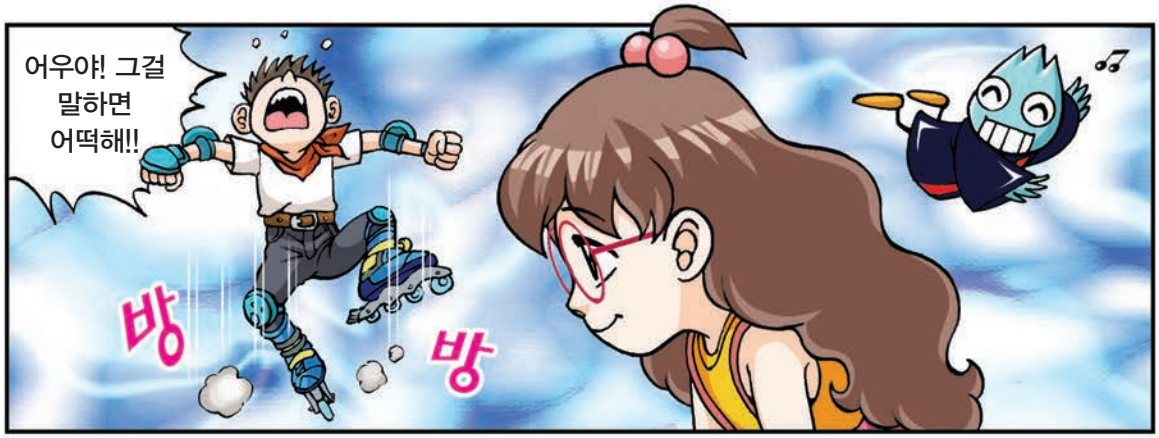







흉터는 무시무시하게 남았지만 이것도 다 사나이의 훈장이지.
공공장소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잖아.


난 인생의 한 고비를 견디고 남자로서 업그레이드 되었지.
크큭. 입원했을 때 고기를 부르짖으며 밤에 혼자 울었으면서.


어우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방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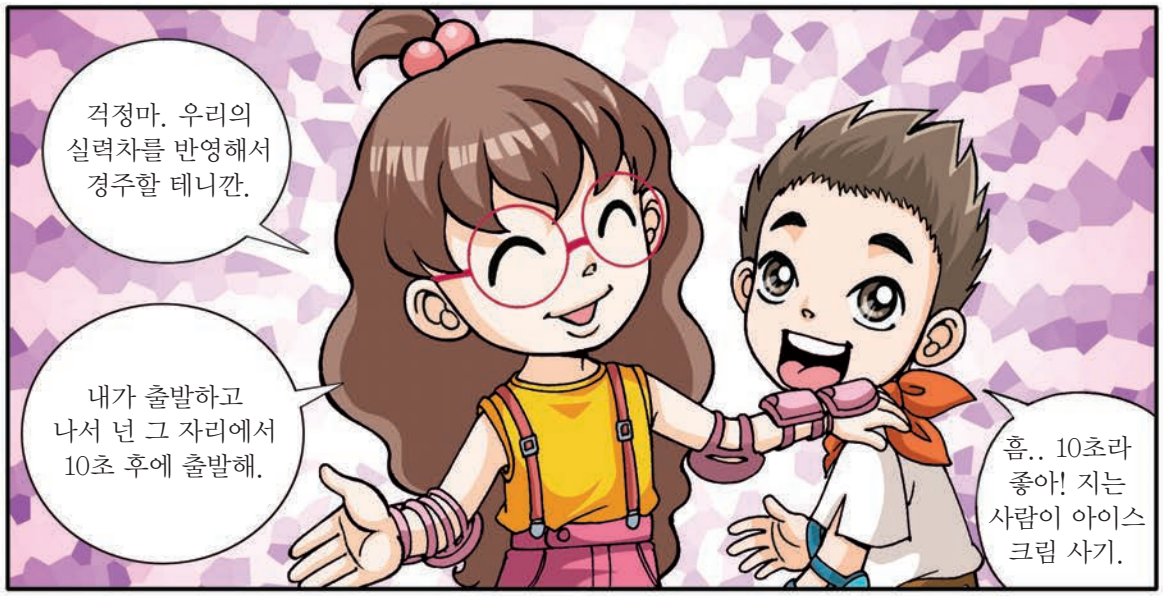

어서와
돌아
!
차르르르
공공장소에서
부주의로
생길 수 있는
사고는
조심…
와
차르르르르
르르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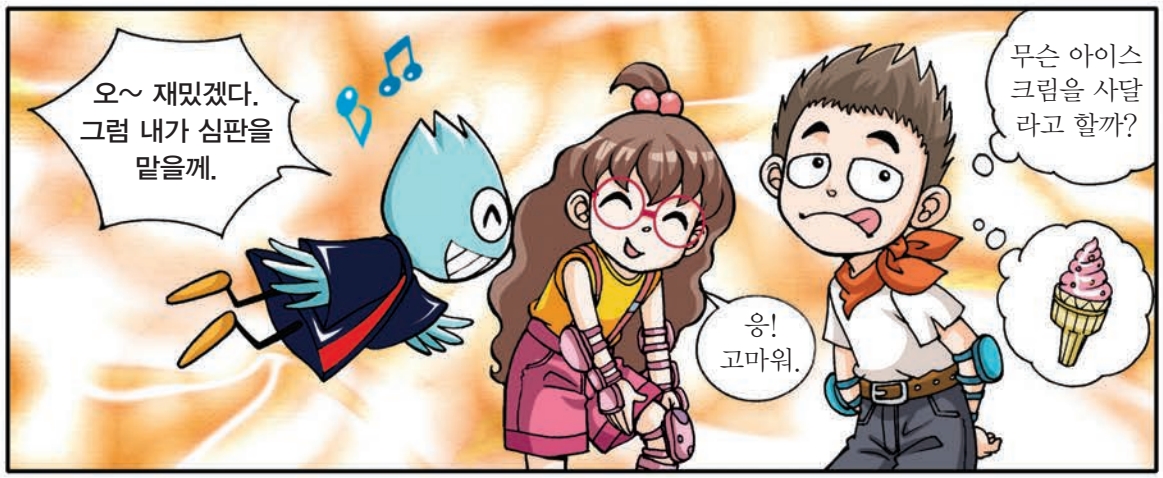

똘아! 네 실력아니까 그만해!!
위험해!
끼익
앗
얼쑤?
차락
차르르
아이구. 저 꼬맹이가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솜씨가 완전 프로인걸 허허허.
나 점프 잘하지 나리야.
이 스파이럴은?
차르르르르르


I 스핀~!
씽~
그르르르
오~ 마치 피겨하는 것 같은데.
꼬맹이 화이팅~
여 옥
좀 탄다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니?
저러다 또 사고날까 걱정이다.
똘이는 운동 신경이 좋잖아.
하지만 나리도 곧잘 타고 있는걸.
그치! 연습 많이 했거든.
오~
이것봐. 커브도 돌수있어.


나리야!
조심!!
마다
맘다
비
헉!!
나리야!!! 괜찮아?
꽛!
차락
응. 괜찮아. 살짝 중심을 잃었을 뿐인걸.
그래도 조심해야지. 너 넘어지는줄 알고 내 심장이 맹장 옆에 떨어져서 올라올 생각을 안하고 있다구.
알았어. 네 심장을 위해 앞으로 조심할게.


으아! 내 요정 생활 수천년만에
너희같은 닭살 커플은 진짜 처음이야.
에이~ 우리가 뭘~
바로미는 우리가 부럽구나?
순수한 요정의 마음에 짜증까지 치솟게 하다니. 대단해.
호호호호
우히힛~
....저것들이.
똘아. 우리 경주할까?
이 공원의 자전거도로 끝까지 달리기!
어? 나.. 나랑?
당연히 너랑 하는 거지.
에... 나리에게 미안하지만
내 상대가 못되는데... 어쩌지?
피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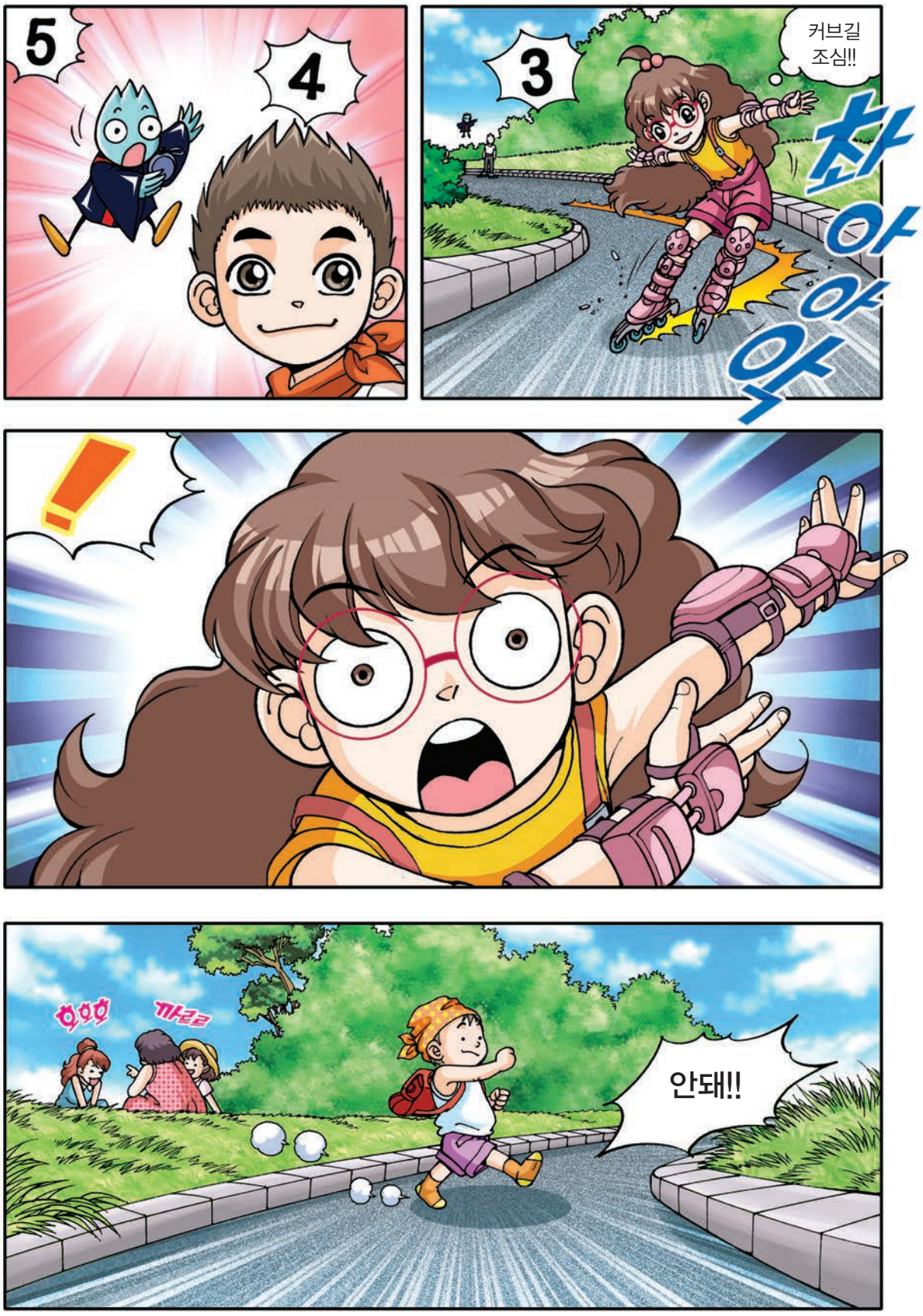

걱정마. 우리의 실력차를 반영해서 경주할 테니깐.
내가 출발하고 나서 넌 그 자리에서 10초 후에 출발해.
흠.. 10초라 좋아! 지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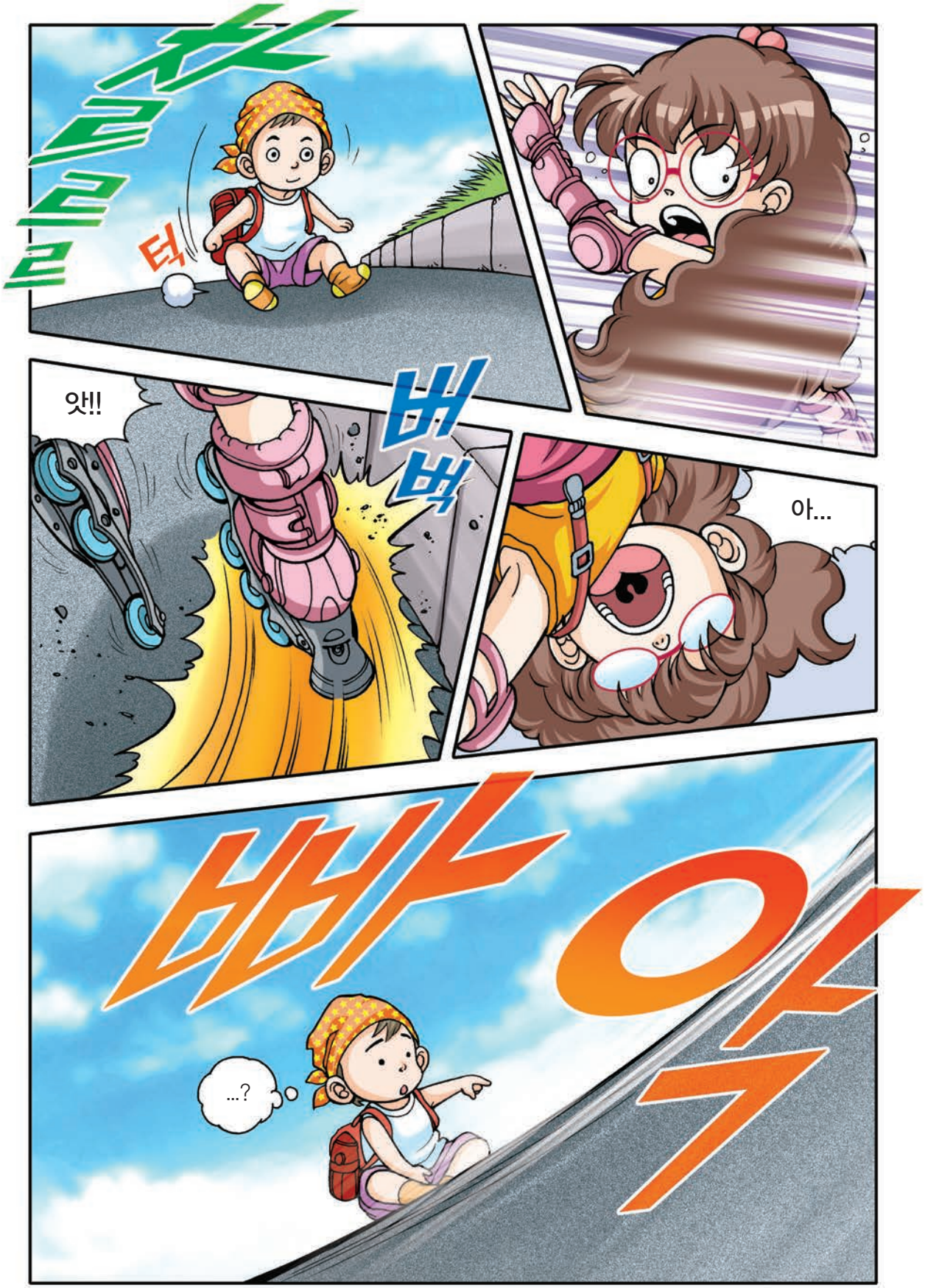

오~ 재밌겠다. 그럼 내가 심판을 맡을께.
무슨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할까?
응!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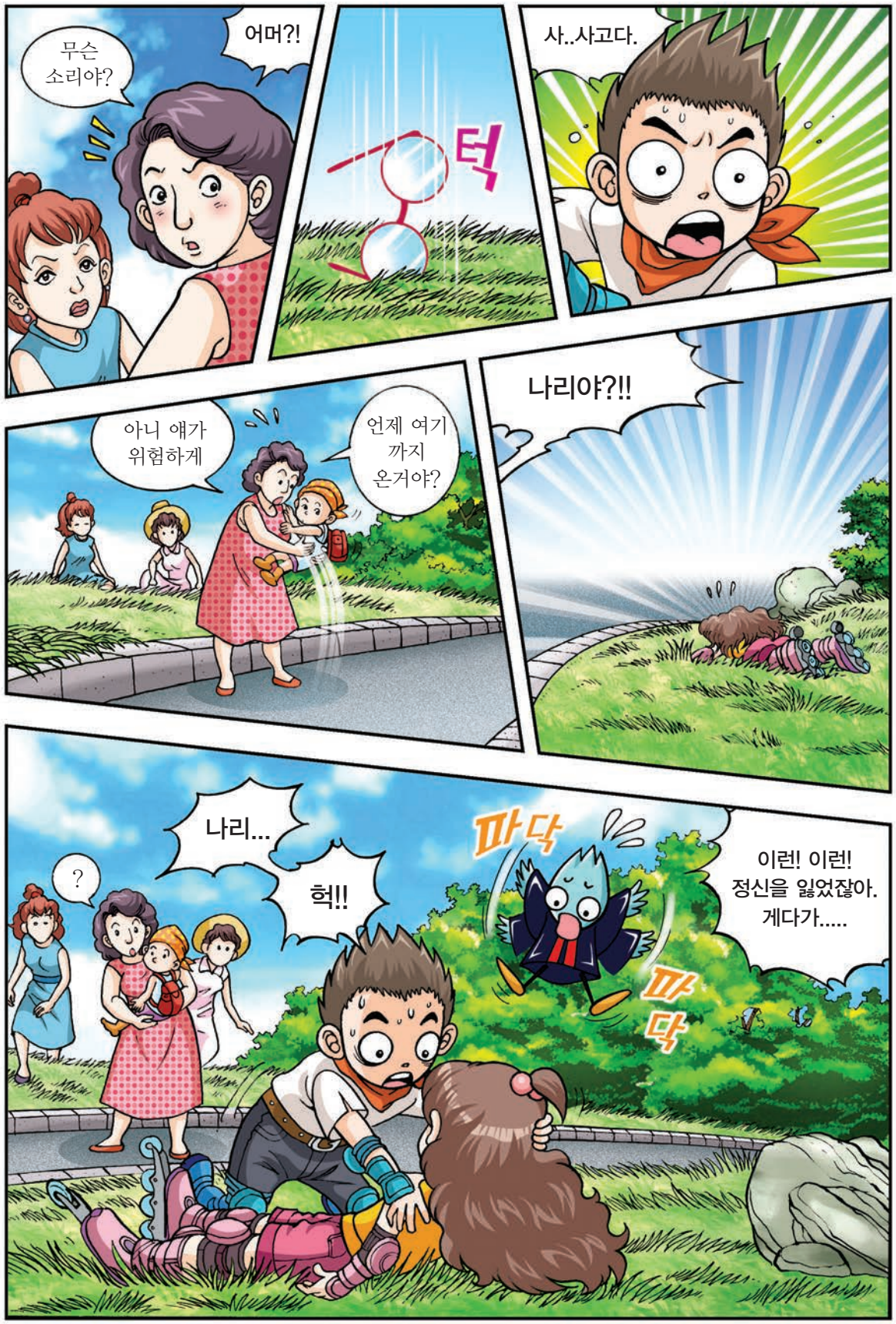

엇?


수억가지 능력 중에 일부니까 놀랄 것 없어.
기왕 심판을 보려면 제대로 봐야지.
삐융
삐융
이야~


자! 똘이는 정확히 10초후에 출발한다.
준비~
출발!
땅~
차르르르
흠! 달리기는 만만찮을껄..
차르르르
10
9
바로미. 너 어째 천천히 부르는 거 같아?
심판한테 말 시키지마!!
8
7
6
차르르르
차르르르


5
4
3
커브길 조심!!
차아아악
!
ㅎㅎㅎ
ㄲㅏㄹㄹ
안돼!!


쓰르르
턱
앗!!
버
벅
아...
빠앙
...?


무슨 소리야?
어머?!
턱
사..사고다.
나리야?!!
아니 얘가 위험하게
언제 여기까지 온거야?
나리...
?
헉!!
따닥
따닥
이런! 이런! 정신을 잃었잖아. 게다가.....


저런.. 사고가 났구나.
나.. 나리야....
오..온통 피투성이...


아니! 얘는 우리 이웃집에
사는 나리잖아!!




아줌마 애를 피하려다
나리가 다쳤다구요!!


세상에.. 그. 그랬니?
이 일을 어째...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수지엄마! 어서
119에 구급차
좀 불러!
난 나리엄마
한테 연락해야
겠어!
으아앙!
죽으면 안돼!
나리야!!
나리야!!!
나리는 앞니가 2개 부러지고 앞 턱뼈의 교정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다쳤다.
결국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응급실


난 그 아줌마를 용서 못해. 그 아줌마가 아기를 돌보지 않아서 나리가 다쳤잖아.
외과
TEXI
하아.. 그 아주머니가 아동 보호의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그건 나도 모르는데? '아동보호의무'가 뭐야
우리나라엔 아동복지법이라는게 있어.
18세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짓고, 모든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안전하고 조화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야.
아동복지법에선 아동보호자들이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정해놓았어.


그럼, 그 아줌마가 법을 어긴거네? 좋았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를 갈고있는 거야?
빠드득
어머! 똘아.
나리 병문안 온거니?
안녕하세요. 나리어머니.
어머 얜.. 딱딱하게 나리 어머니가 뭐니?
꺽
장모님이라고 불러!
네 장모님!
헉! 강적이다.
나리는...
이제 괜찮은 건가요?


상처는 치료했지만 아직 말도 못하고 있는 상태란다.
나리도 크면 엄마를 닮겠지..
퇴원해서도 치과와 성형외과를 함께 계속 다녀야 할 것 같아. 제발 흉이 지지 말아야 할텐데...


그 아줌마... 「아동보호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나리를 다치게 한 그 아줌마에게 민사 재판을 청구해서 혼내주세요.


제 친구가 법에 대해 좀 아는데 친구 말이.. 그 아줌마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대요.


....


똘아, 네가 나리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단다.


하지만 어젯밤에 그 아기의 엄마가 문병을 와서 우리 가족에게 정중히 사과했단다.
입원비에 보태라고 얼마의 돈도 주셨지.
속상해도 이웃끼리 고소를 할수도 없고 정중히 사과를 하니 나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했단다.
하지만…
나리가 저렇게 많이 다쳤는데….
ㅅㅏ ㄴㅣ ㄴㅣ
이번 일로
돌이가 많이 놀랐나보구나.


나도 나리가 다쳐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무조건 재판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단다.
서로 대화하고 조금씩 배려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면 그걸로 좋다고 생각해.
와~ 나리 엄만 맘씨까지 예쁘구나~
무조건 법대로 하자는 식의 논리는 사람들 간의 '신뢰'나 '정'과 같이 소중한 가치들을 상하게 할수도 있거든.
재판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야.
302
신나리


.....
얼마나 아플까...
깼구나..
몸은 괜찮아? 턱은?!!
!
바로미야. 나리가 왜 저러지?
붕대때문에 말을 못하나 봐.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의사소통 되게 해줄께.
뿌우
뿌우
뿌우


나 지금 얼굴이 엉망인데 오면 어떡해. 창피하잖아.
괜찮아! 내 눈엔 진짜 두꺼운 초강력 콩꺼풀이 씌여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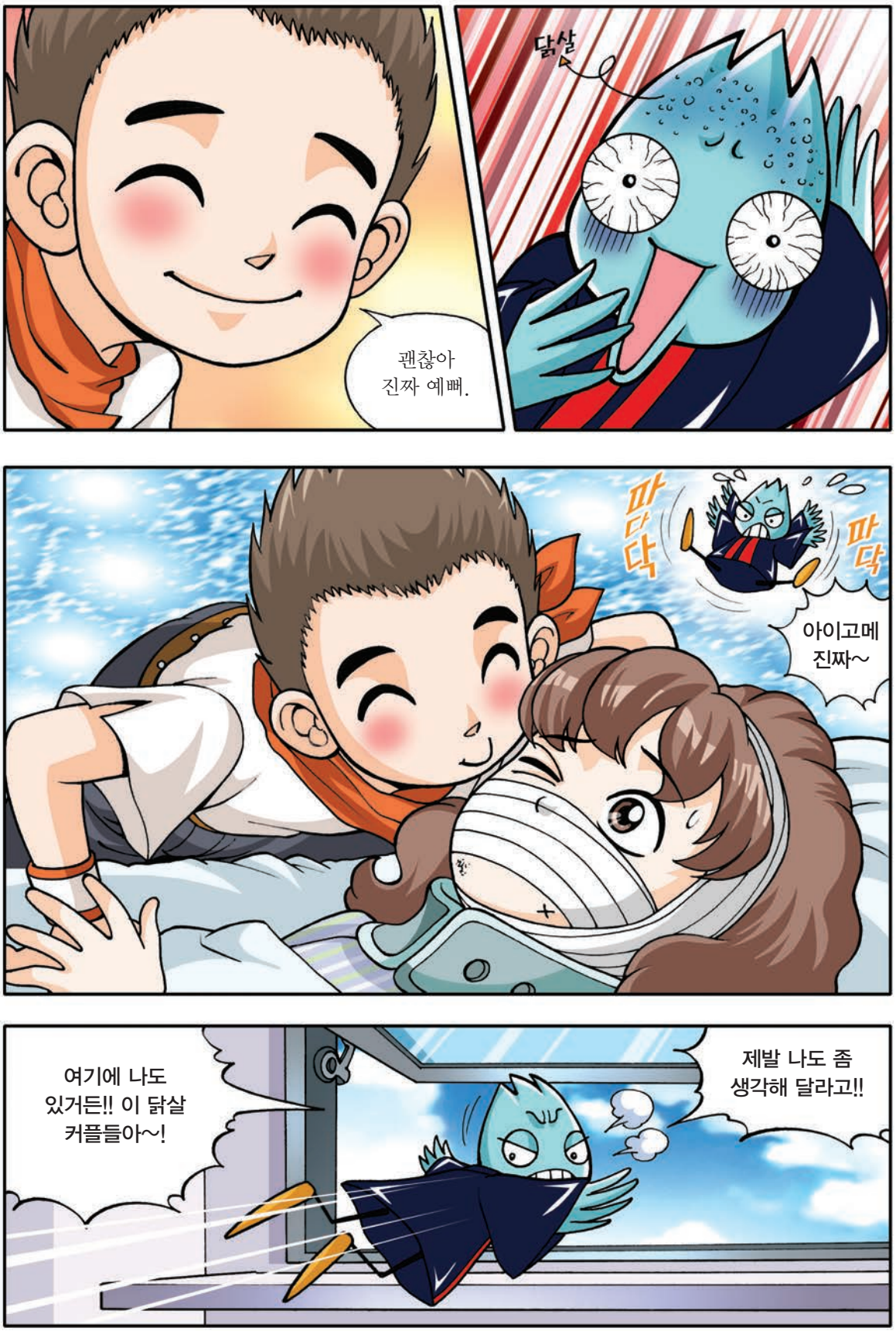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내 눈이 저절로
포토샵처리를 해주니깐 걱정마!


따닥
따닥
풋! 그게 뭐야?
진짜 이 닭살짓엔 익숙해지지 않는구나.


네가 웃는 모습을 보니깐 이제야 안심된다.
그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걱정 많이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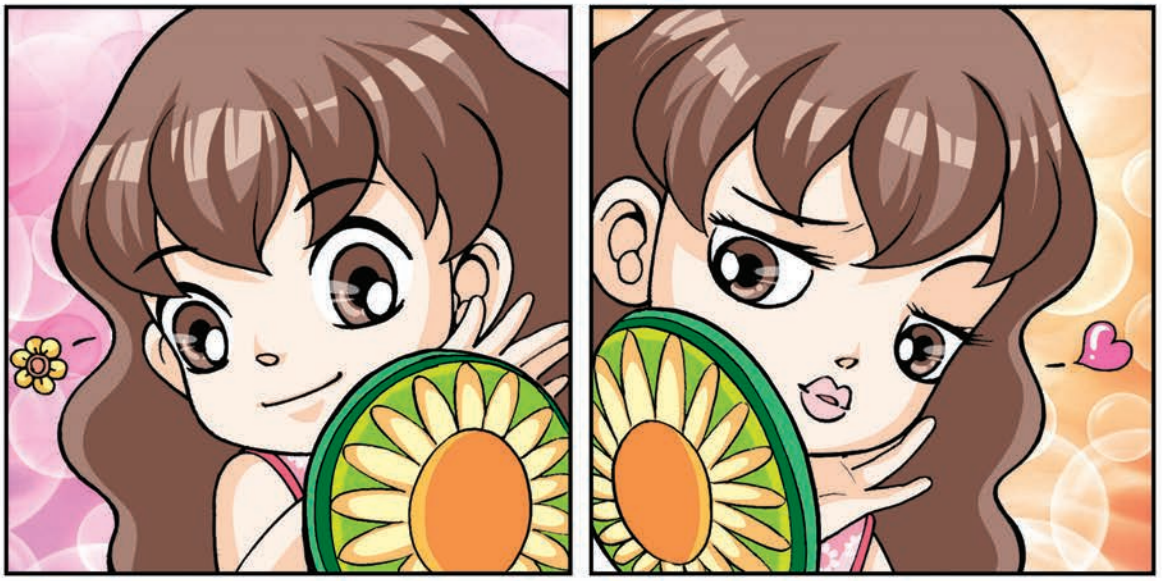

진짜 다행이야.
또.. 똘아!
네가 다친게 다 내잘못인 것 같아.
흑흑
그건 또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야?
내가 얼마전에 갈비집에서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잖아.
생각해보니깐, 그땐 우리 부모님도 「보호자의 아동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으신 책임이 있었어.
그런데 이번엔 너희 이웃집 아줌마가 「아동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으셔서
네가 큰 사고를 당했잖아!
...!
똘아.. 이건 그냥 우연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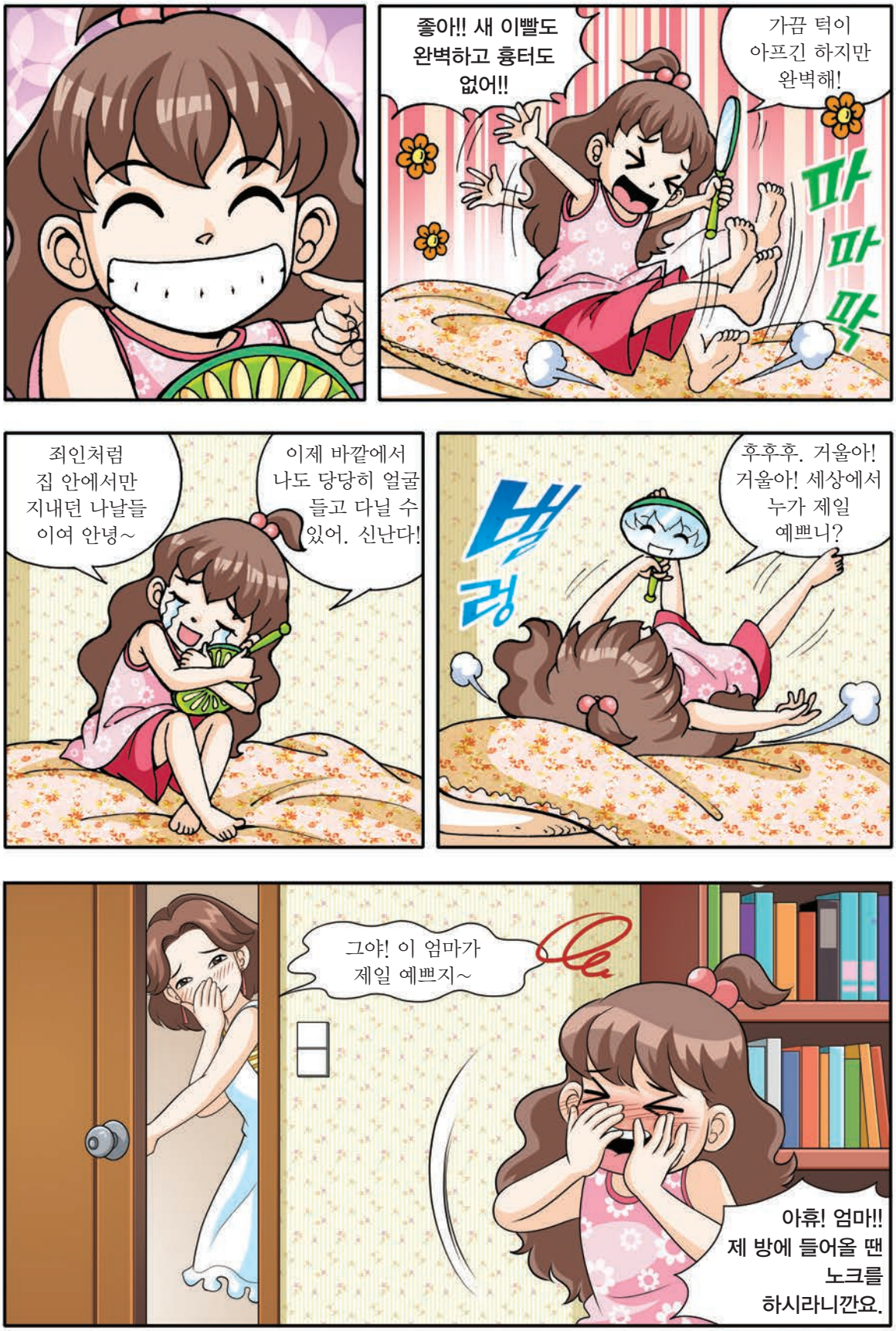

게다가 넘어진 자리에 바위가 있어서 운이 안 좋았던거구.
어쨌든 그 아기는 무사해? 정신이 없어서 엄마에게 못 물어봤어.
응! 무사해 네가 피했길 잘한거지.
...네가 다치긴 했지만.....
아무튼 아기도 무사하고 여러가지 의미에서
아기엄마도 무사하시게 됐어.
다행이다.
나도 아동 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아동 보호를 한셈이잖아.
어쩜, 우리 나리는 이렇게 마음씨가 비단결 같을까?
그 아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도 그런 말을 하다니!!
자체 포토샵도 한계가 있어 그만 쳐다봐.


괜찮아
진짜 예뻐.
닭살
따닥
따닥
아이고메
진짜~
여기에 나도
있거든!! 이 닭살
커플들아~!
제발 나도 좀
생각해 달라고!!

❸ 초상권 침해가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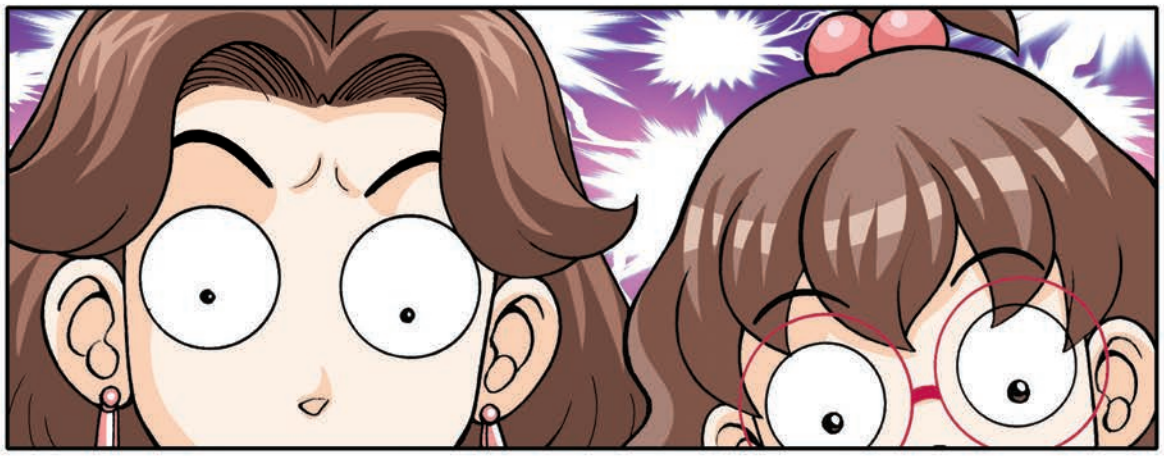

좋아!! 새 이빨도 완벽하고 흉터도 없어!!
가끔 턱이 아프긴 하지만 완벽해!
따 따 딱
죄인처럼 집 안에서만 지내던 나날들 이여 안녕~
이제 바깥에서 나도 당당히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어. 신난다!
벌렁
후후후.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야! 이 엄마가 제일 예쁘지~
아휴! 엄마!! 제 방에 들어올 땐 노크를 하시라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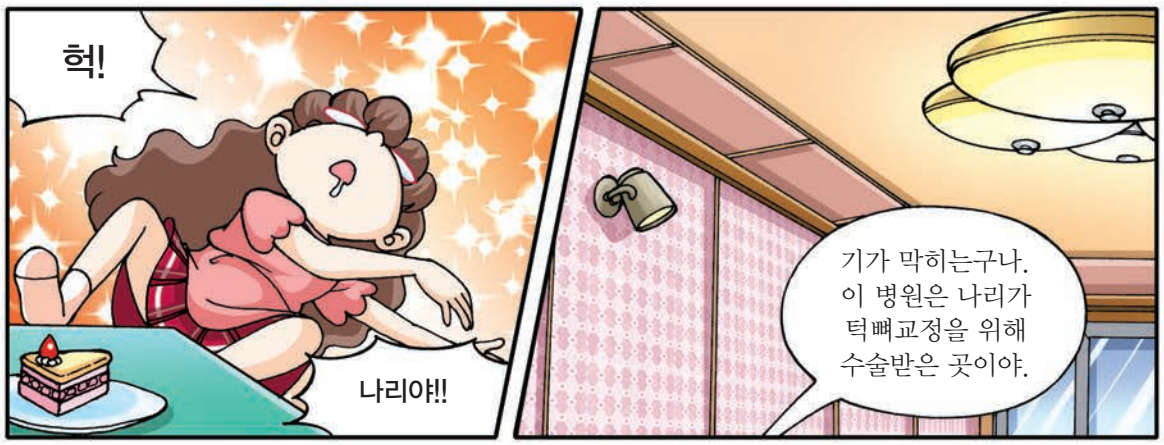

부끄러워할 것 없어.
제일 예쁜 건
엄마이지만
두 번째는
엄마 딸인 너니까.
제 방엔
무슨 일이신
데요?
잉~
똘이가 놀러왔단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표정이 많이 어둡더구나.
둘이 싸웠니?
벌떡
아뇨.. 싸우진
않았어요.
무슨 일이지?


바로미까지 나란히 죽상이네.. 둘이 왜그러지?
똘아. 케이크 먹어. 네가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케이크야.
응. 고마워.
간식을 앞에 두고도 똘이가 저런 반응이라니!
보통 심각한 일이 생긴게 아니구나..!
둘이 나한테 할말 있지? 무슨 일이야?
그게...
아아! 어떡해!!
바 바 박
내 입으로 말하기가 너무 괴로워!
이 일은 나리 너혼자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 엄마도 모셔와서 같이 들어.
뭐?


아! 그리고 청심환도 꼭 먹어둬!!
? ? ?
대체 무슨 일이야? 뜸 들이지말고 말해!
.....??
제가 어제 상가 음식점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음식점 앞 전단지꽂이에서 발견한 거예요.
전단지?
?
신데렐라 성형외과
21세기의 요정 할머니!
완벽한 과학 설계로
인간 재창조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아름다움은 만들어지는것이


아름다움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게
망가진 얼굴도 감쪽같이 고쳐드립니다.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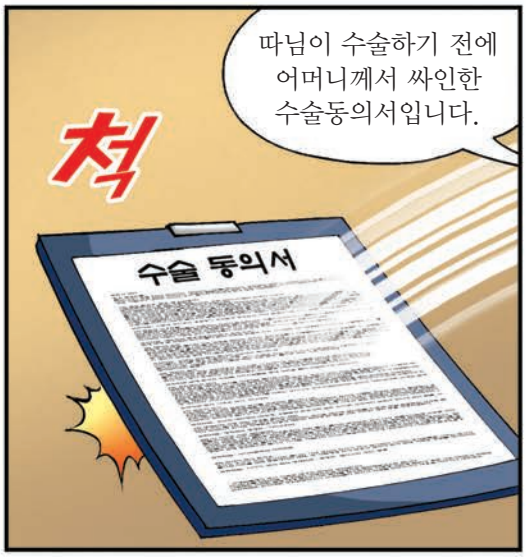

헉!
나리야!!
기가 막히는구나.
이 병원은 나리가
턱뼈교정을 위해
수술받은 곳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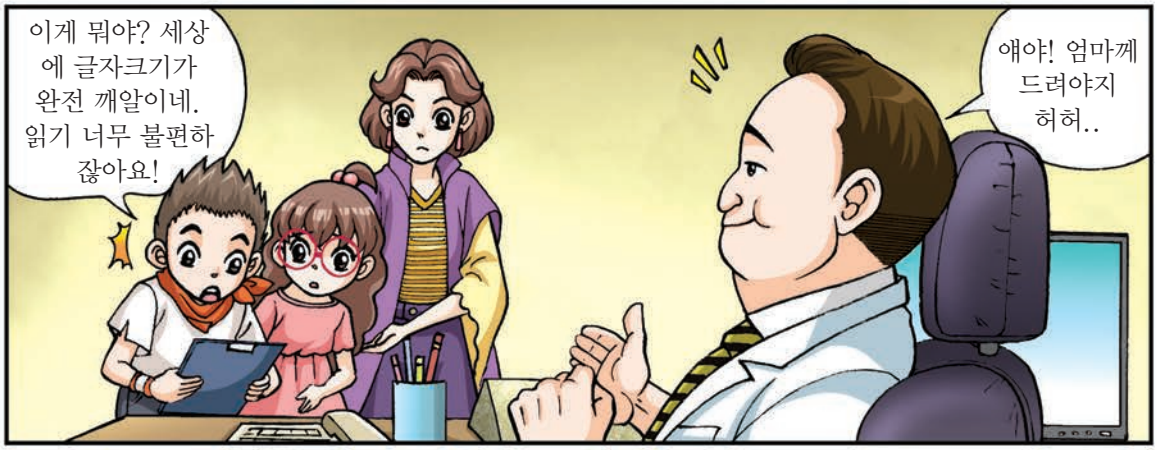

아플 때 다친 얼굴 보여주기 싫다고 친구들의 문병도 모두 거절한 나리인데...
이런 처참한 사진이 전단지로 뿌려지다니...
아줌마. 당장 병원에 가서 항의해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의 사진이나 그림에 대한 독점권.
즉, 초상권이라는게 있대요!
제가 말했어요! 안 들리실 테지만...
...!
나리는 그 초상권을 침해당한거니 그 병원에 정당하게 항의할수 있어요.
그래! 당장 그 병원에 가봐야겠어.
전단지들도
모두 회수해야 돼!


끼익
나, 나리야 일어났니?
좀 더 누워있지 않구.....
엄마....
나도 같이 병원에 가볼래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 지금와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원장 나의사
사진에 관해서는 수술 전에 동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거 동의한 적 없어요.
허어! 이거 왜들 이러시나..
의사가 거짓말 까지 하는거예요?
사기꾼!!


굳이 증거를 보여드려야 믿겠습니까?


따님이 수술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싸인한 수술동의서입니다.
척
수술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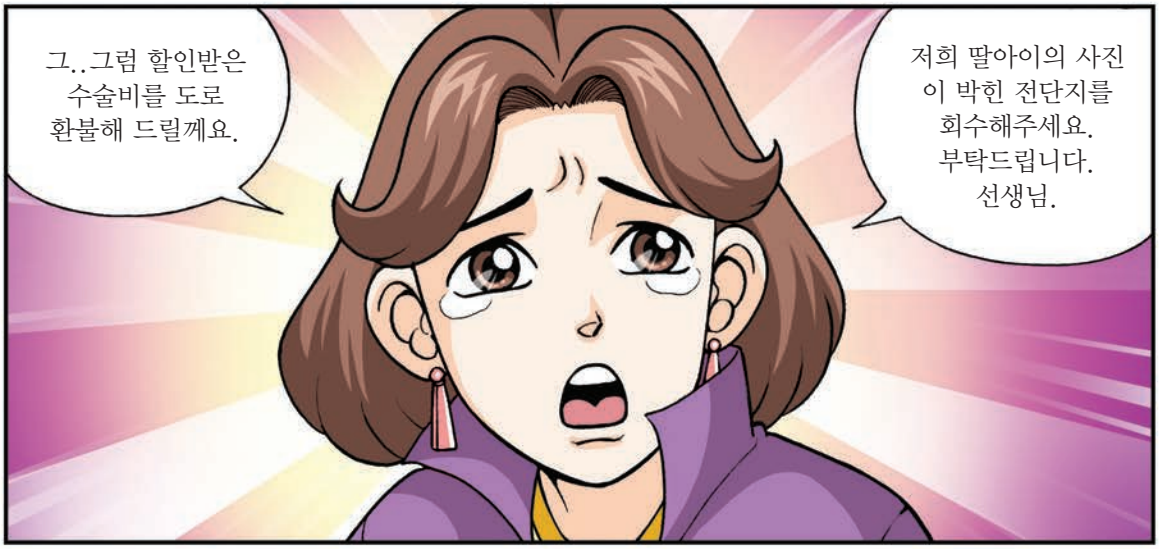

이게 뭐야? 세상에 글자크기가 완전 깨알이네. 읽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얘야! 엄마께 드려야지 허허..


동의서에 있는 약관의 한 귀퉁이를 봐 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죠?
「수술가격의 할인적용을 받을시에는 수술결과에 따라 수술한 이미지 사진을 병원측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관?
그..그럼
설마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엄마.. 설마 수술비 할인 받으신 거에요?
응…
하..할인 받았어.
헉!!
하지만 선생님!! 그때랑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제게 약관에 대해 설명 하실 땐
연구용으로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탕
그래요.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쩌다 보니.


홍보용으로 사용하게 됐네요.
어쨌든 약관엔 '연구용'이니 '홍보용'이니 적혀있진 않죠?


어머니께서 서명한 이상 나리양의 수술 사진에 대한 초상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그럼 할인받은 수술비를 도로 환불해 드릴께요.
저희 딸아이의 사진이 박힌 전단지를 회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저 예쁜 따님을 두신 값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끔찍한 사고로 망가진 나리양을
말끔히 원상회복 시킨건 사실이 잖습니까?
이제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만 나가주십시요.
김간호사 다음 손님 들여보내요.
....!
성형외곽
신데렐라
어? 재 좀봐.
저기 사진 주인공이잖아!


맞네!
엄마.
하! 정말 감쪽같다!!
벌써부터 고치기 시작하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
크큭 인조인간!
야!
아이쿠! 깜짝이야.
뭐야 저거?
무, 무서운 놈이다. 도망가자 어서..
거기 서! 안서!!
당연히 안서지.
타다다다다
그냥 두거라..
!


!
미안하다 나리야.
엄마가 칠칠맞아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으아!! 열받아!
그 약관이라는거 엉터리야! 고객이 제대로 읽을수 없게
찍
찍
찍
귀퉁이에다 깨알만하게 써놓은 것하며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깨알같이 가득해서 눈알이 핑핑 돌더라구.
그건 선량한 고객들을 속여 먹자는 거잖아!!


약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약속으로
한 사업자가 수많은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두는 일종의 계약서야.


은행이나 보험, 신용카드, 할부거래 등의 계약이 이루어 질 때마다 일일이 사업자와 소비자가 흥정해서 계약서는 마련해야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잖아.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계약서.. 즉 '약관'을 미리 마련해 두고 소비자와 계약하는 거지.


아무리 계약서라지만 너무 하는거 아냐?
나리엄마도 결국 당하신거잖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사업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삽입하는 불공정한 경우가 많아.
헉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할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일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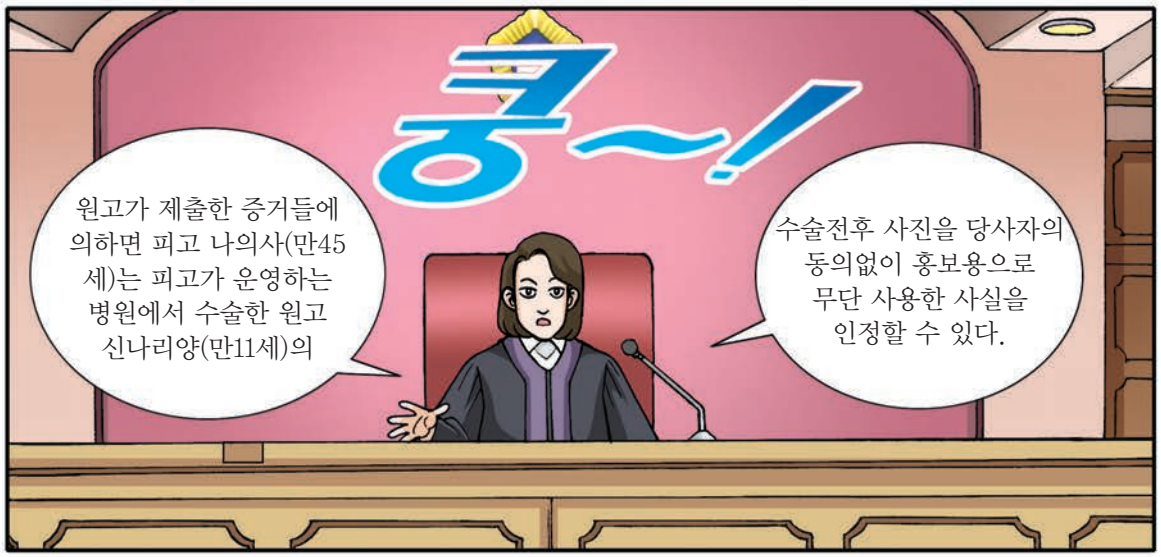





그래서 법은 적극적으로 법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해.
부당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넘어 가는 경우가 많거든.
엥? 법에 호소하다니?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
약관에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든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약관은 무효가 된다고 법률로 보호하고 있어.
약관내용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소비자 안전
피해 구제
분쟁 조정
교육·정보
국제거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연구하고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정부출연기관


그럼 혹시.. 나리도 재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받을 수 있고 말고~
나리는 잘못된 약관으로 피해를 입었고 나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돈을 벌기위해 개인 사진을 함부로 이용했으니 병원의 잘못도 있거든
그.. 그런일이..!
그럼 아까 말해주지! 그걸 몰라서 나리가 울었잖아!!
그땐 나리 엄마가 계셨잖아.
아이쿠
옆에서 나랑 대화했으면
넌 미래장모님께 정신나간 사람 취급 받았을 껄~
맞다. 넌 다른 사람한테는 안보이지!
어쨌든 좋았어!!
당장 나리네 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려드리자.
…
뺑


나리엄마와 나리는 약관이 불공정한 것임을 들어 나리의 사진을 회수해주길 병원에 다시 요청했으나...
부글
부글
약관이 불공정하든, 아예 사기이든
동의한다는 사인을 하셨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억울하시면 법대로 해보세요. 법대로~.
신데렐라 성형
좋아요! 까짓것 법대로 해요!!
웬만해선 재판까지 안가려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주 끝장을 보자구요!!!
법원


쿵~!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나의사(만45세)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한 원고 신나리양(만11세)의
수술전후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홍보용으로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엥?


앗싸! 이겼다. 역시 정의는 마지막에 웃는다 니깐!!
그럼 판사님이 불법행위라고 하셨으니


그 전단지들은 이제 다 회수되어 없어지는 거겠지?!
당연하지. 이제 안심해.


고맙다. 똘아.
너 때문에 재판을
할 용기가 생겼어.
아니에요.
저도 제 친구
의 말을 전한
건데요.
전에 말씀드린
법에 대해 잘 안다는
친구요. 나리도
알아요.
그래!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전해주렴.
모두들 정말
고마워.
헤헷!
별말씀을요.
모두 잘 해결
되어서 너무
다행이야
엄마.
그렇지
우리 딸!
크흑! 홍보효과가
200%였었는데....


흐흑...
내돈..!!


자! 나가자.
기분이다. 뭐가
좋을까?
오늘은 엄마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최고 맛있는걸로
한턱 쏘마!
우와~
신난다!!


앞으로 법에 대해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는 만큼 힘이
되잖아.

❹ 나쁜 아저씨가 진실이를








헉!
바바리맨?
진짜 무서웠겠다.
나리야. 혹시 모르니깐 너도 조심해야겠어.
응!
절대로 으슥한 길 혼자 다니지 말고 수상한 사람 조심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빠 친구니, 엄마 친구니 하면서 거짓말로 꾀어내도 믿으면 안돼!
알았어. 그 정도는 나도 안다구..
알아도 조심해야 해. 넌 특히 예쁘니깐 더욱 주의 해야지!!
국회에 「미소녀 특별 보호법」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하든지 해야겠어! 안심이 안돼.
으악!


김진실!! 깜짝 놀랐잖아!
하하하 미안!
네가 나리에게 유난 떠는걸 보니 닭살이 돋아서 나도 모르게 후려쳤어.
따닥
따닥
크크.. 나도 진실이의 마음 100% 이해하지.


유난떨긴 누가 그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너나 조심하셔. 요즘엔 변태들이 남자애들도 노린다니깐


남자 애들도?
싫어어어어어!!


겁먹긴!! 그깟 변태들 따윈 내 발차기 한방이면 끝이라구.
만약 만나게 되면 지구 밖으로 날려 버릴거야!!


와~ 내가 아는 한모군이랑 닮았네.
하하. 진실인 나랑 같은 태권도 도장에 다니거든.


진실아. 자신의 실력을 너무 믿지마. 예전에 똘이도 그러다가 다리 길이가 모자라서....
나리야!
STOP!!
?
얘들아! 기분 나쁜 이야기는 그만하고
놀자!!
음. 피구는 못하게 됐으니 뭐하고 놀까?
술래잡기?
숨바꼭질?
똘이랑 술래잡기 하면 술래가 아니라 맹수에게 쫓기는 것 같아서 하기 싫어.
응! 마치 사냥감이 된 기분이라서 무서워.
엥?
좋아! 그럼 숨바꼭질하자!


가위! 바위! 보!!
헉!
와아아아!! 똘이가 술래다!
쳇!
퍽.
스물까지 센다! 학교 밖으로 나가면 장외탈락 시킬테니 너무 멀리 가지마!
알았어!!
바로미 너도 숨어! 내 짐승같은 사냥본능으로 숨어있는 요정마저 찾아내 버릴테니..
후후~ 그래?
하나... 둘... 셋....
구름 뒤에 숨어야지~


.... 스물!
이제 찾는다!!!
헤에...
잘도 숨었네.
발진!
똘 레이더!!
나무 위의
김타잔!
수풀 속의 이밀림!
크하하하! 민지하!
땅은 언제 파뒀냐?


그리고 미끄럼틀 뒤에 옹고집!.. 다들 너무 쉬운 거 아냐?
순식간에 들키다니..
아냐. 넌 날 못봤어.


이제 진실이랑 나리만 남았나..?
난 안 들켰다구~
아 참. 바로미도 찾아야지.


역시 똘이!!


10초도 안되서 다 찾았네.
최대한 멀리 숨은 것이 정답이었어.


흠... 우선 나리를 찾아야지
갑자기 웬 기도..?


오오오옷! 느껴진다.
사랑의 텔레파시!!
분명 저쪽에 나리가 있다!
헉!
응?
분명 여기 어디 있어야 하는데.
나리야~ 여기있지?
대답해봐.
나리…
아아아


비.. 비명소리?!
진실이 목소리야!


후문쪽이야!
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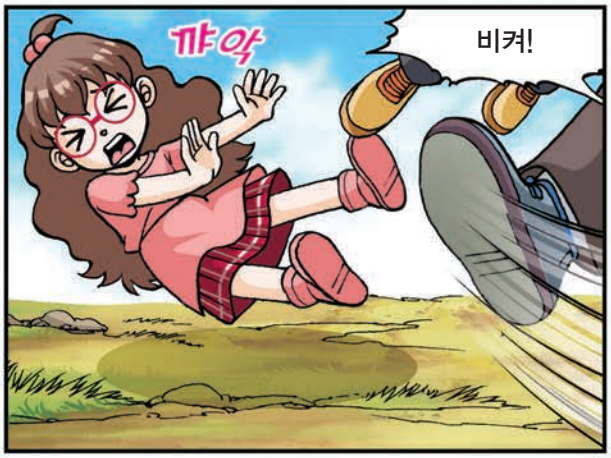

아악!
가만히 있어, 꼬마야.


으읍!!


나리야 저기?!
지. 진실아?


크크크...
예쁘구나. 예뻐.
진실아!!!
아저씨! 무슨 짓이세요?
제 친구 놔주세요!
흐흐흐. 이 꼬마 이름이 진실이였어?!
아저씨라니!! 오빠라고 불러!
난 진실이 오빠야!


안돼! 진실이를 놔줘요!
예쁜아, 오빠 네 집에 가자.
맛난 거 많이 많이 줄께.
으~ 싫어!!
미친 사람은 힘이 세다더니 꿈쩍도 안해!! 비켜!


까악
비켜!


나리야!


나리야 괜찮아?
안 괜찮아.! 우리 힘으론 상대가 안되겠어.
오늘은 일요일이라 학교에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실텐데 어떡해?


핸드폰!
핸드폰!
112에
신고해야해!!
그래! 112!!
네. 112신고센터
입니다.
도..도와주세요.
어떤 아저씨가 지금
제 친구를 강제로
데려가고 있어요?
여기요? 여긴
대법초등학교
운동장인데요.
지금 뒷문쪽에
있어요. 네! 빨리요!
빨리!
똘아. 나리야!
살려줘!
읍!
온데.
진실이가.
에잇!
나쁜 인간!!
용서할 수
없어!


변
으악!
태
끼아아아앙
나리야!
똘아!
탁
오빠를
물면
안되지!
아얏!


모두 뛰어!
나리야!
지.진실아 어서 도망가
크흐흐흐 앙탈부리면
오빠 진짜 화낸다!
도망 못 가.
귀여운 것들!!
가까이 오지 마요!!
삐익
경.. 경찰이다!!!


저기다!
빠아앙
나중에 또 보자
이쁜아~!


서라!!
똘이랑 다 저기 있네.


이 오빠가
맛있는 거 많이 줄게.
다 다 다 다 다


철푸덕
아코


우린 술래가 숨어버린 줄 알았잖아.
똘아. 뭐야?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잡았다....


이런 파렴치한!
힘없고 순진한 어린아이를 성추행하다니!!
아야야야... 경찰아저씨 살살 좀 잡아요. 저 넘어졌잖아요.
다행이다..
진실아. 괜찮아?
나...나리야. 똘아 고마워....
흑!!!
아 아 아 앙
....

* 상습 – 늘하던 버릇.


진실이를 성추행한 아저씨는 경찰 조사결과 과거에도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친구 이거 상습* 적이구만!
아.. 아니예요.


아저씨는 바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노추행 (만30세)은 과거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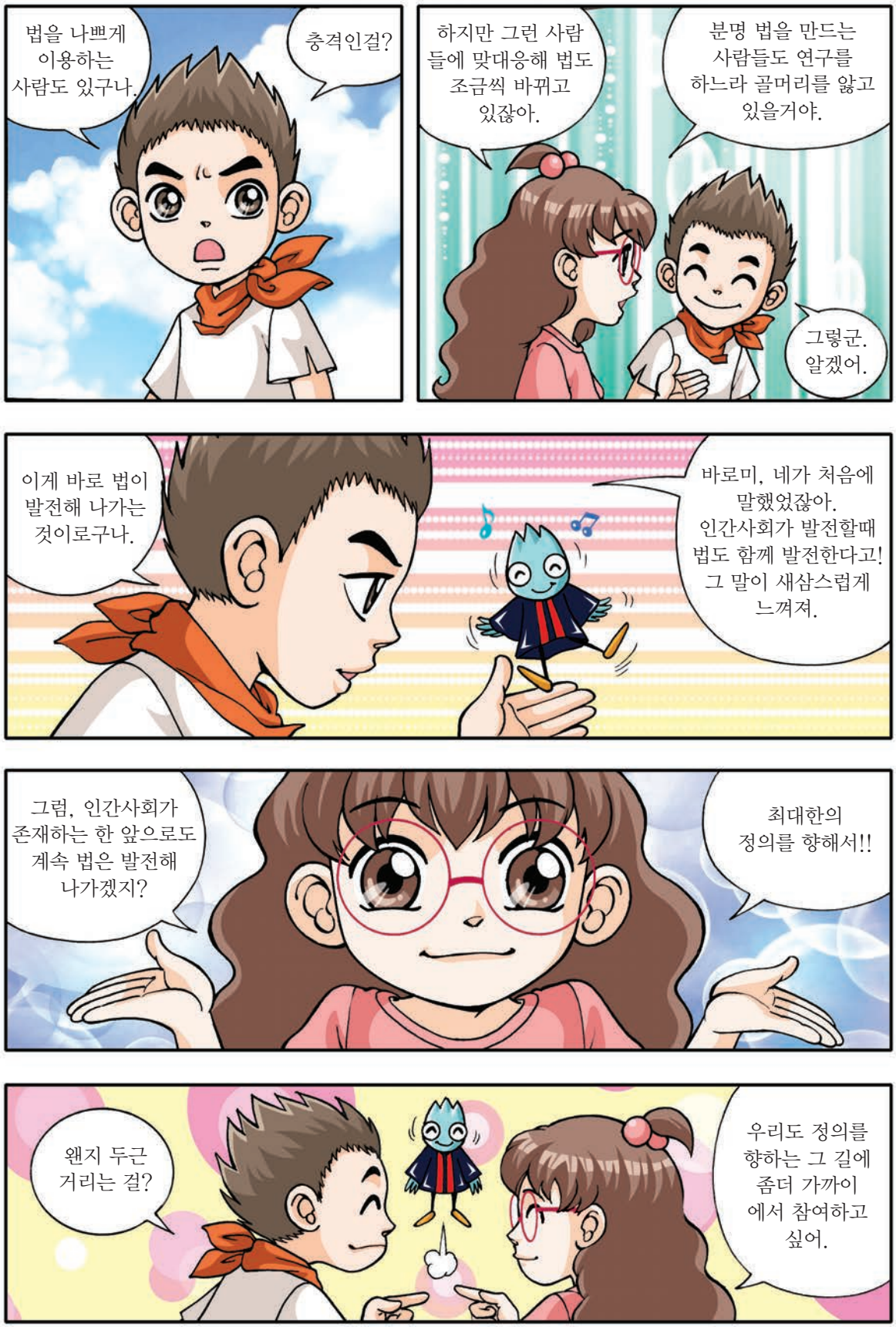

성범죄를 여러번 저질러
법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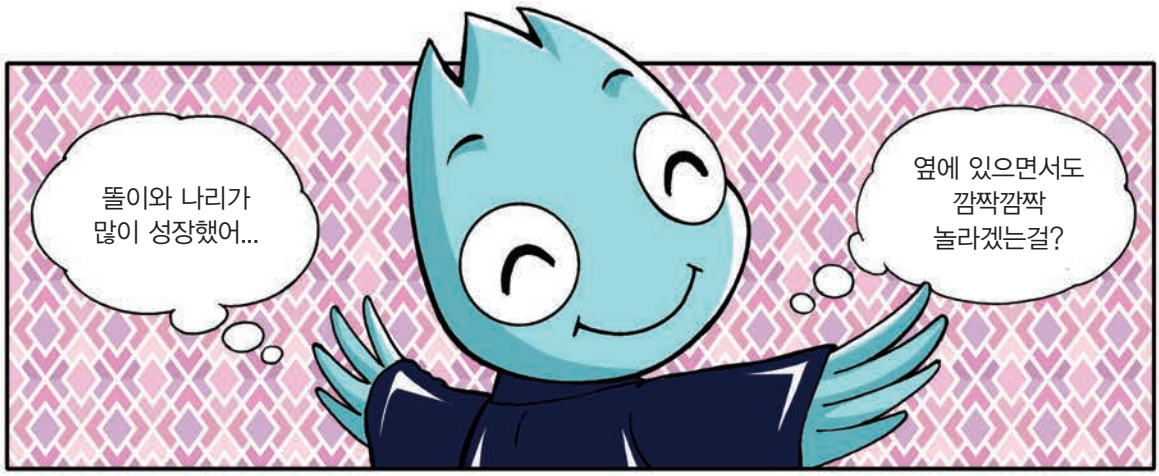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아무 저항능력이 없는
여자어린이를 추행하는 나쁜 짓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법원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징역3년에 처한다.
3년이나!!!!
변호인석
징역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머물게 하여 강제로 일을 하게함.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쁜 행동을 저지르지 못하게하는 수단이 됨.
재판장님! 제가 술에 취해서
잠깐 실수한 거라니까요.
벌떡
그때 상황이 전 기억이 하나도 안나요.
잘못했어요!!!
진실이는 어떻게 됐어? 좀 괜찮아졌대?


엄마랑 같이 정신과 상담도 받고
많이 불안해했지만, 그 아저씨가 감옥에 갔다는 얘길듣고 많이 안정됐데.
진실인 성격이 쾌활하고 용감한데다
의지가 강해 잘 이겨낼거야.
응!
하지만 성추행범에게 덤벼들다니.
그건 위험한 짓이였어.
뭐야? 바로미. 그때 좀 도와줄 수 있었잖아.
난 똘이 너에게 들킬까봐 구름 뒤에 숨었다가 깜빡 졸았거든.. 헤~
운이 좋아서 무사했지만 다음엔 무조건 자리를 피하고,
재빨리 신고한 후 어른들을 불러와야 해!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리를 떠?
성추행범을 잘못 자극하면 오히려 진실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그 이상의 짓을 할수도 있다구!!
따닥
따닥


변태는 변태이나 우리 경우엔 그나마 좀 찌질한 변태라 다행이라는 건가?
그.. 그렇지.
비겁한 사람이었어! 뭐가 어때?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잠깐 실수한 것 같다니... 으아아으!!
맞어! 차라리 날아온 돌에 맞아 기억을 잃었다고 하시지?
벼락맞고 조기치매에 걸렸다고 하던가. 세상에 그런 변태들은 몽땅....!!
나, 나리야 진정해.
나, 난 아닌데..
예전엔 성범죄가 일어나도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은 죄를 덜어주었거든.
노추행! 그 자도 술을 핑계로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고 그런 말을 한것같아.
심신미약
사물을 구분하여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모자란 상태. 신경쇠약이나 알콜중독, 노쇠 등에 의한 증상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성범죄자들이 가벼운 벌을 받는 경우가 생겨서,
지금은 술을 핑계로 한 변명은 재판에서 잘 들어주지 않아.


법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구나.
충격인걸?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맞대응해 법도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
분명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연구를 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을거야.
그렇군. 알겠어.
이게 바로 법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로구나.
바로미, 네가 처음에 말했었잖아. 인간사회가 발전할때 법도 함께 발전한다고! 그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져.
그럼, 인간사회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법은 발전해 나가겠지?
최대한의 정의를 향해서!!
왠지 두근거리는 걸?
우리도 정의를 향하는 그 길에 좀더 가까이에서 참여하고 싶어.


똘이와 나리가
많이 성장했어...
옆에 있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겠는걸?


똘아. 난 이만
가볼께.. 진실이
사건 때문에
엄마가 걱정하셔
서 일찍 들어
가 봐야해.
에이~ 정의의
요정이 우리 옆에
있어서 문제없을
텐데...


흠~ 우리가
숨바꼭질할때
바로미는
구름 뒤에서
졸고 있었는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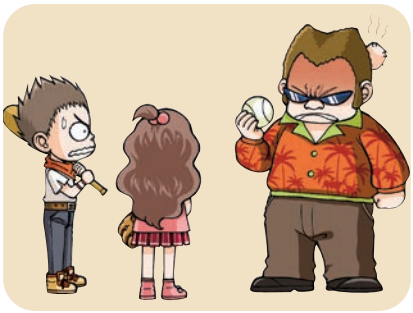

똘아. 바로미야.
우리 다음엔
다른 놀이하자.
안녕~
응..!
안뇽~


잘가~ 나리야.
내일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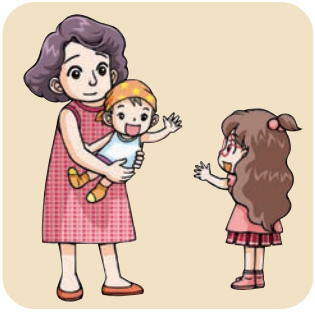
제7화 심화학습

민사재판의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일부러) 또는 과실(실수)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로 인한 손해(물질적 손해, 정신적 손해 다 포함)는 가해자(피해를 주는 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건의 경우, 똘이와 부모님은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피해에 관한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종업원과 음식점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똘이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하여 양쪽의 과실을 각각 50%로 본 것이랍니다. 손해를 보았을 때 배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지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보호자의 아동보호의무



아동복지법 제35조 제1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및 안전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17조는 여러 '금지행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6호를 보면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똘이의 숯불구이집 사건을 살펴보면 똘이의 부모님은 똘이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잘 가르쳐 똘이가 다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리의 인라인스케이트 사건에 등장하는 여자 아기의 엄마도, 아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리는 아기를 피하려다가 다친 것이었잖아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잘 보호하였다면 인라인스케이트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에요.

이렇듯 각종 어린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 배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도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초상권(肖像權)이란 자기의 초상(얼굴이나 모습)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권적인 것과, 유명인의 초상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산적인 것이 있습니다. 초상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나리 사례처럼 나리의 수술 전 · 후 사진을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한 의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답니다.

참고로 의사가 환자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환자에게 약관 등을 잘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겠지요? 환자나 보호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해당 병원의 약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성추행, 성폭행 대처법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만약 이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처음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안 돼"라고 정확하고 단호하게 불쾌하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경우, 호각을 가지고 다녀서 위급한 때에 부는 방법이 있답니다. 또 한적한 장소에서 혼자서만 노는 것을 피해야 해요.

만약 어린이에게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이루어졌을 경우, 놀라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위의 믿을 만한 어른에게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어른과 함께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가해자의 얼굴과 행동 등을 기록해두어 경찰이 가해자를 빨리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8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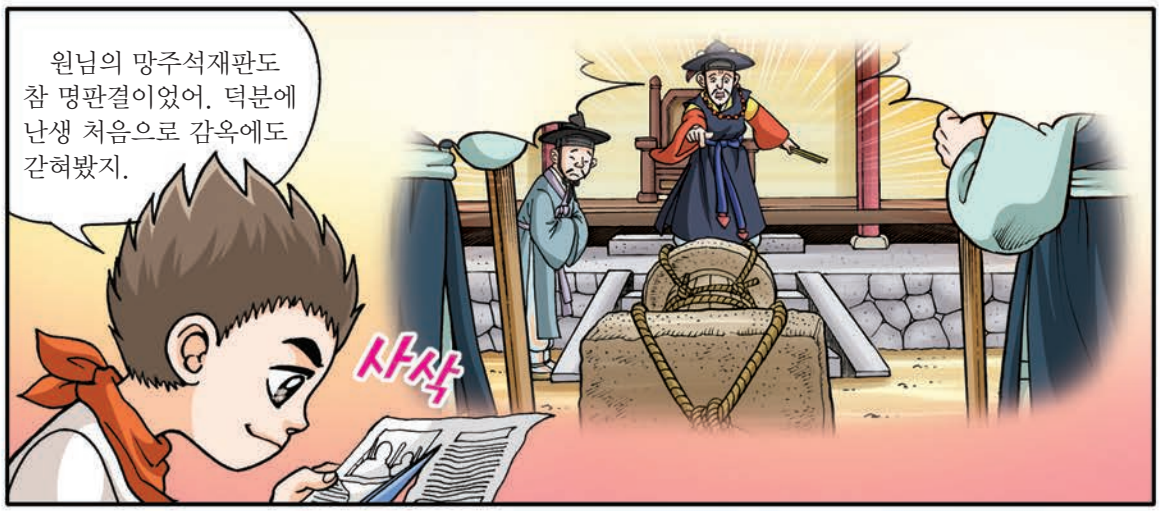



와~ 나도 조금 읽어봐도 돼?
조금 부끄러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다.
사회 속에서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거창한데..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정의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보면 오해도
생기기 마련이고 다툼도 많이 생긴다.
정의는 사회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그리고 법원은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기관중의 하나다
와~ 잘 썼는 걸!
법원사진도 붙이고 법과 재판에 대해 소개할거야.
그래?
이제껏 너희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도 다 써보는 건 어때?
나랑 처음 만났을 때 겪었던 일부터 말야.


바로미랑 처음 만났을 때?
풋! 그때 돌인 법은 필요없는 것이라 말했었지.
부끄러운 과거는 잊어주세요.
억! 닭살이 또!!
만약에 법이 없었다면 그 중학생 형들을 처벌할 수 없었을거야.
그 오빠들은 결국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었지...
앞으로 그 오빠들이 나쁜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형들의 부모님이 따로 받았던 손해배상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됐을까? 그때 손해배상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소 하셨었잖아.
글쎄.. 사람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니깐... 공정하게 끝나지 않았을까?


똘이 네가 직접 사기를 당한적도 있었잖아. 게임 아이템 사기사건말야. 결국은 잘 해결됐지만...!
검사측,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겠습니까?
네.
!
하하.. 그때 도와주셨던 경찰관 아저씨, 판사님, 검사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원님의 망주석재판도 참 명판결이었어.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감옥에도 갇혀봤지.
사삭


잘못된 재판도 경험했었지! 바로 마녀재판!!
웅성
세상에!! 마녀재판을 구경하러 왔는데 우리가 피고인이었어!
나 무서워 돌아.
고문이나 돈에 의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은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돼!!


정약용의 판결도 참 훌륭했어. 공평한 증언과,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멋지게 해결하셨지.
라과디아 판사님은 어떻구.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인정을 베풀 수 있음을 보여주셨지.


똘이 너의 부주의 때문에 큰일날 뻔 한 적도 있었지. 숯불구이집에서 치료비를 받긴했지만 앞으론 공공장소에서 조심하자.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난 네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다쳤을 때 기절할 뻔 했어.


그때 그 아기엄마는 아직도 좀 원망스러워. 난...
난 괜찮대도 그러네...
하지만 그 사건 후에...


내 사진이 병원에 의해 무단으로 쓰였을 땐 정말 황당했지. 재판을 통해 침해된 내 초상권에 대해 배상을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어.
아름다움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게
망가진 얼굴도 감쪽같이 고쳐드립니다.
AFTER


그리고 얼마 전엔 진실이가 이상한 아저씨 때문에 큰일날 뻔 했었잖아. 앞으로 낯선 어른이 접근할 땐 더욱 조심해야 돼!


?
……


하아..
생각해보니
많은 일이
있었어.
정말 폭풍같은
경험들이었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은 것 같네.
응. 힘든 일도 많았지만 유익했어.
덕분에 나도 결심한 것이 있어.
오~
그게 뭔데?
놀라지마!
난 어른이 되면 판사가 될거야!!
그냥 보통 판사가 아니라 정약용처럼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라과디아 판사처럼 정이 있는 정의로운 판사가 될거야!


네가 싫어하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할텐데
아니 반응이 왜들 시큰둥해 …?!
……
……
…화이팅..
목표가 생겼으니 앞으로는 공부 열심히 할거거든!! 법에 관한 책도 열심히 읽고 무엇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정의로운 행동을 할거야!
이건 사나이 한똘이의 맹세!!
꽉
후후.. 똘이를 보니 왠지 뿌듯한걸?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던 똘이가 이렇게 변하다니…
아~과거는 사양한다니까!!
사실은 나도 그간의 경험들을 통해
장래희망을 법조인으로 바꿨는데…
정말?
우와! 그럼 우린 판사커플이 되겠네.
똘아. 내 꿈은 판사가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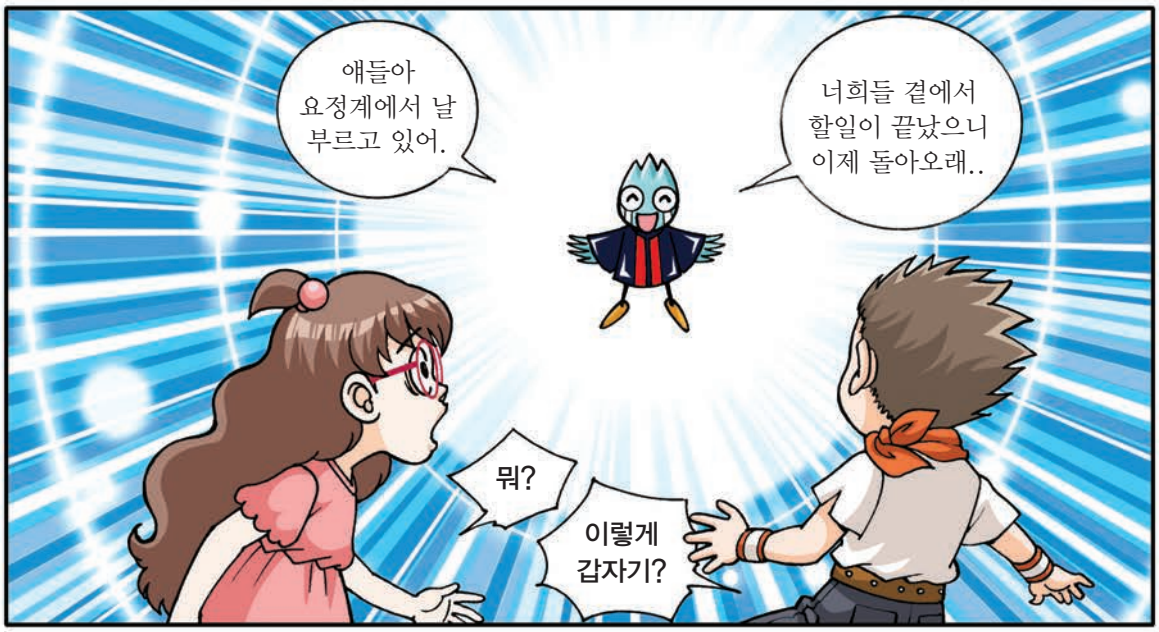

난 검사가 되고싶어.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지기 위해선 나쁜 사람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기 위해서 난 흉악범들이 날뛰지 않도록 그들을 혼내주는 검사가 될꺼야.
근데.. 나리야. 검사는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무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텐데...
걱정마. 내 무기는 힘이 아니라 오직 공정한 '법'이 될테니깐.
똘아. 우리 미래에 대해 한가지 약속할래?
미. 미래에 대한 약속? 혹시.... 결혼?!!!!
난 꼭 검사가 되어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흉악범들을 모두 잡아 법정에 세울거야.
너도 꼭 판사가 되어 정직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는거야! 약속할래?
!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정의를 실천하자는 거구나.
끌적 끌적
응!
좋아!
약속해!!


나리야! 똘아! 너희들
너무 멋지다. 감동이야!!
따닥
따닥

바..바로미 갑자기 뭐하는 거야?
?


으악!
뭐지? 뭐지? 나도 몰라


애들아 요정계에서 날 부르고 있어.
너희들 곁에서 할일이 끝났으니 이제 돌아오래..
뭐?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최근 너희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고
난 이별의 날이 곧 올지 예감하고 있었어.


그럼, 다시 요정법을 확 어겨 버리는건 어때?
10년쯤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게 ...


그게 정의를 지키는 요정에게 할 소리냐?
너무 서운하니깐 그렇지!!!


걱정마.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듯.
나도 너희들 눈에 보이진 않아도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꺼야.


바로미…
안녕.
똘아, 나리야.
그동안
즐거웠어.



제8화 심화학습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법조인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며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애쓰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도 기억하세요!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리게 마련이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속담처럼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제 무대로 진출한, 자랑스런 한국 출신 법조인!

1)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활동하시는 한국 재판관님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해양 분쟁 관련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법률기구입니다. 이곳의 재판관은 국제 공무원으로서 유엔 해양법협약과 국제 관습법에 따라 재판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의 박춘호 재판관님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이곳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이후 백진현 재판관님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근무하셨으며, 이중 2017년부터 3년 동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소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이자형 재판관님은 2023년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3년부터 2032년 임기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재판관님들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해양과 관련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하시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어린이 여러분 중에서 세계 무대로 진출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멋진 한국인이 될 수 있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해 있으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사법기관입니다. 이곳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9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는 해상 구역의 경계 설정, 항해, 바다의 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 해양 환경의 보호 및 보존, 해양 과학 연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합니다.





제8화 심화학습

2)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은 2001년부터 우리나라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되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하셨으며, 2008년부터 3년 동안은 부소장으로 일하셨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국제 사회를 대표해 중요 재판의 주심 재판관이 되셨습니다. 권오곤 재판관님은 주심 재판관으로 보스니아 내전 당시 많은 사람을 죽인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의 재판을 맡으셨지요. 권오곤 재판관님은 누구보다 반인륜적인(인간의 윤리를 저버리는) 범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죄 피의자도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반인권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전쟁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권오곤 재판관님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란?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발생한 학살, 고문, 강간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국제 법정으로 1993년 설립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와 1993년 5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827호에 따라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과 반인륜적인 범죄 처벌이 설립 목적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전쟁법 위반, 집단학살, 반인륜적인 범죄, 개인 형사 책임 등을 다루었습니다. 법정이 열린 기간 1만 800일, 기소 161건, 90명 유죄 선고, 재판 기록 250만 장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2017년 공식 해산하였습니다.

3)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활동하시는 한국 재판관님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송상현 재판관님은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된 후 2009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에 당선되셨습니다. 2014년에는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ECCC) 유엔 재판관으로 활동하신 정창호 재판관님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임기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되셨습니다. 2023년에는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하신 백기봉 재판관님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임기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송상현 재판관님, 정창호 재판관님, 백기봉 재판관님과 같이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고 전쟁과 반인륜적 범죄를 막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지 않나요? 우리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시는 재판관님들을 응원해 드리고, 세계 평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시다.

국제형사재판소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륜 범죄를 저지를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법정입니다. 국제 형사재판소는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입니다. 2002년 7월 정식 출범하였으며, 2003년 2월 재판관을 선출하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신속하게 전쟁범죄 등에 대해 단죄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 제도화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고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유기징역과 중대한 범죄의 경우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에 추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범죄로 인해 직접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과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미와 함께하는



글 |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그림 | 극동만화연구소

1판 1쇄 발행 | 2012년 1월 13일
개정판 1쇄 | 2024년 10월 ??일

펴낸곳 | **사법발전재단**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번지 (137-750)
02)3480-1309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사법발전재단)
디자인·인쇄 | 홍디자인 02)464-5167
연구·개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02)3480-1262

정가 8,800원

ISBN ???
??? (세트)

* 이 책의 내용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어린이마당 법교육교재 코너
(http://www.scourt.go.kr/kids/edubook/index.html)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